일자리
찾아
세계로

해외
취업
완전
정복

일본

일자리 찾아 세계로

해외취업 완전정복

일본

고용노동부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본 취업 한눈에 보기

일본 국가정보 탐색

1. 국가 일반 및 경제·노동현황 p.012
2. 정착 및 생활정보 p.136
3. 고용제도 p.026
4. 임금제도 p. 036

일본 구직준비

1. 일본 취업정보 탐색 p.086
2. 유망직종별 채용 트렌드 및 취업역량 p.056
3. 취업절차 파악 p.068
4. 취업지원 프로그램 활용 p.092

한국과 일본의 채용 시기 비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본			기업홍보			채용 절차 진행					내정 완료	
한국			채용 절차 진행(홍보 포함)						채용 절차 진행(홍보 포함)			

- 일본 학생들은 3학년 2학기부터 본격적인 취업활동을 시작
- 4학년 때 입사지원 및 면접 등 구직활동을 하며 취업확정시 이듬해 4월부터 근무시작

(대학졸업 전 취업을 놓치면 원하는 기업으로의 취업이 어려워져요)

3, 4, 5월

1. 기업설명회 참석
2. 각종 취업 세미나 참석, 해외취업 동아리 참가
3. 다양한 기업 서칭
4. 엔트리 시트와 이력서 제출
5. 적성검사(인터넷 테스트)

6, 7, 8, 9월

1. 서류전형
2. 필기시험
3. 면접
4. 최종면접
5. 예비내정(정식 내정은 10월)

10, 11, 1, 2월

10월 1일까지 채용이 확정되지 못한 학생 및 채용하지 못한 기업은 계속해서 취업·채용활동을 실시

10, 11, 1, 2월

1. 비자발급 p.126
2. 출국
3. 사내교육

일본 취업 SUMMARY

일본 취업의 특징

- 일본은 경제회복, 고령화 등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외국인에 대한 인력 수요가 많고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와 관련된 통합비자 등의 비자발급 용이
- 국적과 상관없이 스펙, 자격증보다는 인성과 잠재력을 중요시 하며, 경력직보다는 대학을 갓 나온 신졸 구직자 선호
- 입사 초기 교육에 집중하며 자기계발을 장려·지원하며 외국인이라도 정년까지 근무 가능

일본 취업 유망분야

- **IT 전문인력** : 한일 IT 기술자격의 상호인증으로 한국의 자격 취득자는 비전공자라도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프로그래머, 시스템 엔지니어, 네트워크 전문가, 웹 엔지니어 등의 IT 분야 전반에 취업 가능
- **기계·자동차 설계** : 글로벌 진출을 염두에 둔 일본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구인 수요가 있으며, 자동차설계 기술자, CAD, CAM, CATIA 능통자 등 기계·기술 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의 경우 일본어 능력시험 2급 이상의 어학 능력을 보유하면 취업 가능
- **총무·인사** : 제조, 상사, 금융, 서비스, 유통 등 거의 전 산업 분야에 걸친 다양한 업종의 주요 직종인 총무·인사 등의 종합직은 전공은 무관하나 고도의 일본어 활용능력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일본어 능력시험 1급 이상의 회화 및 비즈니스 문서 작성 능력 상급자면 취업 가능
- **영업** : 제조사, 상사, 금융, 서비스, 유통 · 소매, 대중 매체 등 거의 전 산업분야에 걸친 다양한 업종에서 영업 부문은 주요 직종으로 꼽히고 있으며, 전공보다는 일본어능력과 인성이 우선시 됨
- **판매담당 · 접객** : 판매 · 서비스 계열은 일본 정부의 관광업 활성화 기조에 따라 꾸준히 인력 수요가 예상되고 통합비자의 출현에 따라 비자취득이 이전보다 용이해짐에 따라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에서의 판매 담당이나 접객 분야도 일본 취업에 유망

일본 취업 준비 방법

- **준비단계**
  - 취업 희망 직종에 대한 전문 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 자신의 장점과 단점, 적성, 장래 포부, 가치관 등 철저한 자기 분석 필요
  - 어학 능력 및 자격증, 기술 등 직무 능력 중 부족한 역량 향상 노력
    → 어학 능력 부족: 학원, 어학 연수, 워킹 홀리데이 등을 통한 일본생활 경험
    → 직무 능력 부족: 전공 과목 이수, 자격증 취득, K-Move스쿨 등 연수 참여
- **구직단계**
  - 엔트리 시트 작성 : 우리나라의 이력서와 미국의 레쥬메와는 다르게 학력과 경험뿐 아니라, 각 기업의 독자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작성, 기업에 지원한 이유와 동기가 잘 맞아야 하는 것이 핵심
  - 적성검사(SPI) : 각 기업별 별도의 필기시험 이외에 기초 인지능력 및 인성 필기시험인 SPI 종합인성검사가 필수
  - 면접 : 일반적으로 1차 면접은 단체면접, 2차 면접은 개별면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외국인의 경우 토익점수 등의 외국어 점수보다는 일상 업무에서 일본어를 얼마나 잘 하는지, 동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체크

일본 취업 준비 시 유의사항

-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이 일본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비자 발급시 문제는 없는지 체크
- 일본학생들은 대학 3학년 2학기부터 본격적인 취업활동을 시작하여 4학년 때 입사지원 및 면접 등을 진행하므로 대학 1, 2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 필요
- 취업 전 근로조건, 직무 내용, 급여 내역 및 각종 수당 유무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 필요

일본 취업을 위한 자기분석 체크리스트

사전 준비 단계

항목	YES	NO
1.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2. 취업 희망 직종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 및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ex: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CAD/CAM/CATIA, 각종 컴퓨터 활용능력, 문서처리능력)		
3. 일본 기업에서 구직하는 다양한 취업 채널 및 경로를 알고 있는가		
4. 일본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가?		

구직 단계

항목	YES	NO
1. 일본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한 직종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2. 취업(거주)비자를 받는데 요구되는 건강상태 등의 결격사유는 없는가?		
3. 취업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가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4. 취업 희망 직종에서의 인턴십 및 아르바이트 등의 경험이 있는가?		
5. 이직에 필요한 경력개발을 위하여 취업 초기에 낮은 임금 (특히, 호텔 서비스업 등)을 감내할 수 있는가?		
6. 스펙보다는 잠재력을 중시하는 일본의 채용문화에 대해 알고 있는가?		
7. 인성을 중시하는 채용방식과 자기분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8. 면접 과정의 형식과 내용 및 주의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가?		

CONTENTS

PART 01

노동시장 동향 및 고용제도

01 국가정보 — 012
02 노동시장 동향 — 022
03 고용관련 제도 — 026
04 임금제도 — 036
05 사회보장제도 — 040
06 개인소득세 — 044

PART 02

산업 및 업종별 취업전략

01 취업 유망직종 현황 — 050
02 직종별 채용 트렌드 및 취업역량 — 056
03 산업 및 직무별 효과적인 취업방법 — 066
04 취업전략 및 로드맵 — 076
05 주요 로컬기업 및 우리나라 진출기업 현황 — 080

PART 03

해외취업 성공 포인트

01 해외취업 정보찾기 — 086
02 정부의 해외취업 지원프로그램 활용하기 — 092
03 해외취업정착지원금 — 102

PART 04

해외취업 사례

01 성공사례 — 106
02 일본 현지 인사담당자와의 인터뷰 — 118

PART 05

취업비자

01 취업비자 종류 126
02 취업비자 신청 및 취득 130
03 취업비자로 전환하기 132

PART 06

정착 및 생활정보

01 정착 136
02 생활 146
03 생활 에티켓 154

PART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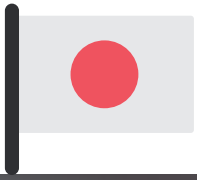
해외 취업 Q&A

01 현지 언어 실력 158
02 갖추어야할 스펙 158
03 면접 시 유의사항 159
04 졸업 경과 후 취업가능성 160
05 근로계약 시 유의사항 162
06 급여수준 162
07 외국인 복리후생 제도 163
08 현지생활 시 주의사항 163

PART

01

노동시장 동향 및 고용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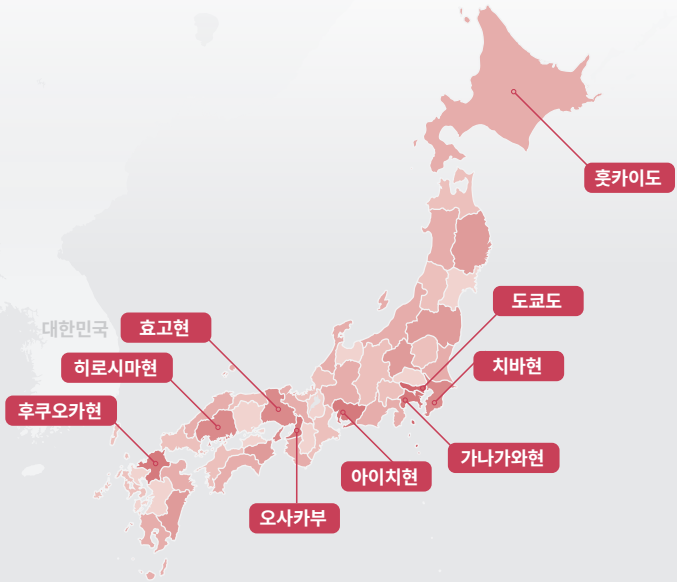
01
국가정보
-
02
노동시장 동향
-
03
고용관련 제도
-
04
임금제도
-
05
사회보장제도
-
06
개인소득세

01. 일반사항

국가 일반사항

국명	일본(日本) / JAPAN
위치	북위 45도 33분에서 20도 25분 사이에 위치, 4개의 주요 섬으로 구성
면적	377,950㎢(한반도 면적의 1.7배)
기후	4계절이 분명하며, 남북길이가 3,300km로 지역별 기후 차이가 심함. - 북부 : 아한대 - 중부 : 온대 - 남부 : 아열대, 열대몬순
수도	도쿄(東京) / TOKYO
인구	1억 2,536만 명(총무성 2021년 7월 1일 기준)
민족	대화족(大和族 : 야마토족) 99% 이상, 기타(재일교포, 아이누족 등) 1% 미만
언어	일본어
종교	신도(48.6%), 불교(46.3%), 기독교(1.0%), 기타(4.0%)
건국(독립)일	2월 11일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실권자)	일왕 : 나루히토(德仁) 내각총리대신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2021년 10월 4일 취임

자료: KOTRA 국가정보, 일본 총무성 통계국



02. 한국-일본 관계

한국-일본 관계

체결협정	1965. 12. 기본관계조약 1966. 06. 무역협정 1998. 10. 이중과세방지협정, 취업관광사증협정 등 2002. 03. 한일 투자협정 2004. 06. 한일 FTA 6차 협상 이후 협상중단 2005. 05. 한일 사회보장협정 2007. 01. 한일 형사공조조약 2011. 06. 한일 도서협정 2012. 01. 한일 원자력협정 2016. 11.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교역규모	**대한 수출** - 546억 400만 달러(2018년) - 475억 8,100만 달러(2019년) - 460억 2,300만 달러(2020년) **대한 수입** - 305억 2,900만 달러(2018년) - 284억 2,000만 달러(2019년) - 250억 9,800만 달러(2020년)
교역품	**대한 수출**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 기타플라스틱제품, 기타정밀화학원료, 기초유분, 고철, 기타화학공업제품, 합성수지 등 **대한 수입** 제트유및등유, 은, 나프타, 기타정밀화학원료, 집적회로반도체, 화장품, 경우, 합성수지, 냉연강판, 자동차부품 등
투자금액	**한국기업의 대일 투자금액(신고기준)** - 635건, 16억 2,200만 달러(2020년)

자료: KOTRA 국가정보, 한국무역협회

03. 경제지표

주요 경제지표

지표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E)
경제성장률	%	0.6	0.3	-4.8	3.3
실질GDP	US$십억	5,040	5,150	5,050	5,380
1인당 GDP	US$	39,820	40,800	40,150	42,930
소비자물가상승률	%	0.98	0.48	-0.02	0.10
실업률	%	2.44	2.36	2.79	2.80
US$1 당 환율	엔화/$US	110.42	109.01	106.77	108.01
외환보유고	US$십억	1,209	1,255	1,312	-
수출실적	US$백만	738,143	705,564	641,302	-
수입실적	US$백만	748,487	720,956	635,443	-
무역수지	US$백만	-10,344	-15,392	5,859	-

자료: KOTRA 국가정보,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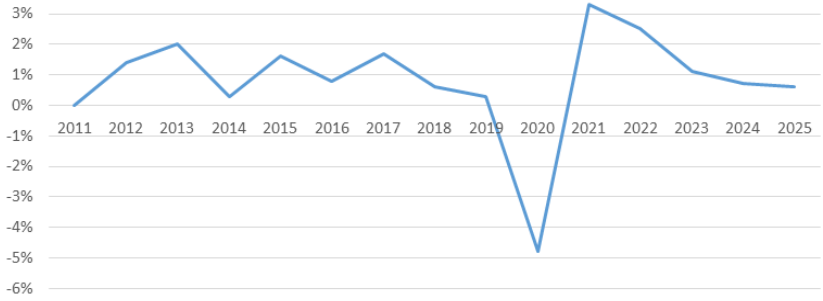
04. 경제동향

경제성장률

일본은 제조업에서의 강점을 기반으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견조한 경제성장을 보이는 국가이지만, 최근 미·중 무역마찰에 따른 수출의 감소, 2019년 10월 소비세 인상 여파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가운데, 2020년에 들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20년 2분기에는 실질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8.3% 감소하여 전후 시기인 1955년 이래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후 1차 및 2차 경제대책을 통한 대규모 재정지출과 전국민 현금지급 및 고용유지 지원 등으로 가계소비가 반등하면서 2020년 3분기부터 코로나 사태 전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2021년 들어서는 대외경제 회복에 따른 호재요인과 코로나 사태로 인한 내수 정체 등 부진요인이 혼재한 양상을 나타냈다. 특히 코로나에 대한 통제 미흡으로 인해 긴급사태가 2차 및 3차에 걸쳐 재발령되면서 개인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내수 회복이 더뎌지면서 2021년 상반기에도 일본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IMF가 2021년 일본 경제성

장률을 3.3.%로 전망하는 등 전반적으로 일본 경제는 코로나 감염 재확산 등의 위협 요인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해외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수출 및 생산이 일본 경제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부터는 코로나 감염 진정세 및 백신접종률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실질GDP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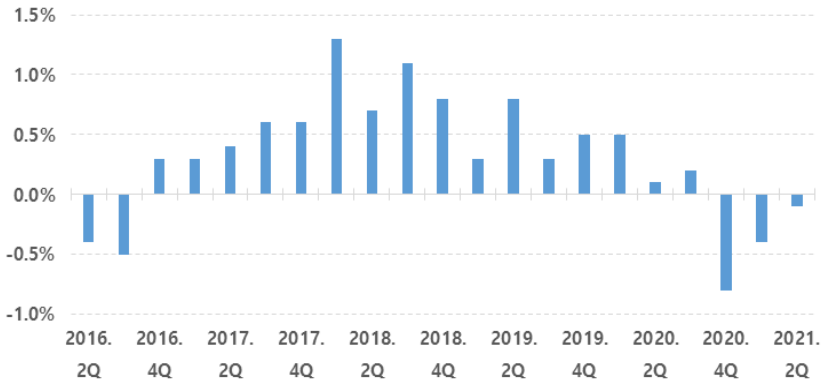


자료: IMF(2021년 이후는 추정치)

물가상승률

일본은 2010년까지 20여년 간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오랫동안 마이너스 물가가 이어진 디플레이션을 경험했으나, 2010년대 들어서면서 과감한 통화 공급과 확장 재정을 추구하면서 물가상승률이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 하지만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면서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다가, 2020년말부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21년에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OECD 국가의 물가상승률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임금 하락이 소비 침체로 이어지면서 주요국 중 물가상승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 소비자물가상승률 분기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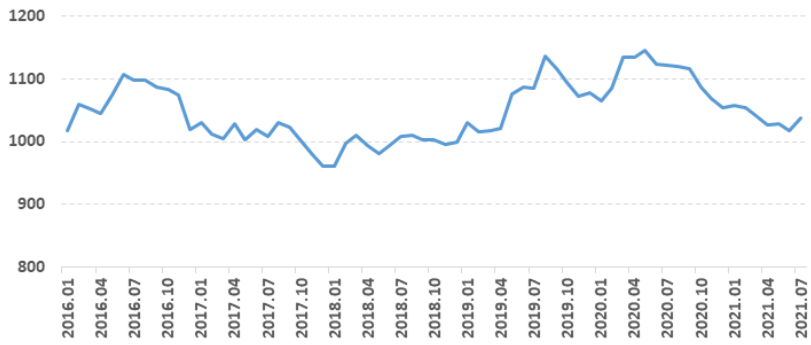


자료: 일본 총무성 통계국

환율

일본 엔화는 변동폭이 큰 편인데, 최근 5년 간 원-엔화 환율(100엔당 원화 비율) 추이에 따르면 월평균 매매기준율이 최저 960원에서 최고 1,145원을 기록하고 있다. 2021년에 들어서는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화 대비 엔화의 약세가 더 크게 나타나면서 원-엔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100엔당 1,050원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일본은 코로나로 인한 긴급사태 해제에도 불구하고 경기 반등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일본중앙은행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어서 당분간 엔화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월별 엔-원화 환율 추이 (100엔당 원화 월평균 매매기준율)



자료: 서울외국환중개(주), 월평균 매매기준율

금리 및 금융정책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의 금리는 0% 대에 머물러 있으며, 2016년 1월에는 일본은행이 단기 기준금리를 '-0.1%'로 채택하면서 '마이너스 금리'체제에 돌입하였다. 단기 정책기준금리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시중은행에 예치한 예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아니다. 2021년 9월 현재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0.1%'로 유지하고 장기물인 10년물 국채금리를 '0%'로 유도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일본은행은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상승률 실적치가 안정적으로 2%를 상회할 때까지 장단기 금리운영을 통한 양적, 질적 금융완화를 지속할 계획이고,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당분간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낮아 저금리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05. 산업동향

일본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2000년대 초부터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서비스산업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주목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 결과 현재 일본의 산업별 GDP 비중은 1차 산업이 1.2%, 2차 산업이 26.6%, 3차 산업이 72.2%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 10년간 일본의 산업구조는 큰 변동 없이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3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일본 서비스산업의 큰 특징으로는 외국인 관광산업의 성장, 의료 및 간호서비스 산업의 확대, 인력 절감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국내 관광산업 위축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도쿄올림픽 개최 등 외국인 관광산업 육성정책을 도입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둘째, 고령화로 인해 의료 및 간호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인프라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셋째, 일본은 만성적으로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여 서비스 기업들이 로봇이나 AI 등을 활용하는 인력 절감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서비스산업이 다른 분야에 비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인력 절감 기술 및 비대면 서비스 수요를 촉진하여 관련 기업의 구조개편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러한 기조는 서비스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에서도 생산구조재편이나 신기술 도입 확대 등의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구조

「Japan Statistical Yearbook 2021(2021년 3월 발간)」에 의하면 일본의 산업별 GDP 구성 비율은 1차 산업이 1.2%, 2차 산업이 26.6%, 3차 산업이 72.2%로 3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최근 10년 간 산업구조 상 변동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비중이 20.8%로 가장 높고, 도소매업(13.7%), 부동산 및 물품임대업(11.4%)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제조업경쟁력지수에 따르면 일본은 2001년 이후 독일에 이어 2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은 제조업 분야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이다. 제조업은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큰 편으로, 생산 파급 지수가 2.13에 달해 전체 산업 1.93과 서비스업 1.62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산업별 구성비율 (GDP, 기업 수, 매출액, 종사자 수)

구분		GDP (단위: 십억엔)	기업 수 (단위: 천개)	매출액 (단위: 십억엔)
전체 규모		544,747	3,856.5	1,624,714
1차 산업	농림수산업	1.2%	0.7%	0.3%
2차 산업	광업	0.1%	0.0%	0.1%
	건설업	5.8%	11.2%	6.7%
	제조업	20.7%	10.0%	24.4%
3차 산업	유틸리티	2.6%	0.0%	1.6%
	정보통신업	5.0%	1.1%	3.7%
	운송/우편	5.1%	1.8%	4.0%
	도소매업	13.9%	21.8%	30.8%
	금융보험	4.1%	0.8%	7.7%
	부동산/상품임대	11.3%	7.9%	2.8%
	학술/전문기술	7.4%	4.9%	2.6%
	숙박/음식업	2.5%	13.3%	1.6%
	교육	3.6%	3.0%	0.9%
	보건복지	7.0%	7.6%	6.9%
	기타	9.1%	15.9%	13.0%

자료: 일본 총무성 통계국

산업정책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개인소비 위축 및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로 전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시대 변화(코로나 사태, 디지털화 등)에 대응하여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어 산업별 영향은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 일본 정부는 코로나 이후 경제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개혁 및 탈탄소 실현(탄소배출 저감,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우선 일본은 코로나를 계기로 기술개발, 인프라 도입, 제도 정착 및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 분야에서는 온라인 학습시스템 도입과 초등 및 중학교 디지털 단말기 보급을,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온라인 진료 규제완화와 방문간호 전산시스템 정비를, 신기술개발 분야에서는 5G 통신망 정비, 정보보안 인재육성, 차세대 기술개발지원, IoT,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설립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일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도입, 탄소리사이클 기술개발, 수소에너지 도입확대 등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며, 일본

경제산업성은 온난화 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종별로 탈탄소를 향한 공정표를 책정하여 공정표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금융기관과 투자가들에서 기업의 탈탄소 대처를 고려한 투자나 융자를 실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6년 이래 관광입국(관광을 통한 국가 발전)을 위해 "내일의 일본을 지탱하는 관광비전"을 수립하여 관광산업을 미래 일본을 지탱할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 관광산업은 자연, 역사, 문화 등 풍부한 관광자원과 발달된 공공 교통기관, 높은 위생 환경, 그리고 낮은 범죄율과 같은 강점을 바탕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UNWTO(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제관광객 방문 순위에서 일본은 11위(3,119만 명, 전년대비 +8.7%)로, 아시아권에서는 중국(4위), 태국(9위)에 이어서 세 번째이며, 국제관광 수입 면에서는 일본은 9위(411억 달러, 전년대비 +19%)로, 아시아 권에서는 태국(4위)에 이어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해외 홍보가 미흡하고, 관광업 종사자의 수과 외국어 능력이 낮은데다, 관광지역 간 연계 부족 및 다양한 종교와 취향에 대한 대응 등의 측면에서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국내관광업 규모는 총 27.9조 엔으로(2019년 기준) 내국인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2020년에 들어서면서는 코로나로 인해 주요 산업 중 가장 위축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내 관광수요 회복을 통해 코로나로 침체중인 관광산업의 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코로나 이후 외국인관광객 수요 촉진을 대비하는 시설 정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동차산업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전체 제조업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고, 2019년 기준 일본의 자동차 수출액은 약 18조 엔으로 일본 주요 수출품목에서 20% 정도로 제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본 전체 취업인구의 8% 가량에 해당하는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등 일본에서 자동차산업은 경제와 고용에 뼈대가 되는 근간 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자동차 업계는 3대 완성차 브랜드인 도요타, 닛산, 혼다의 시장점유율이 70%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 외에 다양한 완성차 브랜드가 시장에 진입해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한 산업이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불황과는 대조적으로 일본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내수, 수출)는 모두 최근 3년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관련 기술이 비약적으로 변화하면서 일본 자동차 업계는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설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하면서 자동차 산업에도 새로운 혁신의 시대가 도래함

에 따라 일본도 정부 주도로 미래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는 일본 승용차 신차 판매 중 친환경 자동차(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그린 디젤 등)의 비중을 현재의 36%에서 50~70%까지 끌어올리고, 차세대자동차에서 소프트웨어, 전자부품 등이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전기·전자, 통신, IT 기업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IT산업

경제산업성의 기준에 따르면 일본의 IT업계는 정보서비스업(① 소프트웨어업, ② 정보처리·제공 서비스업, ③ 인터넷 부수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일본은 2019년 IT 경쟁력 순위 12위, 특허출원 수 3위, 소프트파워 순위 8위 등 IT 부문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이다. 일본 정부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과 같은 IT 부문을 성장전략의 주요 시책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은 일본 내각부가 2016년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한 Society 5.0이라는 '초 스마트사회'를 바탕으로, 내각부 산하 미래투자회의가 매년 각의결정하고 있는 성장전략에 구체화되고 있다. 단, Society 5.0과 관련된 정책의 중점 분야는 매년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2017년도 성장전략에서는 건강·의료·간병, 스마트모빌리티, 서플라이체인, 스마트인프라, 핀테크 분야가 중점 분야로 선정되었고, 2018년도 성장전략에서는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헬스케어 분야가 선정되었다. 최근에는 혁신적인 신산업·신서비스의 창출을 위해서 오픈 플랫폼으로 신뢰성이 높은 공공 Data(지리 공간정보, 방재정보, 각종 통계정보 등)를 제공하여 이를 민간에서 보유한 각종 Data와 연동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건전한 사회를 위해 의료, 간호, 건강, 에너지, 방재 등 다분야에서 IT를 이용해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One Stop으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사회를 클라우드 기술로 실현하는 것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내 ICT 투자는 1990년대 후반 일시적으로 성장했으나 2000년 이후에는 투자에 적극적인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있으며, 투자비율은 1990년대 후반에 하드웨어 투자가 70%를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일본 IT업계는 그룹계, 독립계, 외국계로 분류되는데, 주요 FUJITSU, HITACHI, SHIN-NITTETSU, NEC, ITOCHU 등의 그룹계 기업이 일본 IT업계 매출액 순위에서 최상위에 포진하고 있다. 최근 일본 SW산업의 현황에 따르면 패키지SW와 인터넷SW를 중심으로 매출 규모와 고용인원 모두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

01. 인구구조

일본 통계국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일본의 총 인구 수는 1억 2,536만 명으로 2008년을 정점을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일본 인구구조의 특징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대변된다. 일본의 고령화 비율(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80년 9.1%에서 빠르게 증가해 2005년에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2021년 동 수치는 29%를 기록하였고 2060년에는 약 4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는 1975년에 2명 미만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7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43명으로 2005년 최저치인 1.26명 보다는 다소 높아졌지만 OECD 평균 1.68명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일본 여성의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첫 번째 자녀 출산 연령 또한 1970년 25.6세에서 2017년 30.7세로 점점 높아지고 있어 저출산율의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5년 이후에는 저출산과 초고령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02. 노동시장 동향

2021년 6월말 현재 일본의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1억 1,059만명이며, 이중 경제활동인구(Labour force)는 62.1%인 6,871만명에 달한다. 일본의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으로 인해 2019년의 실업률이 2.2%까지 낮아졌다가 2020년 들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2021년 6월말 현재 실업률은 2.9%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실업률이 다소 높아지긴 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는데 반해 일본의 실업률은 3% 미만 수준이어서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10년부터 최근까지의 유효구인배율을 살펴보면 2019년까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2010년 초 유효구인배율은 0.48배였으나 2018년에는 1.6배를 넘어섰으며 2019년 말에는 1.55배를 기록하는 등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구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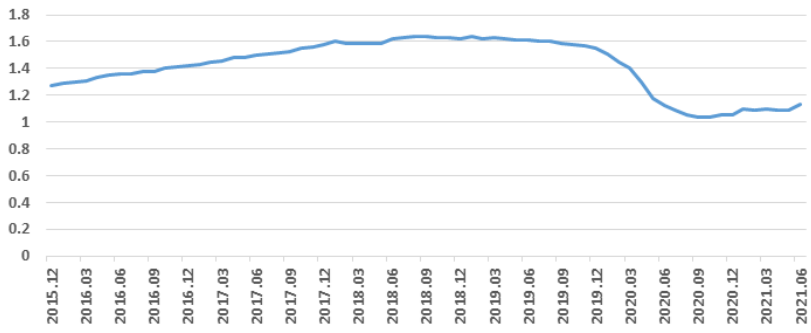
일본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률 추이 (단위: 천명)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실업률
2017년 말	11,108	6,720	2.7%
2018년 말	11,101	6,830	2.5%
2019년 말	11,092	6,886	2.2%
2020년 말	11,080	6,868	3.0%
2021년 6월	11,050	6,871	2.9%

자료 : 일본 총무성 통계국, 「STATISTICAL HANDBOOK OF JAPAN 2018」

100명당 일자리가 155개가 있다는 것으로서 일본의 기업의 경우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후생노동성의 발표에 따르면 실업률과 마찬가지로 유효구인배율도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크게 감소해 1배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월별 유효구인배율 추이 (단위: 배)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1년 7월 발표)

2021년 6월 기준 일본의 산업별 고용인구(피고용인) 중 3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비중은 각각 3.0% 및 22.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OECD 국가 중 가장 안정적

인 고용시장을 유지해 왔으나 코로나로 인해 경제활동이 축소되면서 2020년 일본의 고용시장 또한 크게 위축되었으며, 특히 2020년 일본 전체 산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2019년에 비해 0.7%p 감소하는데 그쳤으나, 숙박/음식업과 생활편의/오락업을 비롯한 서비스 업종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20년에 정보통신, 의료 및 복지, 부동산 등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고용 현황을 보이고 있다.

일본 고용인구의 산업별 분포 (단위: 만 명, %)

구분	2020년 말			2021년 6월		
	고용인구	비중	증감율	고용인구	비중	증감율
전체 산업	6,666	100.0%	-1.1%	6,692	100.0%	0.4%
농업/임업	182	2.7%	-6.7%	204	3.0%	12.1%
제조	497	7.5%	1.8%	465	6.9%	-6.4%
건설	1,054	15.8%	-1.0%	1,055	15.8%	0.1%
정보통신	257	3.9%	8.9%	256	3.8%	-0.4%
운송/우편	347	5.2%	0.3%	351	5.2%	1.2%
도소매업	1,057	15.9%	-2.0%	1,071	16.0%	1.3%
금융보험	168	2.5%	-6.1%	167	2.5%	-0.6%
부동산/물품보관	136	2.0%	3.8%	139	2.1%	2.2%
학술/전문기술	250	3.8%	0.8%	250	3.7%	0.0%
숙박/음식업	385	5.8%	-7.0%	382	5.7%	-0.8%
오락업	231	3.5%	-1.3%	222	3.3%	-3.9%
교육/학습지원	350	5.3%	2.6%	338	5.1%	-3.4%
의료/복지	871	13.1%	3.8%	865	12.9%	-0.7%
기타서비스	492	7.4%	-4.8%	520	7.8%	5.7%
공무	241	3.6%	5.7%	256	3.8%	6.2%

주) 전년 말 대비 증감율
자료 : 일본 총무성 통계국, 노동력조사

한편, 일본의 노동시장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였으나,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일하는 방식 개혁법률」 등이 시행되면서 최근에는 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8년을 기점으로 정규직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성의 경우 정규직의 비중이 2018년 43.2%에서 2021년 6월 현재 46.1%로 높아지고 있으며, 고용안정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이 이어짐에 따라 고용행태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고용형태별 고용인구 추이 (단위: 만 명)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2018년	3,478	2,355	1,123	2,156	681	1,476
	(61.7%)	(77.6%)	(43.2%)	(38.3%)	(22.4%)	(56.8%)
2019년	3,518	2,349	1,170	2,179	686	1,493
	(61.7%)	(77.4%)	(43.9%)	(38.3%)	(22.6%)	(56.1%)
2020년	3,534	2,334	1,200	2,093	659	1,434
	(62.8%)	(78.0%)	(45.6%)	(37.2%)	(22.0%)	(54.4%)
2021년 6월	3,552	2,346	1,206	2,048	636	1,412
	(63.4%)	(78.7%)	(46.1%)	(36.6%)	(21.3%)	(53.9%)

주) ( )안은 각 고용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예를 들어 2018년 정규직 계의 비중 (61.73%)는 2018년 전체 고용인원 5,634만 명 중 정규직의 3,478만 명의 비중을 의미하며, 2018년 정규직 남성의 비중은 2018년 남성 고용인원 3,036만 명 중 정규직의 2,355만 명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

03. 노동정책 동향

일본의 노동시장은 외견상 수급여건이 호전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유효구인배율이 1.0배를 넘어서고 건설업이나 IT 업계를 비롯한 일부 산업분야는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등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의 문제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공급의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있다. 우선 2015년 8월 제정된 「여성활약추진법」에서는 상용근로자가 301인 이상인 사업주에게 여성노동자의 채용이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2016년 3월에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을 개정하여 임심이나 출산,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 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하여 기업이 70세까지 취업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이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취업기회 확보 방법은 70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제 폐지, 70세까지 계속고용제도 도입, 70세까지 계속적인 업무위탁 계약제도 도입, 사업주가 실시하는 사회공헌사업이나 사업주가 위탁, 출자 등을 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사회공헌사업에 70세까지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등이며, 기업은 이 5개 취업기회 확보조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기업이 이러한 70세 취업기회 확보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면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출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01. 개요

일본 노무제도 전반에 관한 것은 종업원(노동자)과 회사(사용자) 간의 개별적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고용관계법 계열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최저 노동 조건을 규정하는 노동기준법과 최저임금을 규정한 최저임금법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법규는 일본 내 모든 회사에 대해 적용되며,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근 일본의 고용과 관련한 주요 제도 변화는 2018년 의회를 통과한 「일하는 방식 개혁법률[1]」과 관련이 있다. 동법은 일본에서 1947년 「노동기준법」 제정 이후 가장 중요한 노동개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장시간 노동 근절, 비정규직 차별 시정, 근로대가의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성과'로 전환한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을 하여 노동 규율의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 일하는 방식 개혁법률의 주요 내용

(1) 장기간 노동 근절 : 초과근무 상한 설정
- 초과근무한도: 원칙) 월 45시간, 연 360시간 미만. 노사합의 시 연간 720시간, 1개월 100시간 미만
-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 벌금
- 노동관서는 중소기업을 배려하여 지도

(2) 비정규직 차별 철폐 : 동일노동 · 동일임금
- 기본급 및 수당에서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이 해소
- 처우차이에 대한 설명 의무 및 행정 강화

(3) 성과중심의 탈시간급(脫時間給) 보수체계 도입
- 연수입 1,075만엔 이상의 일부 전문직 대상
- 연 104일 이상 휴일 제공의무(본인의사로 이탈은 가능)

02. 취업규칙 및 고용법에 따른 최저 고용요건

취업규칙은 근로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종업원이 직무

1 정식명칭은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働き方改革を推進する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이다. 「노동기준법」등 관련 8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형식이다.

수행 시에 지켜야 할 규율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직장의 규칙이다. 상시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감독기관인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해야 한다. 취업 규칙에 규정된 사항은 그 내용이 합리적인 한 노동계약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지닌다. 노동계약의 체결 시 임금, 노동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서면 등으로 명시해야 하며, 사용자가 (1) 합리적인 취업규칙 내용을 (2) 노동자에게 주지시킨 경우에 취업규칙이 정하는 근로조건이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된다. 노동계약의 변경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합의하에 가능하지만,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을 밑도는 변경은 불가하다. 또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근로조건)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

☑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는 내용

- 고용계약의 기간(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내용)
- 취업하는 장소 및 종사해야 할 업무
- 근무시작 및 종료시간, 휴식시간, 휴일, 휴가, 노동자를 2개조 이상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시킬 경우의 취업전환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 계산 및 지불방법, 임금의 지불시기, 승급에 관한 사항
- 정년 및 퇴직에 관한 사항(해고사유를 포함)

☑ 체크포인트

일본 취업에 성공하여 근무를 하다보면 기대했던 것과 업무 내용이나 처우 등이 달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업 전에 근로조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1)근로조건에 대한 명시적인 서면 교부 :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주로부터 근로조건을 명확히 한 서면을 교부받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상세한 직무 내용을 체크 : 대부분의 경우 회사의 구인정보에는 직무가 제시되는데 실제 담당해야 하는 직무는 훨씬 세분화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의 확인이 중요하다.

(3)급여의 내역 및 각종 수당 유무 확인 : 일본의 임금은 월례임금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된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자.

(4)복리후생을 확인 : 후생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제공 되는지 확인하자.

03. 최저임금제도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별 최저임금과 특정 산업에 대한 최저임금으로 구분되며, 최저임금법에 의해 회사는 최저금액 이상의 임금을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는 정사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등 근무형태의 차이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여기서 최저임금은 기본적인 임금을 말하며, 잔업에 대한 할증임금이나 통근수당, 개근수당, 가족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일본 정부는 '1억 총 활약 사회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매년 인상하여 전국 평균 1,000엔까지 높일 계획에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를 이유로 2021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3엔 오르는데 그쳤으나, 2021년 후생노동성의 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서는 2022년 최저임금을 역대 가장 큰 폭인 전년 대비 3.1%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한국과 달리 일본은 각 지역의 물가를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하고 인상폭도 제각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내년은 모든 지역이 일괄적으로 28엔씩 인상되고, 모든 지역에서 최저임금이 800엔을 넘어서게 된다.

일본의 주요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2020년 10월 발효	2021년 10월 발효
도쿄(최고)	1,013엔	1,041엔
카나가와	1,012엔	1,040엔
오사카	964엔	992엔
오키나와(최저)	792엔	820엔
전국 가중평균	902엔	930엔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04.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계약기간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간 규정(유기근로계약) 시 3년이 상한이며, 전문적인 지식 등을 가진 노동자나 만 60세 이상의 노동자의 경우

5년이 상한이다. 유기근로계약이 통산 5년 이상 반복하여 갱신된 경우, 노동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수습기간

종업원을 정식으로 채용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종업원의 능력이나 업무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두는 것도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이다. 그러나 회사가 수습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채용 거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필요하다.

근로시간

노동기준법에 의하면 노동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주간 40시간, 일일 당 8시간이다. 통상적으로는 회사와 종업원 간 노동계약을 하면서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해 별도로 정하게 되며, 법정 근로시간을 넘은 근로나 휴일 및 야간에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 계약에 명시하여 관할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초과 근무(소정 시간외 노동) 시에는 시간외 잔업수당이 발생한다.

한편, 일본의 법정 근로시간은 노동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노사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초과근무가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2018년 6월 29일에 일본 의회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 개혁법률」을 의결하여 초과근무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였다. 동 법률에 따르면 초과근무의 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45시간(연 360시간) 미만이며, 이와 함께 업무 성수기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합의하여 노사협정을 맺은 경우 연간 6회(6개월)까지 연간 720시간의 상한으로 월 45시간을 넘는 초과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여한다.

05. 휴일 및 휴가

법정 휴일

휴일은 적어도 1주일에 1일 이상 또는 4주를 기준으로 4일 이상 주어야 한다. 휴일은 일요일이나 국경일일 필요는 없고, 회사와 종업원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체크포인트

일본기업의 구인공고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 '완전주휴2일제'와 '주휴2일제'가 있다. '완전주휴2일제'는 연간 매주 2일간의 휴일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주휴2일제'는 연간을 통틀어 한달에 2일간 쉬는 주가 적어도 1주 이상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유급휴가

회사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나서 6개월간 계속하여 전 노동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노동일 기준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속연수가 증가하면 연간 1일씩 유급휴가의 부여 기간이 늘어난다. 한편 결혼이나 근친자의 사망, 배우자의 출산 등에 있어서는 정해진 유급휴가와는 별도로 며칠간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출산 및 육아 휴직

종업원이 출산을 하는 경우 출산 6주 전부터 휴가 청구가 있으면 사업주는 이를 인정해야 하며, 산후에는 원칙적으로 8주간은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1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는 종업원이 휴가를 청구(원칙적으로 아이가 1세에 이르는 날까지)하면 이를 인정해 야 한다.

06. 고용의 종료

퇴직

종업원의 형편이나 고용주와의 합의에 의해 일을 그만두는 것을 퇴직이라고 한다.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퇴직 또는 해고를 하지 못한다. 기간 규정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종업원이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2주 전의 사전통고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종료의 종류에는 합의퇴직(합의해약), 임의퇴직(사직), 해고, 정년퇴직 등이 있다. 합의퇴직의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에 퇴직하는 것으로, 회사 인원감축 시 합의퇴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퇴직권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퇴직권장은 말 그대로 노동자 자신의 의사로 퇴직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된 범위

를 넘어서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되므로 각 지방노동국 등을 통한 상담을 요한다. 임의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2주 전에는 퇴사통지를 해야 한다. 단, 근무시작 시 또는 첫 급여수령 시 등에 실제 근로조건이 당초 약속한 조건과 다른 경우 등에는 즉시 퇴직이 가능하다. 한편, 계약기간이 정해진 노동자, 즉 유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할 수 없다.

해고

해고에는 보통해고, 정리해고, 징계해고의 종류가 있다. 기간의 규정이 없는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가 사직(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일방적으로 퇴직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 의해서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것)하는 경우는, 2주일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취업 규칙 등에 퇴직 예정일의 2주일 이상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을 경우는 확정된 판례는 없지만 1개월 이내이며, 1개월 이상의 사전 통보 의무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다.

해고의 종류

정리해고 : 회사 경영의 악화를 이유로 인원 정리를 위해 행해지는 해고를 말한다. 정리해고에 관해서는 다수의 재판례에 따라 아래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해고가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① 인원 감축의 필요성
② 해고 회피의 노력
③ 피해고자 선정의 합리성
④ 해고 절차의 타당성

징계해고 :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한 징계의 하나로서 행해지는 해고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취업규칙 등의 규정은 행위와 처벌 간의 균형과 사회 통념상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아가 실제의 해고에는 미리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적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회사가 종업원을 해고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회사가 해고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해고는 무효가 된다. 그리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취업규칙 등으로 해고가 가능한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 해 놓아야 한다. 회사가 종업원을 해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이상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07. 퇴직금제도

일본 노동기준법상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회사가 임의로 정해도 된다. 단 일단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본 회사에는 어떠한 형태든지 퇴직금 제도가 있으며, 기업에 따라 퇴직금 제도의 운용 방식은 상이하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퇴직금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퇴직금의 결정, 계산 및 지불방법, 지급시기 등을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계약 체결시에도 노동자에게 이를 명시해야 한다.

08.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일본은 큰 변화가 없는 한 총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50년에는 1억 명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감소 사회로 전환되면서 생산가능인구 또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최근 일본 정부는 부족한 노동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례로 2018년 7월 24일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 주재로 '외국인 노동자 수용 기준 및 지원 방식 검토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외국 인재의 수용 및 공생을 위한 종합적 대응책을 검토하였다. 동 회의는 2018년 6월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18'에서 외국 인재 수용 확대를 명기한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최초의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등의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어 외국 인재의 원활한 수용 촉진 방안 및 외국인과의 공생 사회 실현을 위한 환경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한 주요 방침은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지원 강화, 외국 인재의 원활한 수용 촉진 방안 마련, 새로운 체류 관리 제도 구축 등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9년 4월부터 새로운 체류 자격(재류자격)을 위한 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는데, 개정의 주요 목표는 '단순노동 업종의 외국인 노동자 수용'으로 요약된다. 지금까지 일본은 엔지니어, 대학교수, 경영자 등 고도 전문직의 취업만 인정하고 단순노동이라 불리는 분야에서 외국인의 취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왔으나, 새로운 재류자격을 창설하여 이러한 분야

에서도 정식으로 노동자를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단순노동직에 대한 문호도 열게 되었다.

산업별 외국인 고용현황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2016년에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 후 매년 빠르게 증가해 2020년 10월말 현재 총 1,724,328명으로 집계된다. 국적별로는 산업별로도 대부분의 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2020년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정보통신업, 의료 및 복지 분야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였으며, 경기 위축을 크게 겪은 숙박 및 음식서비스업과 제조업은 전년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 수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 (각 연도 10월말 현재 기준)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외국인 노동자 총 수	1,278,670 (18.0%)	1,460,463 (14.2%)	1,658,804 (13.6%)	1,724,328 (4.0%)
- 건설업	55,168 (34.2%)	68,604 (24.4%)	93,214 (35.9%)	110,898 (19.0%)
- 제조업	385,997 (14.0%)	434,342 (12.5%)	483,278 (11.3%)	482,002 (-0.3%)
- 정보통신업	52,038 (18.9%)	57,620 (10.7%)	67,540 (17.2%)	71,284 (5.5%)
- 도소매업	166,182 (19.3%)	186,061 (12.0%)	212,528 (14.2%)	232,014 (9.2%)
- 숙박업/음식서비스업	157,866 (20.6%)	185,050 (17.2%)	206,544 (11.6%)	202,913 (-1.8%)
- 교육/학습지원업	65,309 (8.9%)	69,764 (6.8%)	70,941 (1.7%)	71,775 (1.2%)
- 의료/복지	21,734 (24.7%)	26,086 (20.0%)	34,261 (31.3%)	43,446 (26.8%)
- 기타서비스업	189,858 (23.3%)	230,510 (21.4%)	266,503 (15.6%)	276,951 (3.9%)
- 기타	184,518 (16.2%)	202,426 (9.7%)	223,995 (10.7%)	233,045 (4.0%)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외국인 고용현황”, 2021년 1월 발표

한국인의 일본 진출 현황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별로 중국이 가장 많았으나 2020년에 들어서는 베트남(25.7%), 중국(24.3%), 필리핀(10.7%)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 10월말 현재 일본 내 한국인 근로자는 총 68,897명으로 전체 등록 외국인 중 근로자의 약 4% 정도이다. 재류자격별로는 전문적·기술적 분야(주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해당)의 재류자격이 3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신분에 의거한 재류자격(영주권자, 일본인 및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이 약 39%, 그리고 유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자격외활동이 10.4%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 근로자가 종사하는 산업은 도소매업이 2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정보통신업과 숙박 및 음식서비스업이 각각 14.5%와 14.2%로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 타국적에 비해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재류자격 비중이 높고, 정보통신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인의 일본 노동시장 진출 현황 (2020년 10월 기준)

재류자격별 현황		산업별 현황	
구분	비중	구분	비중
전문적·기술적 분야	39.4%	건설업	1.8%
특정활동	4.5%	제조업	9.0%
자격외활동	10.4%	정보통신업	14.5%
신분에 의한 자격	38.9%	도소매업	20.3%
기능실습	0.1%	숙박/음식서비스업	14.2%
불명	0.0%	교육/학습지원	7.3%
		의료/보건	3.5%
		기타서비스업	11.5%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외국인 고용현황”, 2021년 1월 발표

01. 임금의 체계

일반적으로 일본의 임금은 매월 정기 지급되는 '월례임금(월급)'과 특별 지급되는 '특별임금'으로 구분된다. '월례임금'이란 매월 지급되는 임금으로 '소정내 임금(기본급+제수당)'과 초과근무 등에 대한 '소정외 임금'으로 구분된다. 월례임금에 포함되는 제수당은 종류가 많고 회사 마다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직책수당과 가족수당, 주택수당이 기본이 되고 필요에 따라 소수로 채택하고 있다. '특별임금'에는 상여금과 퇴직수당(퇴직금)이 있다.

02. 임금의 구성요소

월례임금

① **소정내 임금(기본급)** : 기본급은 월례임금의 기본이 되며, 인금인상이나 상여금, 퇴직금 등 다른 임금의 계산 시 기초가 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소정내 임금에서 기본급의 비중은 약 85% 정도이다. 기본급은 대체로 일정 기간마다 정액급(주급제, 월급제, 연봉제)의 형태로 지급되며 '연령급'과 '직능급'으로 구성된다. 최근에는 성과에 따라 기본급을 결정하는 '성과급(능률급)'을 채택하는 회사도 증가하고 있다.

② **소정내 임금(제수당)** : 소정내 임금은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합산되어 결정되며, 직무관련 수당과 생활보조 수당, 인센티브 수당, 기타 수당의 4가지 유형이 있다. 직무관련 수당은 관리직에 대한 직책수당, 특수근무수당, 특수작업수당, 교대수당 등이 속하며 생활보조 수당, 가족 수당과 주택수당이 대표적이다. 인센티브 수당은 판매장려금과 정근·개근수당이 있다. 기타 수당에는 통근수당, 식사수당, 지역수당, 냉한지 수당 등이 있다.

③ **소정외 임금(기준 외 임금)** : 월례임금 중에서 소정의 근무 이외에 대해 매월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시간외 수당, 휴일 수당, 야간근무 수당 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통상적인 임금에 일정률(상황별로 25%, 35%, 50% 등) 이상의 할증임금을 받는다.

특별임금

① **상여금** : 상여금은 월례임금과는 별도로 법적 지급의무가 없으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액이 확정 되지 않은 임금을 말한다. 따라서 상여금은 회사의 성과가 부진하면 연기되거나 지급되지 않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하계상여금과 동계상여금의 형태로 매년 2회로 나누어 지급 된다. 최근에는 상여금을 업적(성과)와 연동해 '변동상여금'형태로 지급하는 회사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② **퇴직수당** : 일본의 퇴직금제도는 기업연금제도를 기반으로 하며,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노동기준법상 퇴직수당으로 불린다. 노동기준 법상 퇴직수당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특별임금이며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퇴직수당제도를 두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지급금액의 결정, 계산 및 지불방법, 지급시기 등 지급기준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그에 따라 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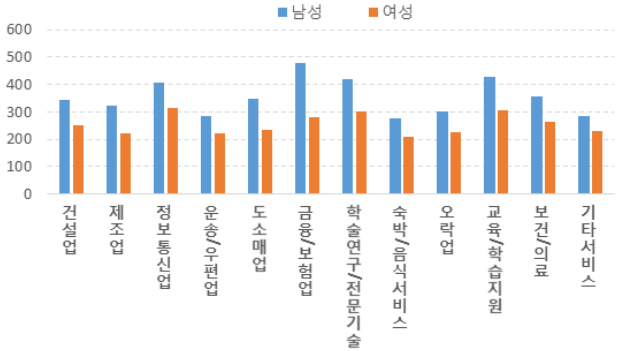
03. 임금수준 현황

일본 후생노동성은 매년 직장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결과(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참고하면 대략적인 취업대상회사의 임금수준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동일 직무 가정 시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근무 지역, 나이(연공제), 회사 규모를 꼽을 수 있는데, 도쿄나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고 일본 기업은 연공서열제를 채택하는 회사가 아직 많기 때문에 연공이 올라갈수록 임금도 높아진다. 또한 사회초년생의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차이가 크지 않으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성과금이 많고, 연차 및 직급에 따른 임금 상승 폭도 대기업이 더 큰 편이다.

한편, 보수적인 일본 문화에서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임금 수준이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남성을 기준으로 금융업의 평균 임금(연봉)이 480만 엔으로 가장 높고, 교육(429만 엔), 연구(421만 엔), 정보통신(405만 엔), 의료(354만 엔) 등의 순이다. 한국인이 주로 취업하고 있는 정보통신의 경우 임금 수준이 높은 편에 속한다.

2020년 산업별 임금 수준 (단위: 만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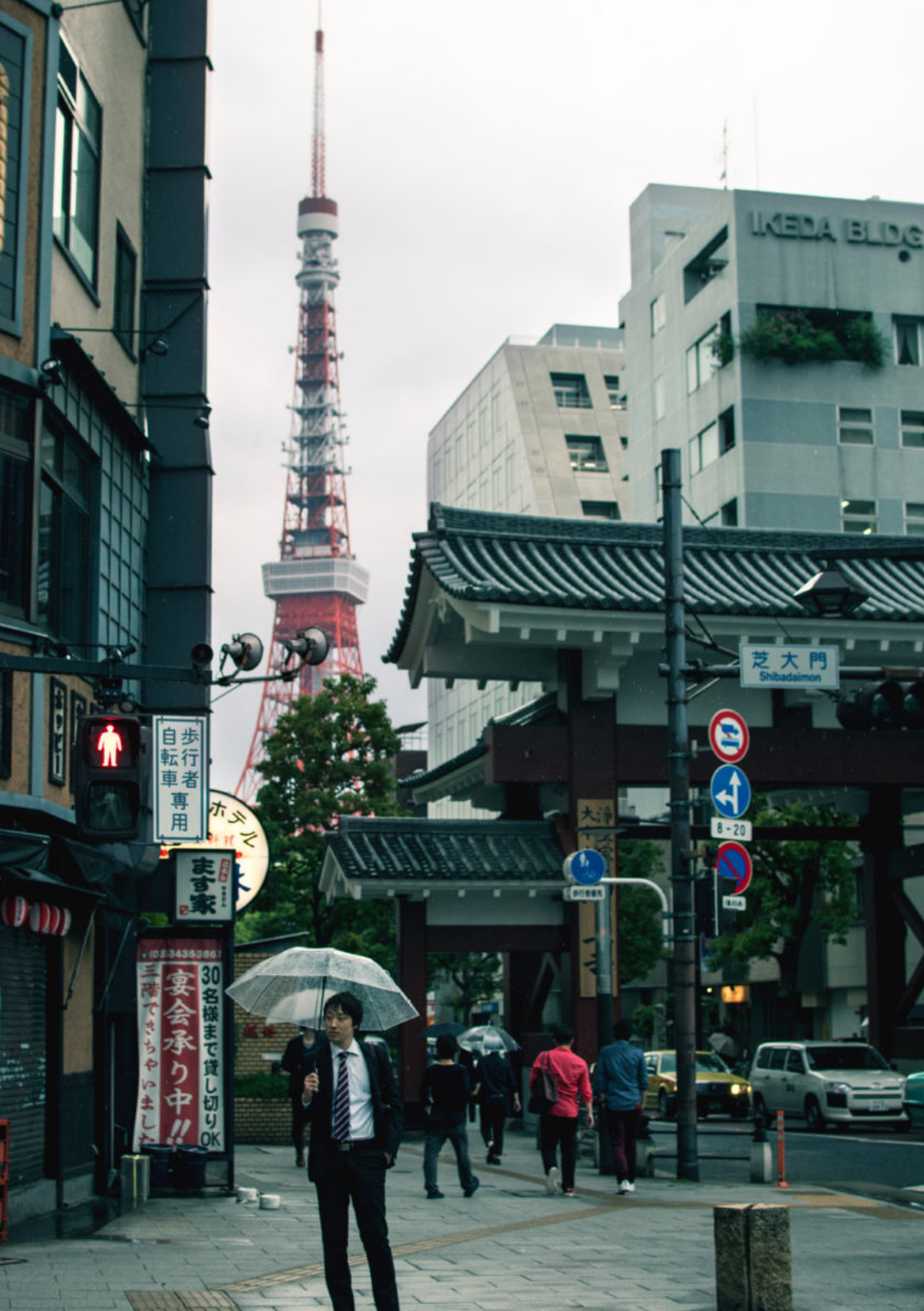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2020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2021년 5월 발표

2020년 학력별 신규졸업자 임금 수준 (단위: 천엔)

구분	대학원졸	대졸	고등전문/단기대학	전문대졸	고졸
합계	255.6	226.0	202.2	208.0	177.7
- 남성	254.1	227.0	211.6	203.0	179.5
- 여성	260.1	224.6	199.0	211.5	174.6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2020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2021년 5월 발표


IKEDA BLDG
芝大門
Shibadaimon
歩行者
自転車専用
ますや
宴会承り中!!
30名様まで貸し切りOK
8-20

01. 개요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의료보장제도와 연금제도 및 기타 사회보험제도 등으로 구성된다. 직장인인 피용자의 경우에는 사회보험(건강보험과 후생연금보험)이 적용되며, 노동보험(노재보험, 고용보험)이 추가된다. 이 때 피용자보험은 회사가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일본에 취업하는 경우 대부분 복리후생으로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 노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이 제공된다. 만일 4대 보험 중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관할 창구로 즉시 알려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일본의 보험제도 개요

분류		보험명	급부내용	대상자	창구	절차
피용자보험	사회보험	건강보험(의료)	업무 외 질병, 부상, 출산, 사망 등	피보험자	연금 사무소	회사
		후생연금보험(연금)	노령, 장해, 유족			
	노동보험	노재보험	업무상 또는 통근 도중의 질병, 부상, 사망	노동자	노동기준 감독서	
		고용보험	실업 등, 회사에 대한 조성금		공공직업 안정소	
국민보험		국민건강보험(의료)	질병, 부상, 출산, 사망 등	사회보험 미적용자	기초 지자체	본인
		국민연금(연금)	노령, 장해, 유족			
		※일본의 공적연금은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가입의 의무를 가지며, 일하는 방식에 따라 후생연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피용자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에 가입				

일본 각 보험의 요율

분류		보험명	연간 임금 총액 대비 보험료율	납부자
피용자보험	사회보험	건강보험	9.97%(회사, 피보험자가 4.985%씩 부담) ※요율은 지자체별로 상이	회사
		후생연금보험	18.3%(회사, 피보험자가 9.15%씩 부담)	
	노동보험	노재보험	0.25%~8.9%(업종에 따라 상이)	
		고용보험	1.35%(회사 0.85%, 피보험자 0.5%를 부담)	
국민보험		국민건강보험	기초지자체에 따라 상이	세대주
		국민연금	월정액 16,610엔(2021년 기준)	

자료 : 일본연금기구(Japan Pension Service)

체크포인트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법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의 재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본문은 2020년 말까지 각 법령상 재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02. 건강보험

구분	내용	
(1) 적용	모든 법인 및 상시 5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개인사업소는 원칙적으로 강제 적용	
	피보험자	원칙적으로 적용사업소에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에게 적용되며,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도 가입 요건 충족 시 국적 불문하고 피보험자에 해당
	피부양자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고 있는 직계존석, 배우자, 자녀, 손자, 형제도 보험의 지급대상이 됨
(2) 급부	요양급부	보험 적용 의료기관(건강보험 적용 의료기관. 일본 내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여기에 해당함) 치료에 필요로 한 비용 중 7할은 보험자로부터 직접 의료기관에 지불되고, 3할은 피보험자가 부담. 치과 의료에도 적용
	해외요양비	해외 체제 중 또는 여행 중에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불했을 경우 귀국 후 신청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일본의 의료비로 환산한 금액의 7할이 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에게 지급됨. 외국인인 피보험자가 모국, 그 외의 나라에서 의료혜택을 받았을 경우도 적용
	고액치료비	피보험자가 동일한 달(역월)에 동일한 의료기관에 지불한 일부 부담금의 액수 등의 금액이 일정액을 넘었을 때는 고액 치료비로 지급
(3) 보험료	전국건강보험협회에서 밝히고 있는 건강보험 일반 보험료율은 피보험자의 표준 보수 월 금액(상한 139만 엔) 및 표준 상여액수(연간 합계 상한 573만 엔)의 9.87%(도쿄 기준). 회사의 종업원이 절반씩 부담	
(4) 절차	회사가 보험 관계 성립일 다음 날부터 5일 이내 관할 사회보험 사무소 또는 건강보험조합에 신고	

03. 후생연금보험

구분	내용	
(1) 적용	모든 법인 및 상시 5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개인사업소는 원칙적으로 강제 적용	
	피보험자	원칙적으로 적용사업소에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70세 이상 제외)에게 적용되며,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에도 상시 노동 시간이 일반 종업원의 3/4 이상인 사람은 피보험자에 해당.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도 가입 요건 충족 시 국적 불문하고 피보험자에 해당.
(2) 급부	노령후생연금	후생연금보험 기존 가입자가 아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노령기초연금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노령후생연금 지급 ① 65세 이상, ②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 기간이 한 달 이상, ③ 노령 기초연금을 수급 받는 데 필요한 자격 기간이 있는 경우
	장애후생연금	피보험자에게 장애의 근본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 한 경우 지급
	유족후생연금	피보험자 및 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시 그 유족에게 지급
(3) 보험료	피보험자가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피보험자의 표준 보수월액의 18.3%(회사, 피보험자가 9.15%씩 부담)	
(4) 절차	회사가 보험 관계가 성립한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연금사무소에 신청	

탈퇴일시금

6개월 이상 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사 후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일본에서 납부한 후생연금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해 탈퇴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탈퇴일시금의 지급액은 가입 월수에 따라 일정률로 계산하며 3년분을 한도로 한다. 청구를 위해서는 전국 연금사무소 또는 일본연금기금에서 탈퇴일시금 재정청구서를 받아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귀국 후에 일본연금기구로 송부하면 된다.

04. 노재보험(노동자재해보상보험)

구분	내용
(1) 적용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강제 적용
(2) 급부	근로자가 업무상 또는 통근 중에 재해로 인해 입은 부상이나 질병, 장해, 사망시 지급
(3) 보험료	보험료는 사업주인 회사가 전액 부담하며, 산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게 책정
(4) 절차	회사가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노동기준감독청'에 신고

05. 고용보험

구분	내용
(1) 적용	원칙적으로 모든 일반 근로자(외국인 포함)에 대해 적용. 단, 단시간 근로자에 한해서는 주간 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고용할 예정인 자에 한하며, 해외 본사 등으로부터의 부임자는 가입이 면제.
(2) 급부	실업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임금에 준하는 수당을 1년 이내에 정해진 일수를 한도로 지급
(3) 보험료	노동자 임금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보험료로 산정하며, 보험료율은 일부의 업종을 제외하고는 0.9%(고용주 0.6%, 피보험자 0.3%)를 적용
(4) 절차	회사가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공직업안정소'에 신고
(5) 기타	•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사정에 의해 퇴직하거나 중대한 자기책임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정하는 기간(1~3개월) 동안 지급 제한 • • 피보험자가 공공직업안정소가 소개하는 직업에 취업할 것을 거부하거나 공공직업훈련을 거부하는 경우 1개월간 지급 제한

01. 소득세 개요

개인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소득세'와 '주민세'가 있다. 일본의 회계연도는 통상 당해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이나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1역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소득세는 개인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대한 세액을 산출해 확정신고한 후 납부(신고납부제도)하여야 한다. 하지만 급여소득자는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고용자인 회사가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천징수하여 납부(원천징수제도)하게 된다.

주민세

도도부현 주민세와 구시정촌 주민세를 총칭하여 일반적으로 주민세라고 한다. 각 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일본에 주소를 가지는 자에게는 소득할주민세와 균등할주민세가 과세된다. 주민세는 전년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의 결과를 받고 나서 계산한다. 소득할주민세의 납부세액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10%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균등할주민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연간 일률적으로 4,000엔이다.

부흥특별소비세

개인 및 법인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37년 12월 31일까지 원천소득세 및 신고소득세 금액에 대해 2.1%의 부흥특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 된다.

거주 개념과 과세소득

모든 개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된다. 거주자는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일본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하고,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의 원천지를 불문하고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면, 비거주자는 거주자 이외의 자를 말하며,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일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된다. 비거주자의 경우 대부분 원천징수로만 과세가 완결된다.

연말정산

급여소득자의 소득세는 회사가 매월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한다. 하지만 1년간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 소득세의 합계액은 해당 급여소득자가 1년간 납부해야 할 세액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불일치를 정산하기 위해서 1년간의 급여 총액이 확정되는 매년 말 당해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정확히 계산한 후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과부족액을 정산하는 수속을 연말정산이라 한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회사 등에 1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 자 또는 연도 중에 취직하여 연말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02. 소득세율 및 세액

소득세액은 과세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고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소득세율 및 급여소득공제표

과세 소득의 금액 구분		소득세	
		세율(%)	공제액(엔)
-	1,950,000엔 이하	5	0
1,950,000엔 초과	3,300,000엔 이하	10	97,500
3,300,000엔 초과	6,950,000엔 이하	20	427,500
6,950,000엔 초과	9,000,000엔 이하	23	636,000
9,000,000엔 초과	18,000,000엔 이하	33	1,536,000
18,000,000엔 초과	40,000,000엔 이하	40	2,796,000
40,000,000엔 초과	-	45	4,796,000

자료 : 일본 국세청(National Tax Agency)

참고로 연간 급여소득이 360만 엔(월급여 30만 엔)인 근로자의 소득세와 주민세는 다음과 같이 대략 295,500엔 정도로 계산된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24,375엔 정

도가 원천징수되는 것이다. 즉, 월급여 30만 엔에서 24,375엔이 차감된 275,625엔 정도를 수령하게 되는데, 실제 받게 되는 월급은 소득세뿐만 아니라 주민세와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도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된다.

산식 : (소득금액×세율)－공제액＝세액
소득세 계산 : 360만 엔×20%－427,500엔＝295,500엔

03. 신고 및 납부

개인소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이 적용되며 거주자는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 수속을 완료하거나 혹은 그 해의 소득에 대해 다음해 2월 16일에서 3월 15일 사이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예상세액이 원천징수되며, 연말에 1년간의 급여 총액이 확정되었을 때 연말 조정을 통해 세액이 정산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예외적으로 급여 수입액이 2,000만엔을 넘거나 두 곳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급여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20만엔을 초과하는 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정신고에 따라 확정된 소득세액은 신고기한인 3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나, 연납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세액의 절반 이하 상당액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이자세액(연납이자)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일본 소득세법에는 예정납세제도가 존재한다. 확정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로서 직전연도 세액이 15만엔 이상인 자가 세무서장의 통지를 받아 당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예정납세는 2회 실시되는데, 첫 번째의 납부기한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두 번째의 납부기한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다.

체크포인트

확정신고서의 사본이나 원천징수 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원천징수표는 이직이나 비자 갱신 등 여 러 가지 수속을 하는데 필요하게 될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잘 보관할 필요가 있다.

PART

02

산업 및 업종별 취업전략

01
취업 유망직종 현황
-
02
직종별 채용 트렌드와 취업역량
-
03
산업 및 직무별 효과적인 취업방법
-
04
취업전략 및 로드맵
-
05
주요 로컬기업 및 우리나라 진출기업 현황

01. 개요

2020년 코로나 사태는 전세계적으로 경제 활동의 대규모 위축을 야기하였는데, 일본도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안정적 모습을 보여오던 일본의 고용시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유효구인배율은 2019년 1.55배에서 2020년에는 1.04배로 급감하였고 총무성의 완전실업률도 3%에 육박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국가에 비하면 일본의 고용 사정은 빠른 개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22년에 졸업하는 일본의 신졸자 내정율(2021년)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의 91%에는 못미치지만 2020년 81%보다 높아진 85.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IT, 의료·복지,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리적 여건과 문화적 이해 등을 감안할 때 일본시장은 해외취업의 가능성이 큰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 내 유망산업 분야와 외국인 취업 유망 산업이 당장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잘 살펴보아야 할 대목이다. 일본 내 유망산업 분야는 향후 다양한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분야이나, 이 분야로의 진출이 외국인에게 가능한가 여부 또한 집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투자나 창업이 아닌 '해외취업'의 경우 비자발급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자발급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외취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따져보아야 한다.

02. 취업통계자료(한국인의 취업현황)

한국인의 해외취업(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은 2013년 1,607명에서 2019년 6,816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지만 4,400여명이 해외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일본은 가장 많은 해외취업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로서 그 간 일본 취업자 수는 전체 해외취업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취업통계로 살펴본 일본 취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취업 직

종별로는 2020년 일본 취업자 중 IT 직종의 비중이 약 45%로 가장 높고, 사무 직종과 서비스 직종이 각각 25.5%와 14.4%를 차지해 대부분의 일본 취업자가 이 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봉 수준은 2,500만원이상 3,000만원 미만 구간의 비중이 가장 높고, 대부분의 취업자가 2,000만원에서 3,500만원 사이에 속하는 가운데 상위 연봉 구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주요국가 해외취업현황 (단위: 명)

구분	2016년 (2,327명)	2017년 (2,886명)	2018년 (5,765명)	2019년 (6,816명)	2020년 (4,400명)	총계
일본	591	880	1,810	2,469	1,220	6,970
미국	508	748	1,380	1,524	901	5,061
싱가포르	376	335	405	473	304	1,893
베트남	123	203	383	483	497	1,689
호주	264	314	397	340	121	1,436
중국	121	108	198	208	161	796
말레이시아		7	197	191	165	560
인도네시아	63	49	103	99	89	403
캐나다	31	16	86	122	108	363
독일	8	17	88	86	89	288
멕시코	30	53	67	87	44	281
아랍에미리트	64	18	90	40	63	275
필리핀	19	30	60	58	47	214
뉴질랜드	16	9	35	64	57	181
태국	8	27	62	40	37	174

주) 비자 유형이 취업비자와 인턴비자에 해당하는 경우만 집계에 포함.
자료: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지원사업을 통한 취업현황(한국산업인력공단)

최근 5년간 직종별 일본 취업현황 (단위: 명)

구분	IT	의료	기계/금속	전기/전자	건설/토목	사무	서비스	기타
2016년	369	3	48	2		105	63	1
2017년	471	13	85		1	193	104	13
2018년	827	10	181	44	15	301	391	41
2019년	1,122	10	227	65	24	490	392	139
2020년	548	10	48	20	18	311	176	89
계	3,337	46	589	131	58	1,400	1,126	283

자료: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지원사업을 통한 취업현황(한국산업인력공단)

최근 5년간 일본 취업자의 연봉 수준 (단위: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0.7%	3.4%	2.3%	2.7%	0.9%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16.8%	20.8%	26.4%	27.1%	19.0%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61.4%	56.6%	52.9%	51.6%	46.9%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6.8%	13.3%	9.7%	11.4%	21.0%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3.2%	3.3%	5.5%	5.0%	7.3%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0.7%	1.8%	2.2%	1.4%	1.6%
4,500만원 이상	0.5%	0.8%	1.1%	0.9%	3.4%

자료: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지원사업을 통한 취업현황(한국산업인력공단)

03. 일본의 인력 부족직군 현황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고용시장이 악화되기는 했지만 지난 몇 년간 일본의 기업들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 물론 대기업은 여전히 입사 경쟁률이 높으며 업계와 직업에 따라 취업이 어려운 부문도 있다.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취업에 유리한 상황이지만 모든 기업과 직업군이 이러한 상황인 것은 아니므로 구직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 경향을 알아 두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단서가 되는 통계가 후생노동성이 매월 발표하고 있는 '일반직업소개현황'이다. 동 통계는 전국의 헬로워크를 통해 기업의 구인수와 일자리를 찾는 근로자의 구직자 수를 집계한 것으로 유효구인 수를 유효구직자 수로 나눠 산출하는 유효구인배율은 일손이 부족한 정도를 가늠하게

해 준다. 유효구인배율은 구인수와 구직자 수가 같으면 1배이지만 구인수가 구직 수보다 많으면 1배 이상 되고, 반대로 적으면 1배는 더 낮아진다. 후생노동성이 2018년 10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비원 등의 보안 관련 직업의 유효구인배율이 8.65배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건설, 간호, 서비스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전역에서 건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일본 건설업계는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격증 소유자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이나 보안 관련 부문의 구인난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사무직과 운반·청소·포장 관련 직군은 유효구인배율이 1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효구인배율에 따른 인력 부족직군 (2021년 5월 기준)

직군명(대분류 기준)	유효구인배율			신규구인배율		
	2019년 12월말	2020년 12월말	2021년 6월말	2019년 12월말	2020년 12월말	2021년 6월말
직업 계	1.55	1.04		2.49	2.19	
- 管理的職業 (관리직)	2.02	1.30		3.73	3.07	
- 専門的・技術的職業 (전문·기술직)	2.45	1.78		3.97	3.59	
- 事務的職業 (사무직)	0.48	0.31		0.88	0.72	
- 販売の職業 (판매직)	2.15	1.47		3.46	3.10	
- サービスの職業 (서비스직)	3.33	2.19		5.05	4.25	
- 保安の職業 (보안직)	8.30	6.82		10.21	10.02	
- 農林漁業の職業 (농림어업직)	1.38	1.19		1.91	1.97	
- 生産工程の職業 (생산공정직)	1.68	1.26		2.53	2.67	
- 輸送・機械運転の職業 (수송·기계운전직)	2.88	1.90		3.83	3.14	
- 建設・採掘の職業 (건설·채굴직)	6.17	5.76		8.56	9.53	
- 運搬・清掃・包装等の職業 (운반·청소·포장등)	0.58	0.51		1.09	1.25	

주) 유효구인배율은 구인수를 구직자수로 나눈 비율이며, 신규구인배율은 월별로 신규구인자수를 신규구직자수로 나눈 비율임
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 '월별 일반직업소개현황'

04. 취업 유망직종 도출

일본의 노동시장 동향과 취득 가능한 비자의 요건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인의 일본 취업 시 유망분야는 크게 IT, 기계/전자기기 설계, 경영 관련 총무/인사, 영업, 판매담당/접객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가장 유망한 직종은 IT 관련 직종으로 프로그래머, 시스템 엔지니어, 네트워크 전문가, 웹 엔지니어 등 IT 분야 전반에 걸쳐 있다. 한국에서도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모든 산업과 생활 전반에 IT기술이 기본이 되며 IT 신기술이 고부가가치로 인정받고 있다. IT 붐이 일기 시작한 2000년도에는 국내 인력의 대부분이 미국, 캐나다 등지로 진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9.11테러 이후 이들 지역의 취업비자 프로세스가 복잡해져 미주 지역보다 일본으로 IT 인력 진출이 집중되

고 있다. 자동차설계 기술자, CAD/CAM/CATIA 능통자 등에 대한 전망도 밝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제조업 산업기반이 튼튼한 경제구조다. 특히 자동차 설계 인력의 수요가 많은 편이지만, 일본의 엔지니어들은 고령화되고 있고 일본 젊은이들의 이공계 지원 기피현상으로 실제 설계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미주나 유럽과 달리 문화적 이질감이 적고 한국 엔지니어들에 대한 평가도 높아 그 수요가 많다. IT 분야만큼 엄청난 붐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도 꾸준히 수요가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영지원 및 관리와 관련하여 총무 및 인사, 영업, 판매담당/접객/호텔서비스 등도 한국인의 취업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한국과의 비즈니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본사와 지사 간 소통이나 해외 진출 확대 등과 관련하여 한국어와 일본어에 능통한 인력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 유망분야에 포함하였다.

01. IT 직종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일본도 구직자에게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IT 직종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한국 구직자에게 가장 취업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일본은 정책적으로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과 같은 IT 부문을 성장전략의 주요 시책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IT 산업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다른 분야에 비해 산업의 회복 및 성장 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IT 부문의 고용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IT 부문의 고용 확대 요인으로는 산업 성장에 따른 생산의 증가, R&D 투자 및 창업의 증가, 기술의 변화 및 이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노동 수요와 고용의 확대가 구직자의 취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는 여타 직종에 비해 IT 직종은 해외취업에 유리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2000년대 초반 IT 인력 양성에 소홀했던 일본은 최근 심각한 IT 인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으며, 자국의 인력에 비해 낮은 연봉으로 우수한 해외 고급 인력을 스카우트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국가 차원에서 우수한 해외 IT 인력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성실하고 문화 적응력이 뛰어난 한국 인력들이 일본 기업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한일 IT 기술자격의 상호인증으로 한국의 자격 취득자는 컴퓨터 분야 비전공자라도 취업비자 발급 조건만 충족된다면 취업이 가능한 점도 일본 취업에 유리한 요인이다. 한국의 대학생들 중 컴퓨터/통신 관련 전공자이면서 중급 이상의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거나 혹은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능통한 사람이라면 IT 관련 분야의 해외취업이 가능하며, IT 직종 중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및 개발자, SE(시스템 엔지니어), 네트워크 엔지니어, 웹디자이너 등의 분야가 유망한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IT기업은 한국계 기업과 일본계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본계 기업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원교육에 힘쓰는 경향이 있고, 한국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경우 초봉이 일본계 기업보다 높거나 기숙사 지원 등 사원 복지에 보다 우호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한국계 기업이든 일본계 기업이든 IT 분야의 경우는 업무의 특성상 무엇보다 기술과 실력이 우선시되므로 비전공자이더라도 정보처리산업기사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면 일본 취업의 기회가 있으며, 전공자라면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경험과 실력을 쌓는다면 경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또한 실력과 아울러 회사 내에서 좀 더 중요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능력이 관건이다. 일본어 능력시험 자격증 유무와는 별개로 일본어 회화 실력이나 전공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고객과 직접 면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의사소통은 물론 정중한 일본어도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특히 SE(시스템 엔지니어)의 경우 고객의 목적과 희망을 파악해서 시스템을 설계하므로 경청능력과 제안능력 등 보통 이상의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되는 업무이다.

일본의 IT 분야 취업의 경우 정보처리자격증 취득과 일본어 능력 최상급 수준을 선호한다. 따라서 IT 관련 전공자들은 정보처리자격증 취득과 SW-개발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IT 전공자인 경우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해 놓고 저학년부터 일본어 교양과목을 수강하면서 1년 이상 충분히 어학능력을 향상시켜 놓는 것이 유리하다. 방학기간을 활용하면 일본 현지 체험을 하거나 일본어학원에서 집중적으로 어학에 몰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IT 비전공자인 경우 1, 2학년에는 교환학생 또는 워킹홀리데이비자를 활용하여 일본 생활을 경험(일본어 회화능력/일본문화 이해)하고, 학기 중에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을 준비하여 졸업 전에 취득한다면 해외취업을 위한 상당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졸업 이전에 IT 교육을 수강한다거나 학기 중 공학관련 교양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수강했다면 더 유리하다. IT 기술 습득은 자격증 취득보다는 실질적인 기술 습득이 중요하며 약 4개월에서 10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방학 기간 중 MS-오피스 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다.

체크포인트

(1) 한국인이 경영하는 일본 내 IT 기업은 경력직을 선호한다.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인성과 일본어실력을 우선시 한다. 일본문화를 잘 알고 언어가 완벽한 경우 사내 기술교육을 거쳐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될 인재로 투자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 따라서 일본 내 IT 기업의 채용 트렌드는 인성, 일본어실력, IT 기술이다. IT 기술의 경우에는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스킬도 중요하지만, 적성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내교육 실시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할 만한 인재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IT 분야 구인공고 예시(1)

株式会社DEVFOX		
모집문야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모집인원	3명	
근무형태	정규직	
주요업무	- 고객의 요청에 따른 다양한 시스템/SW 개발 - WEB 개발/ APP 개발, 시스템 설계, 개발, 테스트, 유지, 보수 - JAVA, C/C++, C#, JSP, JAVA SCRIPT, VB, .NET 등을 이용한 프로젝트 수행	
자격요건	학력	전문대학 졸업
	경력	무관
	언어능력	일본어(중상) : 일상회화 가능자
	전공/자격	JAVA의 기초를 알고 있는 대졸의 전공자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비전공자

IT 분야 구인공고 예시(2)

CAL		
모집문야	웹엔지니어 및 웹프로그래머	
모집인원	2명	
근무형태	정규직	
주요업무	- Java, JSP, C언어등, 자신이 있는 분야를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 개발. - 주 활동분야로 금융, Web, 판매, 제조업등 폭 넓은 프로젝트가 있으며, 수요가 높고 장래성이 있는 분야에서 업무종사	
자격요건	학력	대학 졸업(졸업예정자)
	경력	무관
	언어능력	일본어(중상) : 일본어능력시험 N2 이상
	전공/자격	IT 및 일본어 능력 필수 관련 자격증 우대

02. 기계/자동차 설계

기계 및 자동차 설계 분야는 제조사가 생산하게 되는 기계와 자동차의 제품화의 중핵을 담당하는 업무로서,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구인난이 이어지고 있고 글로벌 진출을 염두에 둔 일본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서의 구인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 유망한 분야이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에서 자동차 설계 엔지니어로 취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자동차 설계의 경우 기술 발전에 맞춰 자동차의 성능, 편의성, 안

전성과 같은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우 고령화된 엔지니어들에 비해 젊은 인력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목적에 맞게 자동차의 기능들을 설계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구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계를 비롯한 이공계 전공자로서 설계 프로그램 관련 직무능력(CAD, CATIA 등 자동차 및 기계 설계 기술)과 일본어 능력시험 2급 이상의 어학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난하게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비전공자라도 최근에 국내 해외취업 연수과정 중 일본 자동차설계, 자동차부품설계, 기계·기구설계 등 관련 분야에 취업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 다수 개설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여 일본 취업에 도전할 수 있다.

설계는 주로 CAD, CAM, CATIA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CAD 등의 활용능력을 자격 요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동 분야의 경우 기본적으로 CAD, CAM, CATIA 등의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업무가 주로 팀프로젝트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적어도 동료들과 일본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일본어 능력이 요구된다. 아무리 설계 기술이 뛰어나도 일본어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본 업체에서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아 일본어 능력이 높을수록 취업에 유리하다. 또한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기보다는 조직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가길 원하는 것이 바로 일본 기업의 문화이며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채용이나 승진에 불리하기 때문에 직무능력과 어학능력 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문화를 포함하여 일본인과 일본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체크포인트

(1) 일본 회사의 경우 급하게 사람을 뽑아 현장에 투입하기 보다는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인재를 뽑아 사내교육을 통해 성장시키려 한다. 기술이나 자격증보다는 상황면접이 중시되는 이유이다. 기술은 교육이 가능하지만 인성이나 일본어 및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채용에 임한다.

(2) 기계 • 자동차 설계 엔지니어의 업무는 개인적인 업무보다 연구소의 각 분야별 팀 단위로 함께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를 효율적이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일본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동료들과 수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일본 제조기업의 경우 공장이 대부분 원거리 지방에 있어 도심과 먼 곳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계/자동차 설계 구인공고 예시(1)

SUGIYAMA MECHARETRO		
모집문야	자동차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모집인원	20명	
근무형태	정규직	
주요업무	- 기계설계 개발직 - 제어소프트 개발직	- 전기,전자설계 개발직 - 평가, 실험 업무
자격요건	학력	전문대학 졸업(예정)
	경력	무관
	언어능력	일본어(중상) : JLPT N2 이상(N1 이상자 우대)
	전공/자격	기계/전기/전자 전공

기계/자동차 설계 구인공고 예시(2)

TECHNO-JAPAN		
모집문야	자동차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모집인원	20명	
근무형태	정규직	
주요업무	- 자동차 및 플랜트 관련 선행 기술 개발 - CAE 해석, 실험, 생산 기술, 생산 라인 설계	- 제품 개발 설계
자격요건	학력	대학 졸업(예정)
	경력	무관
	언어능력	일본어(상) : JLPT N1 이상
	전공/자격	공학 전공 필수

03. 총무/인사

총무와 인사와 같은 경영 관련 사무직은 기업 활동의 핵심이 된다는 점에서 많은 취업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총무는 사내 비품 관리, 방재(재난방지) 업무, 안전 위생 관리, 접수 업무 등 회사에 필요한 폭넓은 업무를 담당하며, 인사는 사원 채용 및 연수, 평가, 인원 배치 등을 담당. 사회보험 처리, 근태 관리, 급여 계산 등 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인사 직종의 경우 기존 한국인 직원 중 우수한 직원을 선발하여 인사 관련 업무를 하게 하는 등 한국 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인 인사담당자에 대한 수요가 있다. 일본기업의 경우 신입직원 채용 시 종합직(総合職)과 일반직(一般職)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종합직은 '기업에 종합적인 판단 능력

이 요구되는 기반업무를 처리하는 직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커리어 상 복수의 부서 및 업무 내용을 경험하면서 장래에는 회사의 중추를 담당할 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일반직은 '사무와 같은 정기적이고 보조적인 업무를 담당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지점이나 공장 등 사업소 단위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 업무의 이동이나 전근의 가능성은 적고, 일반직은 종합직을 보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일이나 업무 범위가 좁고 매뉴얼이 있는 일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경영 관련 사무직으로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관심 분야가 총무나 인사에 있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서 이동을 통해 재무나 회계, 영업, 교육, 해외 지원 등 여러 가지 업무를 경험해 나가는 것이 경력관리에 좋다. 기계, 전기전자, IT 등 전공지식이 필요한 기술직과 달리 경영 관련 종합직의 경우에는 전공을 불문하고 일본 취업의 문이 열려있다. 과거 비자발급이 다소 까다로웠던 국제/인문 분야의 비자발급이 기술 분야와 통합되면서 비교적 용이해지고 있고, 특히 총무와 인사 부문은 제조사, 상사, 금융, 서비스, 유통·소매, 정보·통신, 대중 매체 등 거의 전 산업 분야에 걸친 다양한 업종에서 종업원이 담당하는 주요 업무 내용으로 제일 먼저 꼽히고 있어 구인 수요가 큰 직종이다.

경영 관련 종합직 등 통합비자로 일본에 취업할 경우 전공이나 경력이 주요 요건은 아닌 반면, 조직의 주 구성원이 일본인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걸쳐 고도의 일본어 활용능력이 요구된다. 특히 전화-일본어를 포함한 비즈니스 일본어에 능통해야 하며 일본인 동료들과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일본어 실력이 요구된다. 참고로 동 분야의 경우 채용공고 상 일본어능력시험 1급 이상자로 회화 및 MS-Office의 엑셀이나 워드 등을 활용한 비즈니스 문서 작성 능력 상급자를 원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체크포인트

(1) 일본 취업의 장점은 전공이나 스펙보다는 인성과 잠재력을 중시한다는 데 있다. 스펙보다는 매너나 조직 융화, 조직 이해능력 중시하기 때문에 일본거주 경험이 있거나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력이 높은 사람이 유리하다.

(2) 일본어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일본어 회화실력, 비즈니스 일본어 활용능력, 경어 구사능력을 갖춰야 한다.

(3) 일본의 회사 분위기에 유연히 적응할 수 있도록 회사 내 예절 및 일본문화 전반에 걸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교환학생 경험이 있는 등 일본에서의 생활 경험이 있는 자가 더 유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총무/인사 구인공고 예시(1)

주식회사 BMS JAPAN		
모집문야	인사 및 노무 사무원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정규직	
주요업무	일반 사무, 경리, 총무 등 관리 지역에서의 업무 전반	
자격요건	학력	대학(교) 졸업
	경력	무관
	언어능력	일본어(최상) : JLPT N1 이상
	전공/자격	- 취업비자 취득에 문제가 없을 시 전문대 졸업자 지원 가능 - 경력 1년 이상 우대

총무/인사 구인공고 예시(2)

Amazon Japan		
모집문야	총무 및 인사 관리자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정규직	
주요업무	- Area Manager(물류조정관리직) : Amazon의 물류 거점인 풀필먼트 센터(FC)의 입하, 출하, 품질관리 중 하나의 공정에서, 생산 계획·업무 계획의 책정, 생산성이나 가동률의 관리, 멤버의 육성·평가 등을 실시 Shift Mnaager : 화물의 입고, 출하 및 구분 관리 및 배송 거점에서의 작업자 근태 관리를 포함한 일상적인 운영 관리	
자격요건	학력	대학(교) 졸업
	경력	무관
	언어능력	일본어(상) : JLPT N1 이상
	전공/자격	무관

04. 영업

영업은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강점을 고객에게 전하여 판매하고 계약을 맺는 업무를 담당한다. 영업의 경우 전공보다는 일본어능력과 인성을 우선시하며 유학생들도 가장 많이 취업하는 직종 중 하나이므로 해외 취업에 유망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총무·인사 직종과 마찬가지로 제조사, 상사, 금융, 서비스, 유통·소매, 대중 매체 등 거의 전 산업분야에 걸친 다양한 업종에서 주요 직종으로 꼽히고 있어서 많은 수요가 있는 분야

이다. 일반적으로 영업업무는 거래 계약관리, 가격네고, 업무 지원, 거래 성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일본기업의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영업'과 같이 포괄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해외영업'이나 '기술영업', '신규영업' 또는 '루트영업' 등 해당 영업의 특성을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직자는 각 영업 포지션의 특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선 해외영업은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하여 전반적인 영업을 담당하며, 기술영업은 회사의 핵심기술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자사 기술의 좋은 가치를 제안하여 매출까지 이어가는 프로세스를 담당한다. 기술영업은 자사가 보유하는 기술 역량이나 제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제품이나 기술 개발담당자와의 교류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향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빠르게 회사 내부에 공유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이전에는 해외영업과 기술영업을 별개로 구분하였으나, 최근에는 계약전반을 관리하는 토탈-영업 개념이 확산되면서 둘 간의 구분이 없어지는 추세이다. 또한 판매처와 관련해서는 신규영업과 루트영업으로 구분하는데, 신규영업은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하여 확보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데 반해 루트영업은 신규 거래처가 아닌 기존 거래처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인의 업무 성과가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는 영업 계열 직종은 신규 거래처의 개척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처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신뢰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연습을 통해 의사소통능력과 상대방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당연히 영업 직종의 경우 전공불문하고 고도의 일본어 활용능력이 요구된다.

체크포인트

(1) 영업 직종은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안 및 판매를 실시하는 이외에 고객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대응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신뢰가 쌓여야 매출로 연결된다. 따라서 일본어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격증과 상관없이 일본어 회화실력, 비즈니스 일본어 활용능력, 경어 구사능력을 갖춰야 한다.

(2) 조직 내 대인관계도 매우 중요하므로 회사의 인재상과 부합하는지, 철저한 자기분석을 바탕으로 채용에 임할 필요가 있다.

(3) 신규개척과 기존 고객관리 모두 고도의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 요구된다. 기본적인 대인관계 형성 능력과 일본인 및 일본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교육이 필요하다.

영업직 구인공고 예시

FUSOH STEEL TUBES		
모집문야	영업 관리직	
모집인원	0명	
근무형태	정규직	
주요업무	최적의 소재(강관)조달+풍부한 재고+각종 강관 가공능력을 조합해서 고객에게 제안하는 "코디네이트 영업"	
자격요건	학력	대학(교) 졸업(예정)
	경력	무관
	언어능력	일본어(상) : JLPT N1 이상, 일본어로 비즈니스 가능 레벨
	전공/자격	- 전공 불문 -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05. 판매담당/접객

판매·서비스 계열은 일본 정부의 관광업 활성화 기조에 따라 꾸준히 인력 수요가 예상되고 통합비자의 출현에 따라 비자취득이 이전보다 용이해짐에 따라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에서의 판매 담당이나 접객 분야도 일본 취업에 유망한 직종이다. 판매·서

비스 계열은 친화력이 좋거나 일본문화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의 경우 취업 시 만족도가 높은 편이어서 본인의 적성이 이에 맞는다면 해외취업에 도전해 볼 만한 분야이다. 동 분야는 일반적으로 출신 전공과 무관하게 지원가능하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일본어 능력이 필요하며, 영어나 중국어 등 제2외국어가 가능하면 채용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언어 능력과 함께 백화점이나 전문점, 면세점 등에서 상품 판매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담당·접객 직종은 소비자의 요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상대방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직무에 대한 열의 등을 갖추어야 한다.

체크포인트

(1) 판매담당 및 접객 분야는 고객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과 해결책 및 계획을 제안 하는 능력이 중요하므로 일본어 활용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격증과 상관없이 일본어 회화실력, 비즈니스 일본어 활용능력, 경어 구사능력을 갖춰야 한다.

(2) 고도의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 요구된다. 자기 분석을 통해 서비스직에 어떤 이유로 도전하는지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친화력이 좋거나 일본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일본 취업 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반면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면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 취업이 쉽지 않고 지속하기도 어렵다.

(4) 채용 시 가장 중시하는 능력은 일본어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열의 등이며, 영어능력이 우수할 경우 더욱 유리한 경향이 있다

판매담당/접객 구인공고 예시

STAR SHOP & LINE Co., Ltd.		
모집문야	판매 사무원	
모집인원	3명	
근무형태	정규직	
주요업무	면세점에서 고객 응대 및 판매/매장관리/디스플레이 및 재고 관리	
자격요건	학력	전문대학 졸업
	경력	무관
	언어능력	일본어(중) : 기본 회화 가능
	전공/자격	- 전공 불문 - 고객 서비스/ 판매 아르바이트 유경험자 우대

01. 취업절차 개요

한국의 취업시장에서는 '스펙'이 강조되는 경향이 없지 않으나 일본의 경우는 '잠재력(Potential)'이 중요시되고 있다. 신입사원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이미 쌓인 스펙이 아닌, 입사 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다. 현재까지의 경험과 인성으로부터 추측되는 잠재적 가능성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신입사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거나 사원을 성장시키는 프로그램이 탄탄한 기업이 많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경력직'보다는 '신졸(대학을 갓 나온 구직자)'을 선호한다. 이는 종신고용을 지향하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와 애사심, 조직 내에서의 화합과 유연한 태도를 중요시하는 일본 직장문화에 의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성과 가치관이 사훈이나 기업문화에 맞는지, 업종과 상충되지 않는지를 가장 우선시한다. 인성을 갖춘 인재라면 사내 교육을 통해 스킬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스킬보다는 잠재력을 중요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취업을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분석을 바탕으로 에피소드를 위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종을 분석한 후 입사 하고자 하는 기업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취업서류 준비를 해야 한다.

한편, 2018년 9월에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1997년부터 30년 넘게 지켜오던 '취업활동규칙'을 전면 폐지하기로 하여 신졸 채용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간 일본에서는 경단련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취업활동규칙을 제정해 신졸 채용 시 공채일정(일반적으로 3월부터 채용설명회 실시, 6월 면접, 10월 1일 합격자 대상 신입 오리엔테이션 실시)을 통일함으로써 채용활동으로 인한 혼란 및 경쟁 과열을 막는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최근 대학졸업자에 대한 신규채용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경단련에 가맹하지 않은 외국계기업이나 IT 업체 등이 취업활동규칙에서 정한 3월 이전부터 채용설명회를 실시하거나 수시채용을 실시하면서 경단련 회원사보다 더 빨리 인재를 확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취업활동규칙을 준수하는 경단련 회원사는 인재 확보에 불리해진 상황이다. 취업활동규칙의 폐지로 인해 2022년 이후 일본의 취업시장은 점진적으로 상시 채용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의 구직자들도 상시 취업활동을 통해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체크포인트

(1) 한국의 취업시장에서는 '스펙'이 강조되는 경향이 없지 않으나 일본의 경우는 '잠재력 (Potential)'이 중요시되고 있다.
(2) 수차례에 이르는 면접을 통해 인성과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고자 한다.
(3) 자격증보다는 실제 업무능력을 우선시 한다.
(4) 종합직은 대체로 전공불문이나, 기계/전기전자나 IT 등 기술직은 대부분 전공지식이 필요하다.

체크포인트

내정제(内定制)란? 일본 특유의 취업과정 관행이다. 일반적으로 실제 입사를 하기 전이라도 약 10월경에 내정을 받게 되면 취업한 것이라 여긴다. 이때 내정을 통지받았다면 서면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제한적 암묵의 약속이다. 물론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업무 시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지장이 있는 경우, 입사서류나 면접에서 거짓이 있을 경우, 범법 사실이 있었을 경우, 회사가 도산한 경우 등은 내정 취소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내정과 비슷한 내내정(内々定)의 경우는 서면이 없는 구두의 약속이며 법적 구속력 또한 제한적이다. 보통 내정의 이전 단계이며 내내정의 상태에서는 결정의 취소가 비교적 쉽기는 하지만 내내정이 취소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일반적으로 내내정 단계에서 취업결정을 번복하면 학생의 입장이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회사의 사회적 신용 및 평판에도 심각한 영향을 입을 수 있다.

02. 취업절차

01 공고 확인	• 개별 기업 홈페이지 • 월드잡 홈페이지 • 현지 구인구직사이트
02 엔트리/지원	• 엔트리란 각 기업의 자료와 정보를 신청하는 것으로 엔트리를 하면 그 기업의 채용 정보와 기업정보, 설명회 안내 등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기업에 직접 제출하거나 구인구직사이트에 엔트리 일괄 등록 • 엔트리 방법은 회사마다 상이하며, 엔트리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기업에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이력서와 엔트리 시트를 작성 및 제출하여 채용에 정식 지원
03 필기시험	• 적성검사 : 주로 “SPI3”이며, 설문 형태의 질문에 차례차례 직감적으로 대답함으로써 직무적성과 스트레스 내성 등을 측정 • 일반 상식테스트 : 사회, 국어(일본어), 영어, 문화, 수학, 시사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 • 작문 등 : 주어진 주제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기술
04 면접	• 일본의 면접은 3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 • 집단 토론 면접 : 4~6명으로 그룹을 구성하여 기업이 제시한 주제에 대해 그룹 내에서 토의하게 하고 이를 면접관이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며, 집단에서 개인이 어떠한 성과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임 • 집단 면접 : 사전에 제출한 엔트리 시트나 이력서를 바탕으로 면접관이 지원자들에게 질문하고 지원자들이 차례로 같은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지원자 간 비교가 가능함 • 개인 면접 : 개인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특성을 파악할 목적으로 실시
05 내정통지 및 입사 의사결정	• 내정이란 전형이 종료되고 기업에서 채용 의사를 알려오는 것으로, 전화로 통지한 후 우편으로 ‘내정통지서’ 발송 • 내정통지를 받으면 입사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약서’ 제출 및 내정 수락 의사표명
06 재류자격	• 일본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 가능한 자격인 재류자격(일반적으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필요 • 회사가 내정자로부터 서류를 받아 출입국관리국에 비자 신청
07 입사	• 입사시 곧 바로 업무를 시작하기 보다는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3개월 가량의 직무교육 및 언어교육을 진행한 후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음

일자리 찾기

일본에서 일자리를 찾는 주요 방법은 구인사이트 응모, 이직 에이전트를 통한 구인 소개, 잡 페어 등 이벤트 참가, 인턴십 참가 등이 있다. 각 방법별 장단점이 명확한 편이므로 구직자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일자리 찾는 방법별 장단점

①구인 사이트	②이직 에이전트	③이벤트 참가	④인턴 참가
[이점] • 구인수가 많다.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든지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다 • 자신의 페이스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이점] • 응모나 필요 서류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다 • 업계 사정을 알려 준다 • 비공개 구인을 소개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점] • 그 자리에서 최종 면접 또는 내정까지 진행할 수 있다 • 직접 기업의 매력과 업무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직장 분위기도 파악할 수 있다	[이점] · 취업 전에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 취업 전에 일본에서 일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고 또한 일본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 입사 후의 직무적성의 불일치를 방지할 수 있다
[결점] • 응모나 필요 서류 작성을 모두 스스로 해야 한다 • 구인수가 많아 원하는 구인 정보를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	[결점] • 담당자와 밀접하게 연락을 나눌 필요가 있다 • 학력과 경력에 따라 응모 기업의 폭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다	[결점] · 이벤트에 참가하는 기업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 이벤트 장소까지 가야 한다	[결점] · 경험할 수 있는 업무가 한정적인 경우가 있다
[실시 주체] • 구인 광고 대리점	[실시 주체] • 인재 소개 회사	[실시 주체] · 구인 광고 대리점 · 인재 소개 회사 · 경제산업성	[실시 주체] · 인턴 알선 기업 · 경제산업성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일본에서 IT 인재로 일한다는 것'

일본의 경우 글로벌 채용포털보다는 현지 구인사이트가 보다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취업을 고려한다면 일본 대표 구인사이트를 중심으로 채용공고를 검색하는 편이 낫다. 신업 채용 정보사이트는 리쿠나비와 마이나비가 가장 유명하고, 경력자들의 이직을 위한 구인사이트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DODA, 리쿠나비NEXT, 마이나비 텐쇼쿠 등이 있다.

일본 주요 구인사이트 목록

포털명	웹사이트	특징
리쿠나비	job.rikunabi.com	일본 대표 구인사이트
마이나비	job.mynavi.jp	일본 대표 구인사이트
DODA	doda.jp	경력/이직 전문 사이트
리쿠나비NEXT	next.rikunabi.com	경력/이직 전문 사이트
마이나비텐쇼쿠	tenshoku.mynavi.jp	경력/이직 전문 사이트

서류전형 및 지원

일본에서 채용기업에 지원 시 입사지원서인 엔트리시트(entry sheet와 이력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엔트리는 각 기업의 자료와 정보를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엔트리를 하면 그 기업의 채용정보와 기업정보, 설명회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엔트리 방법은 회사마다 상이한데, 채용기업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채용포털에 엔트리를 일괄 등록하여 입사지원할 수도 있다. 엔트리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기업에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엔트리시트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채용에 정식으로 지원한 것이 된다. 일본 취업을 검토할 때는 먼저 구인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구인표에는 기업의 개요와 모집 중인 직종의 업무 내용, 처우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일본 업체는 사무분장 (Job Description)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업무 내용에 유연성이 있는 경우(간혹 IT로 지원했으나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음)가 많다.

일문 이력서 작성 TIP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의 '해외취업가이드'에 해외취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데, 일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한 팁도 제시되고 있으니 참고해보자.

(링크: https://www.worldjob.or.kr/abGuide/engResume.do?menuId=1000005224).

면접 전형

일반적인 면접 흐름은 채용 담당자 ⇒ 인사 담당자 ⇒ 임원 및 경영자의 순서로 면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채용 이벤트에서는 당일에 최종 면접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기업에 따라서는 온라인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종 면접은 대부분 대면으로 실시된다. 대면면접 시에는 복장이나 답변하는 자세를 신경써야 하는데, 복장의 경우 신졸 사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검은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거나 비슷한 분위기의 정장차림이 추천된다. 그리고 면접관이 질문할 때는 질문하는 면접관에 눈을 보면서 또박또박 정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게 좋고, 일본어가 조금 서툴어도 천천히 정확한 발음으로 자신 있게 말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채용 담당자와의 면접에서는 학창시절의 경험, 지금까지의 경력, 지원 이유(이직 이유), 장래 계획, 성공 또는 실패 체험 등이 자주 나타나는 질문이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는?', '입사한 뒤에 하고 싶은 일', '10년 후의 비전'과 같은 질문을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요구되는 일본어 실력

최근 KOTRA 도쿄무역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기업이 한국인 구직자에게 원하는 능력 중 '일본어 능력'이라고 답한 기업이 95%이고 '일본에 관한 이해도와 적응 능력'을 답한 기업이 66%를 차지하였다. 이는 일본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조화를 위한 일본어 능력 및 일본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직종에서 많은 채용기업들이 사내의 다른 일본인 사원과 협업하거나 일본인 고객을 상대할 수 있는 정도(JLPT N2)의 일본어 능력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취업을 위해서는 일본어 능력 또한 갖추는 것이 유리하다.

체크포인트

(1) 연간 일정상 공채에 의한 일본 취업은 3, 4, 5월에 합동기업설명회, 세미나, 각종 회사설명회를 통해 회사에 대한 탐색과 정식 지원(엔트리 시트와 이력서를 제출, 적성검사 등)을 하고, 6, 7, 8월에 필기시험과 면접 등 전형 활동이 이루어진다. 예비내정을 거쳐 정식 내정은 10월 경에 결정된다.

(2) 10월 1일까지 취업이 결정되지 못한 학생 및 채용하지 못한 기업은 계속해서 취업/채용을 실시한다. 10월에 실시되는 취업박람회 등은 추가적인 채용을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한국에서의 일본 취업 신입채용 절차 예시(공채)

엔트리 시트 및 이력서 제출 → 1차 면접 → 2차 면접 → 적성검사 (SPI3) → 임원면접 → 내정

(4) 일본 내에서의 일본 취업 신입채용 절차 예시(공채)

엔트리 및 설명회 참가 → 엔트리 시트 및 이력서 제출 → 집단면접 → 개인면접 (1~2회) → 적성검사 (SPI3) → 임원면접 → 내정

(5) K-MOVE 연수프로그램 등 알선업체에서의 신입채용 절차

각 기관별 교육훈련 → 서류전형 → 면접 → 내정 → 출국 및 사내교육

03. 취업절차 핵심 포인트

엔트리 시트 작성

엔트리시트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독특한 회사 지원 양식으로 기업이 지원자의 특성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다. 엔트리시트는 희망 기업 선고(취업전형)에 응모하기 위한 의사 표시가 되는 서류로 기업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자기PR이나 희망 동기를 기입하여 제출하며, 이력서도 마찬가지로 희망 기업 선고에 응모하기 위한 서류로서 일반적인 한국의 이력서나 미국의 레쥬메(resume)와는 다르게 비교적 간략한 형태로 본인의 신상명세나 학력, 경력, 면허 및 자격 등에 대해서 기술하게 된다. 이러한 입사지원서에는 기업마다 시식이나 기입하는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력과 경험뿐만 아니라 각 기업의 독자적인 질문에 대해서 기입을 하게 되는데 본인의 지원 동기가 기업의 채용 이유와 잘 맞아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엔트리시트의 제출은 해당 기업의 채용시험에 정식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엔트리시트 기재 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자필로 기재할 때는 반드시 연습용으로 복사를 여러 장 해 둔다.
(2) 오탈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예쁜 글씨가 아니어도 또박또박 기재한다.
(3) 가능한 여백을 남기지 않도록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공백을 피한다.
(4) 면접 시 자신이 기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후 반드시 복사해 둔다.
(5) 기업이 분류 작업을 할 때 사진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진을 부착할 때에는 뒷면에'학교명, 학부, 이름' 등을 기재한다.
(6) 마감 직전이 아니라 일찍 제출하는 것이 좋다. 도착한 순서대로 전형을 진행하는 기업도 있고, 마감 직전에 제출하는 지원자가 많으므로 인사 담당자가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 결국 수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적성검사(종합인성검사, SPI)

각 기업별 별도의 필기시험 이외에 일본 취업활동의 필수적인 단계로 종합인성검사(SPI, Synthetic Personality Inventory)가 있다. 한국 현대자동차 그룹의 인적성검사(HMAT), 삼성그룹의 SSAT와 같은 기초 인지능력 및 인성 필기시험이다. SPI는 크게 언어부문, 비언어부문, 그리고 인성부문의 3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고, 추론, 집합, 도형, 방정식부터 숙어, 사자성어, 시사 등 다양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전에

는 관례상 SPI시험을 치르는 기업들도 더러 있었지만, 최근 많은 기업들이 종합검사 점수를 면접과 함께 균형적으로 비중을 두고 있는 추세이다. 종합검사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일본인 대학생들이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를 준비하고 있으며 시중에 이에 관한 많은 참고서들이 출판되어 있다. 지난 수년간 내용이 업데이트되어 현재는 SPI 버전 3이 사용되고 있다. 시험 자체의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는 않다. 특히 수학의 경우는 고등학교 기초수학 정도의 수준에서 나오므로 한국인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시험점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몇몇 기업에서는 총점이 아니라 과목별로 커트라인을 두니 각 부문에서 골고루 점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출제되는 문제들의 유형들이 정해져있고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참고서를 반복적으로 풀며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적성검사(SPI3) 문제 예시

① 비언어부문 예시

문) 계약금이 구입가격의 1/5 일 때 할부 1회당 지급액은 구매가격의 얼마에 해당하는가?

선택) ⓐ1/16 ⓑ2/25 ⓒ1/12 ⓓ1/11 ⓔ1/9 ⓕ3/25 ⓖ1/8 ⓗ2/15

② 언어부문 예시

문) 우선 제시된 의미와 가장 부합되는 단어들을 선택지에서 고르세요.

"とりつくろって立派に見せること"

선택) ⓐ 偽作 ⓑ 捏造 ⓒ 虚飾 ⓓ 粉飾 ⓔ 校閲

③ 인성부문 예시

문) 아래의 질문이 당신의 일상 행동이나 생각과 어느 정도 가까운지 선택지에서 고르시오.

A : 다른 사람에 대해 무관심 한 것은 좋지 않아.

B : 남의 일에 깊이 드는 것은 좋지 않다.

선택) ⓐ A에 매우 가깝다 ⓑ B보다는 A에 가깝다

ⓒ A보다는 B에 가깝다 ⓓ B에 매우 가깝다

자료 : https://saisokuspi.com/

면접

각 기업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차례에 걸쳐 면접이 진행되며, 1차 면접은 집단면접(집단 토의 면접), 2차 면접은 개별 면접, 그리고 최종 임원 면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면접과정에서 외국인의 경우 토익점수 등의 외국어 능력보다 지원자가 일상 업무에서 일본어를 얼마나 잘 하는지, 동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문제

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그러므로 면접과정에서 본인의 답변을 간결하지만 분명하고 또박또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단 면접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질문들은 다음의 범주 안에 포함 되므로 아래 내용은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① 자기소개 및 PR
② 본인 성격의 장단점
③ 업계 관심 동기
④ 기업 지원 동기
⑤ 회사 선택의 기준
⑥ 본인이 경험한 아르바이트 및 과외활동
⑦ 학창시절 관심과 업적, 제일 열심히 한 내용
⑧ 본인이 경험한 좌절 및 실패담(교훈)
⑨ 본인이 경험한 성공담
⑩ 입사 후 하고 싶은 직무
⑪ 본인의 꿈과 최종 목표
⑫ 자신의 꿈과 미래의 모습 묘사

이외에도 외국인에게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준비해야 한다. 가령,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 일본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점 및 공통점, 한국의 동종 업계와 비교 등이 있다. 면접이나 면담을 하기 위해 회사를 방문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약속시간 15분 전에 도착하여 5분 전에 전화로 확인을 하는 것이 비즈니스 예의이다. 일본은 문화적 특성상 면접을 볼 때 지원자의 인상과 자세, 태도 등을 아주 중요하게 본다. 면접을 볼 때나 기업의 세미나에 참가할 때의 복장은, 자유복이란 지정이 없는 경우 통상 리쿠르트 슈트라 불리는 정장을 입고 참석한다.

남성 면접 복장	여성 면접 복장
• 머리 : 청결하고 밝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깨끗이 정리 • 슈트 : 가장 무난한 검정색이나 남색 등의 차분한 색상의 슈트를 선택 • 상의 : 흰색 셔츠와 함께 넥타이 착용 • 구두 : 벨트와 동일한 색의 가죽 소재 • 가방 : 눈에 띄지 않는 검정색이나 갈색류의 A4사이즈 크기를 추천 • 넥타이 : 화려한 것은 피하기 • 양말 : 흰색 및 캐주얼한 양말은 금기	• 머리 : 청결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단정히 정리. 긴 머리는 하나로 묶음 • 슈트 : 가장 무난한 검정색이나 남색 등 차분한 색상의 슈트를 선택 • 스타킹 : 색이나 무늬가 없는 살색 • 상의 : 흰색 셔츠를 기본으로 하고 가슴이 너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 • 구두 : 벨트와 동일한 색의 가죽 소재 • 가방 : 검정색이나 회색류의 슈트와 비슷한 색 선택

체크포인트 - 면접 답변 준비

면접관과의 면접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PREP기법을 적용하면 논리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Point - 핵심 메시지 및 주장 | Reason - 이유 | Example - 사례 | Point - 요약(혹은 결론)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당황하고 마음이 성급해져 많은 내용을 나열하는 것보다 위 접근을 활용하여 주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내용 기술 후에는 사례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뒷받침하고, 통계 및 숫자 등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면접의 포인트는 일본어의 유창함만을 강조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의 정보와 경험적 자산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질문 예) 업계에서는 우리회사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사회가 사업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안 예) (P) 매출의 하락과 사업에 관한 루머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R) 작년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비록 매출은 다소 하락하였지만, 오히려 시장점유율은 전년대비 5% 늘었으며, 전 세계 시장 기준 여전히 가장 큰 매출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E) 예를 들자면 ○○의 대표적 제품인 △△만 보아도 여전히 시중 점유율 1위를 기록 하고 있고, 시장의 반응과 고객의 피드백 역시 매우 좋았습니다.
(P) 따라서 그러한 루머는 일각의 우려이며, 다만 신제품의 혁신적인 개발과 시장주도가 향후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체크포인트 - 면접 시 빈출 질문 예시

- 학창시절에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우리 회사 상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또 어떤 인상을 갖고 있습니까?
- 배속된 부서가 원하는 부서가 아닐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회사나 업무에 대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일본 기업에 취직하고 싶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일본에서는 얼마나 오래 일하고 싶으십니까?
- 현재 입사 전형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회사는 있습니까?
-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은 있습니까?

04 취업전략 및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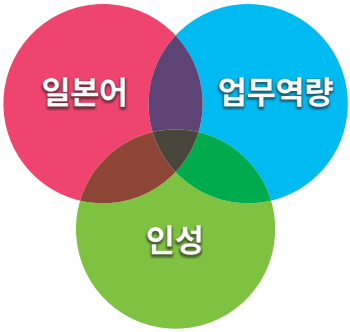
효과적인 취업전략을 위해서 취업준비는 지원자의 결심과 자기분석에서 시작한다. 자기분석이란 자신의 장점과 단점, 적성, 전문분야의 능력, 흥미와 장래 꿈, 가치관 등을 스스로 되새겨보고 정리해보는 것이다.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장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과정이다. 아래 자기분석 항목과 점검내용을 토대로 질문에 답해보도록 한다.

자기분석항목

	장단점	호불호	인간관계	흥미/ 가치관
개인	자신의 장점은? 자신의 단점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은?	사교적인가? 내성적인가?	본인의 흥미와 관심? 가장 소중한 것은?
가정	가족에게 공헌하는 것? 가족에게 부담인 것?	가족의 좋은 점? 가족생활의 싫은 점?	가족 내의 역할은? 가족 간 충돌경험은?	가족관계에서 소중한 것은?
학교	전공과 전문분야는? 적성과 안 맞는 과목은?	좋아하는 선생님, 선배? 싫어하는 학우?	학교에서 인간관계는? 상대하기 어려운경험?	어떤 과목에서 흥미?
회사	능력을 발휘한 경험? 본인이 서투른 점?	직무경험(아르바이트)에서 좋고 싫었던 경험?	직장 내 어려웠던 인간관계는?	흥미로웠던 일 경험?

자기분석표 기입 후 자신의 적성에 맞는 업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중점연구 대상 업계를 좁혀나간다. 자기 평가를 위해서 인사담당자들이 강조하는 능력밸런스를 중심으로 취업로드맵을 점검해 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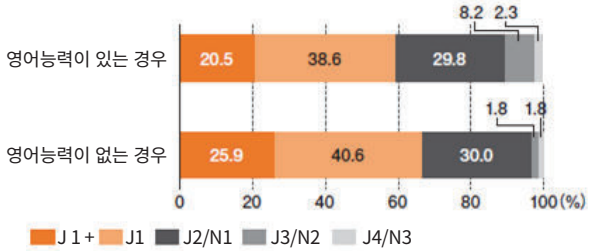
◎ 능력 밸런스



일본어

외국인의 취업활동에서 가장 주목하는 능력이 일본어 능력이다. 취업 활동 때는 반드시 엔트리 시트와 필기시험, 면접 등의 단계를 밟아야 하지만, 기업은 채용할 때 면접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의사소통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내정받기 쉽지 않다. 일본기업이 채용시 요구하는 일본어 능력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다.

요구하는 일본어 능력



J 1 + ····· 어떤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일본어를 통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다.
J1····· 폭넓은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일본어를 통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다.
J2/N1····· 한정된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일본어를 통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다.
J3/N2····· 한정된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일본어를 통한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다.
J4/N3····· 한정된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일본어를 통한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다.

출처 : 경제산업성(2015) 외국인의 취업 및 정착상황에 관한 조사

전문능력

외국인이 일본기업에 취업할 때 가장 유리할 수 있는 분야이면서도 대학을 갓 졸업한 신졸자의 경우 가장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전문능력이다. 전문능력은 특별한 자격이나 경험이 필요하고 이로 인한 지혜와 노하우가 습득된 상태를 말한다.

전문능력 자기평가표 자기분석항목

	항 목	자기평가수준
1	관심업종에서의 인턴십 등의 경험이 있다.	1—네 2—아니오
2	나의 전공에서 해당 업무에 관한 특별한 과목을 제공한다.	1—네 2—아니오
3	외부에서 연구발표를 하거나 기업과 공동연구를 한 적이 있다.	1—네 2—아니오
4	전문성이 높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1—네 2—아니오

사회성

일본기업들은 직무능력뿐만 아니라 팀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인성을 중시하며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언어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호한다. 특히 조직에 충성하며 튀지 않는 인재를 선호하는 일본 기업문화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사회성의 기본임을 명심하자. 일본 정부가 발표한 생존력이라는 책자에 따르면 사회가 정말로 원하는 개인의 능력 12가지 정도가 제시되고 있다.

① 주체성 : 자진해서 일에 매달리는 힘
② 설득력 :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끌어들이는 힘
③ 실행력 : 목적을 설정하고 행동하는 힘
④ 과제 발견력 : 현상에 맞는 과제를 확실히 하는 힘
⑤ 계획력 :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 설정 능력
⑥ 창조력 :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힘
⑦ 발신력 : 자기 의견을 알기 쉽게 전하는 힘
⑧ 경청력 :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정중히 듣는 힘
⑨ 유연성 : 다른 의견을 이해하는 힘
⑩ 정황 파악력 : 주변 사람과 일의 관계를 이해하는 힘
⑪ 규율성 : 룰과 약속을 지키는 힘
⑫ 스트레스 조정력 :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

체크포인트

(1)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와 고도의 일본어 활용능력이 필요하다. 교환학생 등 일본 현지 생활 경험이 있을 경우 유리하다.
(2) 대부분 전공 불문이며 업종과 기업에 따라 취업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 자기분석 시 스펙을 자랑하기보다는 지원하는 회사에 맞는 인재상인지를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일본 기업의 초봉은 월평균 20만 엔 전후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종신고용을 목표 로 대기만성형인 인재를 선호하므로 면접시간은 짧게는 30분 길게는 한 시간, 경우에 따라서는 4차례 이상까지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 및 면접 시 회사 사풍과 어울려 향후 20년을 같이 볼 수 있는 인물인지 중점적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다.
(5)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외인재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일본기업의 경우, 외국인 채용목적은 ❶조직 활성화, ❷해외진출을 위한 인재 확보, ❸일본 본사와의 징검다리 역할 기대 등으로 조사되고 있다.

01. 일본 주요 로컬기업 리스트

일본기업 중 한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적지 않으나 2021년 KOTRA 글로벌 취업상담회 최종참가 일본기업 리스트를 보면 대략 어떠한 기업이 어떠한 직종으로 구인을 하는지를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해외취업 화상면접 일본기업 리스트

기업명(정식명칭)	업종	직종 및 구인수
ACE GIKEN	제조업	품질관리(1명)
Adecco	서비스업	㉮ 인프라엔지니어(1명), ㉯ 개발엔지니어(1명)
Amazon Japan	도소매업	고객서비스팀 매니저(1명)
Andes Logistics	운수업	물류 관리 업무(3명)
AP COMMUNICATIONS	IT·정보	인프라엔지니어(1명)
Biz4m	IT·정보	Java SE/프로그래머(2명)
BRYCEN	IT·정보	㉮ 시스템 개발 엔지니어(3명)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3명)
Bryza	서비스업	엔지니어(3명)
Bungokikaku Holdings	부동산업	영업직(1명)
Business Brain Showa-Ota	전문 서비스업	㉮ 회계 SE(2명) ㉯ 회계컨설턴트(2명)
CAL	IT	IT엔지니어(2명)
CHIYODA SUSHI	요식업	종합직(2명)
CITY OF KOBE	행정기관·협회	디지털화 전문관(2명)
COCOPA RESORT CLUB	리조트	해외고객스텝(2명)
COCOSYS	숙박업	종합직(5명)
CREST TECHNOLOGIES	제조업	기술종합직(2명)
Cyber Connect2	IT·정보	㉮ 게임 디자이너(1명) ㉯ 게임 프로그래머(1명) ㉰ 아티스트(1명)
DAIKO	IT·정보	㉮ 어플개발엔지니어(2명) ㉯ 인프라엔지니어(2명)
Data4C's	IT·정보	데이터사이언티스트(2명)
Digiplate	IT·정보	프로그래머(1명)

기업명(정식명칭)	업종	직종 및 구인수
Don Quijote	도소매업	㉮ 종합직(2명) ㉯ 점장/MD후보직(2명)
EXA	IT·정보	㉮ 영업직(2명) ㉯ SE(2명)
Genky DrugStores	도소매업	종합직(3명)
Hitachi Distribution Software	IT·정보	시스템 엔지니어(1명)
HUIS TEN BOSCH	스포츠·오락	㉮ 호텔직(1명) ㉯ 파크직(1명)
IMOGIN	도소매업	종합직(2명)
INFOSIATEC	IT·정보	S/W개발 엔지니어(5명)
INTEKPULS	제조업	어플리케이션엔지니어(1명)
JERA	인프라 산업	㉮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리더/매니저)(1명) ㉯ 네트워크 엔지니어(리더후보)(1명) ㉰ 프로젝트 리더/매니저 후보(1명)
Kansai Air Service	서비스업	여객 핸들링(5명)
Mahnamahna	부동산업	스타일링 코디네이터(1명)
Micros software	IT·정보	시스템 엔지니어(2명)
MITACHI	도소매업	설계개발종합직(2명)
Nabtesco	제조업	㉮ 개발/설계(1명) ㉯ 사내시스템 구축/관리(1명)
NISSAN MOTOR	제조업	㉮ 글로벌 구매/원가관리(1명) ㉯ 연구개발(1명) ㉰ 생산기술개발(1명)
NTT DATA Getronics	IT·정보	㉮ 시스템 엔지니어(1명) ㉯ 네트워크 엔지니어(1명)
NTT DATA SMIS	IT·정보	SE(1명)
OSSTEM JAPAN	제조업	㉮ 영업(5명) ㉯ 사무직(2명)
OWNDAYS	도소매업	㉮ 점포관리 전국사원(점장후보)(3명) ㉯ 점포관리 지역사원(점장후보)(3명)
PIONEER SOFT	IT·정보	IT직(2명)
Roland DG	제조업	㉮ 메카 설계(1명) ㉯ 회로 설계(1명) ㉰ 소프트웨어 설계(1명)
Sanken Electric	제조업	㉮ 기술직(2명) ㉯ 영업/종합사무직(1명)
SANKYU	운수업	㉮ 종합물류업무(1명) ㉯ 시공관리 스탭(1명)

기업명(정식명칭)	업종	직종 및 구인수
SB Technology	IT·정보	㉮ ICT종합코스 엔지니어(3명) ㉯ ICT종합코스 영업/마케팅(2명) ㉰ 프로페셔널 엔지니어(1명)
SHIMA SEIKI MFG	제조업	㉮ IT기술직(1명) ㉯ 제품개발설계직(1명)
SMK	제조업	㉮ 생산기술(1명) ㉯ 설계개발(1명)
Systena	IT·정보	㉮ IT서포트사무 ㉯ IT인프라매니지먼트 (㉮㉯ 총 3명)
TECHNO MODEL KYUSYU	제조업	CAD·설계직(1명)
Teraoka Seiko	제조업	기술개발직(3명)
TOMATO	IT·정보	SE/PG(3명)
TSUNEISHI KAMTECS	과학·기술	종합직(10명)
WAKASHACHIYA	요식업	점장·매니저 후보(1명)
Withus	도소매업	한국거래처 창구 업무(1명)

02. 일본에 진출한 주요 한국기업 리스트

일본 진출 주요 한국기업 리스트 (단위: 억 엔, 명)

회사명	투자연도	사업내용/제품	자본금	직원 수
삼성재팬(주)	1975	그룹 각 사 진출	83.3	547
LG 재팬(주)	1980	도 · 소매업(종합상사)	0.9	40
포스코 재팬	2004	도 · 소매업(철강전반)	44.4	85
한화큐셀 재팬(주)	1984	도 · 소매업(석유화학제품등)	26.9	189
진로 재팬	1988	도 · 소매업(주류제품등)	2	78
SK하이닉스 재팬	1983	도 · 소매업(반도체,카오디오 등)	10	50
(주) 효성재팬	1978	도 · 소매업(종합상사)	4.9	52
포스코대우재팬(주)	2002	도 · 소매업(종합상사)	4.8	50
CJ 재팬(주)	2002	도 · 소매업(식료품,가공식품 등)	0.4	66
NC Japan(주)	2001	IT(온라인 게임 개발, 운영 등)	3.7	149
농심재팬(주)	2002	제조업(식표룸 등)	3	27
(주)하나투어재팬	2005	서비스(관광 등)	10.2	170
신한은행재팬	2009	금융업	350	310

자료 :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체크포인트

(1) 기업 연구 시 신문의 경제란, 잡지, 지식투자가를 위한 '회사사계보(会社四季報)' 또는 '닛케이회사정보(日経会社情報)' 등을 참고할 수 있다.

(2) 산업별로 업계의 포지션, 업계 중 기업의 포지션 등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업계나 기업을 찾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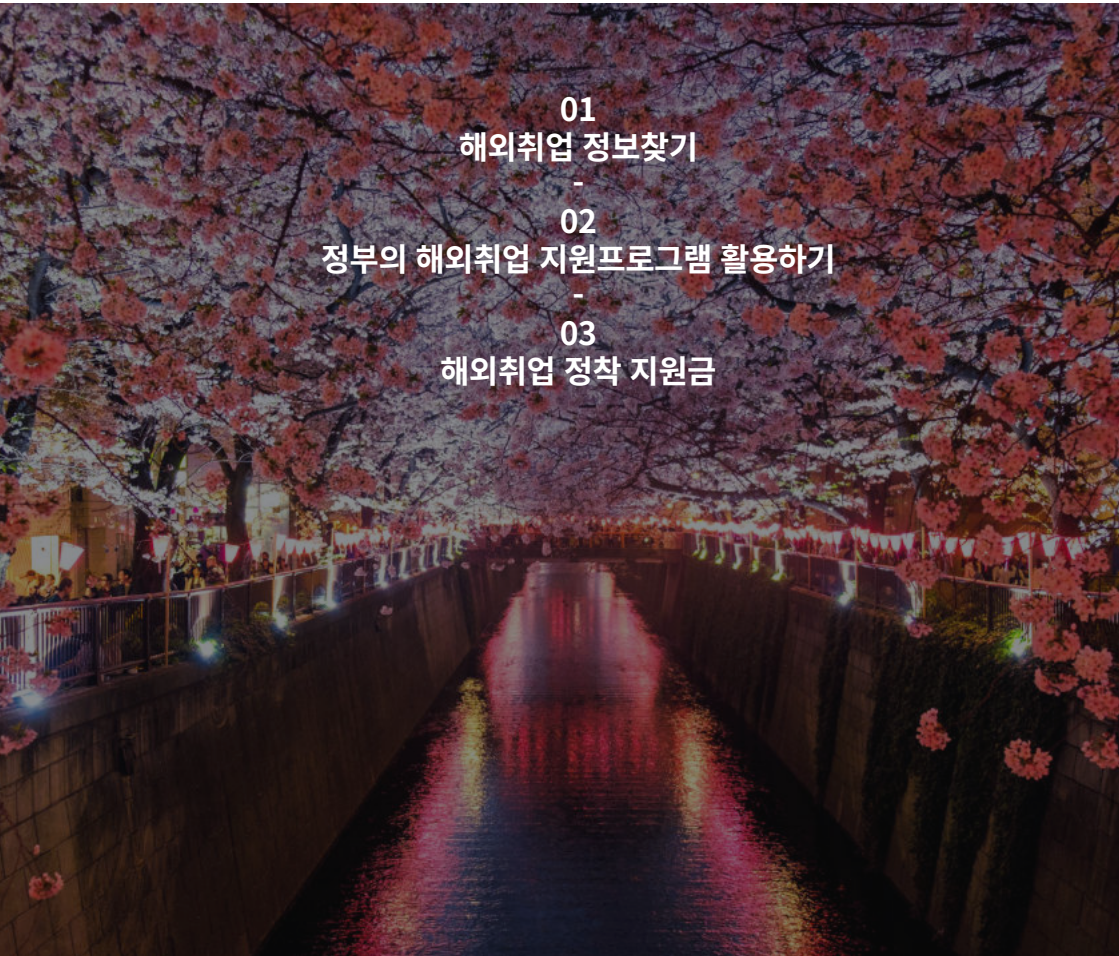
(3) 직종, 사훈, 사풍, 원하는 인재상 등을 확인하고 실적, 장래성, 노동조건, 기업이념 등의 항목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기업을 찾는다.

(4) 회사 선택 시 경영자의 마인드, 사원 교육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회사가 약속을 잘 이행하는지 여부, 소통이 되는지 여부 등도 체크한다.

PART

03

해외취업 성공 포인트



01
해외취업 정보찾기
-
02
정부의 해외취업 지원프로그램 활용하기
-
03
해외취업 정착 지원금

01 해외취업 정보찾기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등 공공기관, 해외취업 박람회(설명회), 기타 웹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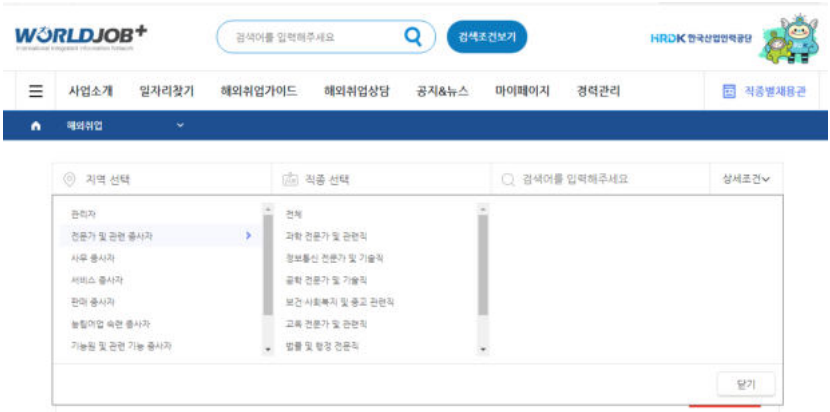
01. 월드잡플러스(웹/앱)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는 청년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관 별로 분산된 해외진출정보(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해외창업 등)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가별 기본정보 및 취업전략, 일자리(구인/구직)정보, 해외취업 후 경력관리, 국내 복귀 후 재취업 등 해외진출 전(全) 과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 진로적성 진단과 연계한 커리어플래너 제공
- ✔ 주요 국가별 기본 정보 및 유망 직종 취업전략 제공
- ✔ 외국어, 직무 등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 ✔ 실시간 채팅 기능을 활용한 해외취업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 ✔ 영문/일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무료 첨삭 서비스 제공
- ✔ 해외취업, 해외연수(K-Move스쿨), 해외인턴, 해외봉사, 해외창업 모집 공고 제공
- ✔ 청년해외진출 멘토링, 해외취업설명회(박람회)참여, 해외취업 아카데미 신청 정보
- ✔ 취업사실 확인 및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지원
- ✔ 해외진출 경력관리시스템 운영 및 국내 재취업 정보 제공
- ✔ 부당사례 신고센터 운영 등

일자리 검색하기

월드잡플러스



체크포인트

(1) 앱스토어에서 월드잡플러스 앱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카카오톡 친구추가(월드잡플러스(해외취업)), 링크드인(Linkedin)에서 worldjob plus를 검색하는 경우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또는 이력서 작성 시 희망 국가와 직종을 체크해두면 나에게 맞는 해외취업 정보를 [마이페이지] > [빅데이터 기반 추천정보] 메뉴에서 확인하거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력서를 미리 등록해두면 구인공고가 올라왔을 때 바로 지원도 가능하다.

해외진출 정보 찾기

국가별 기본정보 및 취업전략, 비자정보, 진출현황, 취업 성공수기 등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가이드 화면

체크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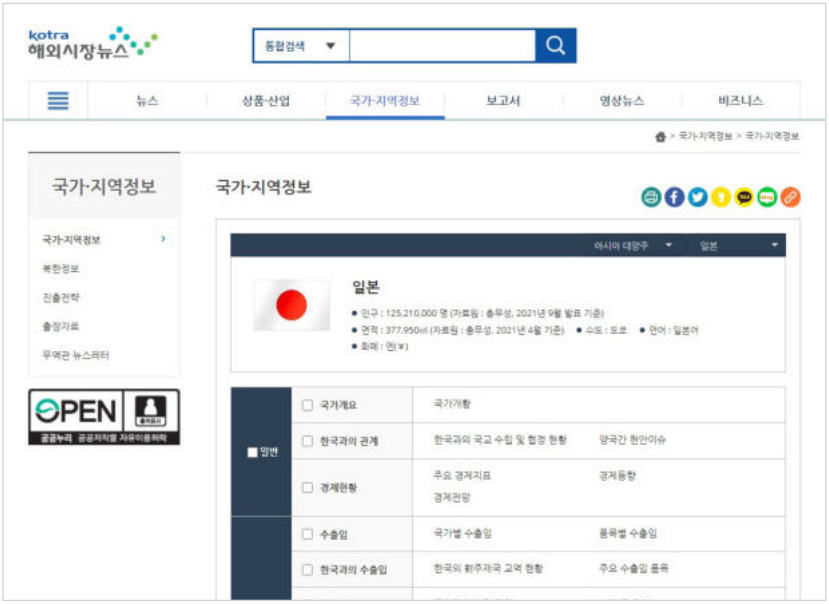
(1) 국가별 해외취업 가이드북, 해외진출 성공수기 등 알짜정보가 곳곳에 있으니 찾아서 이용하자!

(2) 영문/일문 이력서 첨삭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이니 구인공고에 지원하기 전에 미리 이용하자!

02. KOTRA

Kotra는 해외시장 뉴스(www.news.kotra.or.kr)를 통해 뉴질랜드 등 94개국에 대한 국가정보, 무역·투자진출 현황, 취업유망분야 등의 자료와 해취투게더 카페(cafe.naver.com/kotrajobinfo)를 통해 비자정보, 정착생활 후기 등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Kotra 해외시장뉴스에서 제공하는 국가정보



03.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는 글로벌시장 리포트를 통해 주요 국가의 해외시장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잡투게더(www.jobtogether.net)를 통해 해외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04. 주요 채용 사이트

일본의 경우 글로벌 채용포털보다는 현지 구인사이트가 보다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취업을 고려한다면 일본 대표 구인사이트를 중심으로 채용공고를 검색하는 편이 낫고, 이 외에도 기업의 채용 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채용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있다. 앞서 'PART 02. 산업 및 업종별 취업 전략'에 주요 현지 및 글로벌 채용사이트를 제시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05. 비즈니스 소셜 네트워트 서비스(BSNS) 이용

최근 BSNS는 프로페셔널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의 경력, 관심 분야에 대해 어필함으로서 개인에게는 새로운 구직의 장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구인 시 인재풀이 제한적인 부문을 중심으로 BSNS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구인자 입장에서도 동종 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하고 이력 관리를 통해 잡오퍼를 받거나 글로벌 인맥을 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북미의 경우 추천에 의한 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BSNS를 이용하여 네트워킹 관리를 하는 것이 해외취업 시 많은 도움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구직용 BSNS인 링크드인(Linkedin)의 활용 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링크드인 활용방법

회원가입
www.LinkedIn.com 접속 > 성명, 이름, 이메일 등록 후 계정만들기

프로필 작성
프로필 : 학력, 경력 등 기재

채용공고 검색
채용 기업 검색 및 찾기

지원하기
기업 지원하기

BSNS 활용 방법

항목	내용
프로필 구축	• 전문성과 자신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프로필 사진 첨부 • 경력사항을 자세히 기재. 특히, 담당했던 업무나 프로젝트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웹사이트나 이미지 등을 함께 추가 • 취미, 특기 같이 업무 외에 자기를 잘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
지속적인 활동	• 본인이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관심사나 역량과 관련된 컨텐츠를 작성하거나 리서치 컨텐츠를 공유. • 지인들이나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자신에 대한 추천 글 요청
관심기업 등록	• 관심 있는 회사를 관심기업으로 등록한 후 회사에서 올리는 컨텐츠를 파악하여 최근에 동 회사가 어떤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파악. 이러한 실시간 정보는 추후 회사 면접 과정에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음
채용공고 확인	• 최근 다수의 호텔들이 BSNS를 통해 구인공고를 하는 기업이 늘고 있음. •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관심 기업 그리고 관심 직무 및 포지션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관련된 채용 공고 및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확인

체크포인트

자력으로 취업에 성공한 한국인 구직자들에게 일부 취업알선업체들이 연락을 취해 와서 자신들이 알선하여 취업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게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횡령하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K-Move 센터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관련 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즉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02 정부의 해외취업 지원프로그램 활용하기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취업 단계별로 정부 기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지원금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 지원절차 등 사업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취업준비단계별 해외취업지원프로그램 현황

구분	추천 프로그램	비고
관심	해외취업센터 상담	월드잡플러스/해외취업센터 (카카오 실시간 채팅상담 / 전화, 이메일, 방문상담, 온라인 화상상담 등)
	· 해외취업 설명회 · 대학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참여방법, 채용정보, 비자정보, 고용동향 등 제공(월드잡플러스 공지사항 참조)
	청년해외진출 K-Move 멘토링	국가┌직종별 멘토가 해외진출 경험과 노하우를 온라인 콘텐츠 형식으로 전달
준비	해외취업 아카데미 (K-Learning, K-Class)(서울/부산/군산/통영 해외취업센터)	이력서 작성법, 면접 준비법, 글로벌 네트워킹 스킬 등 교육(월드잡플러스을 통해 신청)
	역량 강화 온라인강의	월드잡플러스을 통해 외국어, 직무 등 글로벌역량 강화 교육 콘텐츠 제공
	청해진 대학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예비자 과정과 K-Move스쿨, 중장기 통합지원 프로그램
	K-Move스쿨	직무┌어학교육 맞춤형 교육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
도전	공공알선(해외취업센터) 상담	실시간 채팅상담, 전화, 방문상담을 통한 상세상담
	월드잡플러스 구인공고 지원	국내외 K-Move센터를 통해 발굴┌모집된 해외구인기업과 구직자 매칭
	해외취업박람회	(공단, KOTRA, 한국무역협회 등)기업과 구직자의 온┌오프라인 채용 면접을 통해 해외취업 지원
	민간 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국내외 민간알선 기관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매칭
성공	해외 K-Move센터 헬프데스크	해외 17개소(KOTRA,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취업자의 해외정착 지원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	취업자의 조기 정착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금 지급(1, 2, 3차)
	해외진출 성공수기 공모전 지원	해외취업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해외취업 정보와 노하우 제공
	취업자 경력관리 및 이(전)직 지원	월드잡플러스 경력관리시스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취업자의 현지정착 지원, 경력이동경로 파악, 이(전)직 지원 등

01. 해외취업센터

센터에서는 해외 취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시 채용관 운영을 통해 면접을 지원하며, 해외취업 정보제공, 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 역량진단, 설명회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해외취업센터 현황

구분	내용
온라인 상담신청	월드잡플러스->해외취업상담->방문상담예약
서울해외취업센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402호(02.6964.7071~7077)
부산해외취업센터	부산 진구 중앙대로 993, 롯데골드로즈빌딩 610호(051.715.7017~7020)
군산청년 해외취업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내항 1길4, 상공회의소 4층(063.443.1558)
통영청년 해외취업센터	경남 통영시 충렬로 31, 통영청년센터 2층(055.648.6544, 055.649.6544)

해외취업센터 이용정보

구분	내용
해외취업상담	방문, 전화, 이메일, 온라인 화상상담(해외취업 알선 지원) 실시간 채팅 상담(월드잡플러스>해외취업상담>실시간 채팅문의)
해외취업 아카데미 (무료)	해외취업 구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글로벌 인재의 조건, 영문/일문 이력서 작성법, 면접 요령 등 강의) 신청 : 매월 신청 진행, 기수당 정원 50명 내외로 선발
해외취업 알선	구인기업, 구직자 발굴 및 취업 알선
상시채용관	기업의 채용 설명회 및 (화상)면접 장소 제공 해외취업동아리 스터디 공간 제공

※ 아카데미 과정은 수요를 반영하여 유동적으로 운영(IELTS 시험대비반, 독일 취업반 등)

02. 청해진 대학

청해진 대학은 해외 구인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연수과정을 장기적으로 대학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편성·운영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청해진대학 사업 운영기관 현황(2021년 3월 기준)

기관명	국가	연수과정명	연수직종
대구보건대학교	일본	대구보건대학교 치기공전문가 연수과정	의료
동명대학교	베트남	일본 IT (I-Construction) 콘테크 전문가 양성과정(1기)	사무
동명대학교	멕시코	2021년 TU 글로벌 비즈니스 매니저 양성과정(2기)	사무
동의과학대학교	미국	2021년 일본취업 자동차 부품 및 기계설계 과정	기계/금속
동의과학대학교	일본	2021년 일본취업 자동차 와이어하네스 설계과정	기계/금속
백석대학교	일본	5차년도 청해진 대학 미국 특급호텔 경영관리자 육성과정	사무
부산외국어대학교	미국	[청해진_4차] 베트남 무역물류사무직 과정	사무
선문대학교	베트남	선문대학교 일본 IT 프로그래머 양성과정	IT
선문대학교	일본	K-서비스 전문인재 양성과정	서비스
영남이공대학교	일본	일본 취업비자 취득 IT & 자동차 취업 연수과정	IT
영진전문대학교	일본	일본향 웹 모바일 프로그래머 전문가 양성과정	IT
한양여자대학교	일본	일본 스마트 IT 개발자 취업과정	IT

03. K-Move스쿨

K-Move스쿨은 열정과 잠재력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외국어, 직무, 해외문화 및 직장예절 등 구인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K-Move스쿨 사업개요(2019. 11월 현재)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민간)대한민국 국민 중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30%범위 내에서 연령초과자 선발가능)나 구인업체가 요구한 채용조건에 부합하는 자 ▪ (대학)대한민국 국민 중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로서 사업 참여 학교의 졸업자 또는 최종학년 재학 중인자로 연수종료 후 해외취업이 가능한자 ※ 휴학생은 참여 불가 **지원제외대상** ▪ 연수개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공단의 해외취업 연수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는 자 ▪ 연수종료 후 취업률 산정기간 내 졸업 및 해외취업이 불가능한 자 ▪ 연수 참여(예정)일 기준 고용보험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중인 자 ▪ 연수개시일 1년 이내에 8개월 이상 연수 또는 취업 대상 국가에 해외체류 사실이 있는 자(교환학생 체류기간 등 예외 인정) ※단, ①해외 유학생 대상 모집으로 선정위원회를 통해 승인받은 과정 및 국내교육 구성이 연수과정의 50%이상인 과정은 참가가능, ②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예외 인정
연수분야	IT, 경영사무, 외식조리, 무역물류 등 해외취업이 가능한 분야
연수국가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중남미, 중동 등
연수 기간	(단기) 200시간 이상(단, 8주 이상 구성) (장기) 600시간 이상 (트랙 II) 1,000시간 및 10개월 이상 ※ 트랙 II : 1일 8시간 이하/주말 수업 가능
연수 유형	▪ 일자리 확보형 : 구인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연수과정 후 취업으로 연계 ▪ 자격취득 또는 훈련(교육)과정 이수형 : 해당국 부족직군, 기술·기능 및 전문 직종으로 자격취득 또는 해당국 지정 훈련과정 이수 후 취업과 연계 * 호주 유아교육 과정, 필리핀 스킨스쿠버 강사 과정 등 ▪ 도제제도 연계형 : 호주·캐나다·독일 등 도제훈련을 운영 중인 국가의 구인업체에서 도제식 훈련으로 일하면서 배우는 과정 ▪ 특화모델 연계형 ①신시장 개척 연계: 새로운 국가, 직종의 구인수요가 있을 시 연수과정 운영 및 취업 연계 과정 ② 과정평가형 자격 연계: 과정평가형 자격과 연계하여 연수과정 후 취업 연계 과정
지원 금액	(단기) 1인당 최대 580만 원 (장기) 1인당 최대 800만 원 (트랙 II) 1인당 최대 1,350만 원 - (민간) 개인부담금 : 정부지원금의 20% 이내(신흥시장 취업 과정의 경우 10%) (대학) 개인부담금 없음
취업현황	2018년 기준 68.03% (3,560명 중 2,422명 취업)
신청방법	월드잡 플러스 검색 후 지원(일자리찾기-해외연수)

K-Move스쿨 신청 및 취업절차

구분	내용
①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온라인 접수(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등록)
② 모집공고 지원	과정별 모집요강 확인 및 지원
③ 연수생 선발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④ 연수 실시	오리엔테이션 및 연수실시
⑤ 취업 알선	해외기업 알선 및 면접(일반적으로 연수과정 80% 경과 후)
⑥ 사후 관리	연수 종료 후 1년까지

K-Move스쿨 주요과정(2021년 3월 기준)

연수 연도	연수 국가	사업 유형	연수기관	연수과정명
2021	일본	장기	(사)국제경영원	일본 서비스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정(취업연계형)
2021	일본	장기	(사)국제직업능력개발교류협회	일본 취업 웹/모바일 개발자 연수과정2기
2021	일본	트랙 II	(사)한국무역협회	일본 IT SMART Cloud IT마스터 Plus
2021	일본	장기	(사)한국무역협회	일본 IT 41기 SMART Cloud IT마스터 과정
2021	인도	장기	ICS GLOBAL	글로벌 INDIA 비지니스 개발/운영 실무인력 양성과정 5기
2021	미국	장기	가톨릭관동대학교	6기 미국 해외취업 글로벌 물류유통관리자 연수과정
2021	미국	장기	가톨릭관동대학교	5기 미국 해외취업 국제 관광경영관리자 연수과정
2021	싱가포르	단기	가톨릭상지대학교	싱가포르 글로벌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2021	일본	장기	강남대학교	일본IT취업 Java Enterprise Developer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건국대학교 (GLOCAL 캠퍼스)	일본 ICT 전문가 양성과정 2기
2021	베트남	장기	건국대학교 (GLOCAL 캠퍼스)	베트남 제조업 SCM 실무자 양성과정
2021	미국	장기	건국대학교 (GLOCAL 캠퍼스)	미국취업 경영정보시스템 활용 실무자 양성과정
2021	일본	장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일본] JAVA/웹 프로그래밍 전문가 양성과정 2기
2021	캐나다	장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캐나다 유아교사 및 보조교사 전문가 양성과정
2021	미국	장기	경성대학교	경성대학교 [미국] Global 비즈니스 전문가 해외취업 연수과정(6기)
2021	미국	장기	경성대학교	[미국] Global Art Design 전문가 해외취업 연수과정(6기)
2021	일본	장기	경성대학교	[일본] Global IT 융합 전문가 해외취업 연수과정(3기)

연수 연도	연수 국가	사업 유형	연수기관	연수과정명
2021	말레이시아	장기	계명문화대학교	말레이시아 글로벌 기업체 인력양성 연수과정
2021	베트남	장기	국립안동대학교	2021년 베트남취업 품질/생산 중간관리자 2기 연수 과정
2021	베트남	단기	글로벌취업센터	베트남 생산관리 중간관리자 양성과정 2기
2021	일본	장기	남서울대학교	일본취업 자바 웹 프로그램밍 전문가과정 5기
2021	멕시코	장기	대구가톨릭대학교	중남미관리직 취업연수과정(5기)
2021	일본	장기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본 자동차설계 엔지니어(카티아) 취업연수과정(3기)
2021	미국	장기	대구보건대학교	미국 치과기공 전문가 연수과정
2021	미국	단기	대림대학교	미국 특급호텔 셰프 양성과정
2021	미국	단기	대림대학교	미국 특급호텔 호텔리어 양성과정
2021	미국	장기	동명대학교	TU 미국 글로벌 기업 사무 실무자 연수 과정
2021	미국	장기	동서대학교	미국 그래픽디자이너 양성과정(7기)
2021	미국	장기	동서대학교	미국 패션스페셜리스트 양성과정(10기)
2021	미국	장기	동서대학교	미국 IT엔지니어 양성과정(6기)
2021	미국	장기	동서대학교	미국 무역물류프런티어 양성과정(8기)
2021	베트남	장기	동서대학교	베트남 경영지원 전문인력 양성과정(4기)
2021	일본	장기	동서대학교	일본 IT엔지니어 양성과정(5기)
2021	싱가포르	단기	동서울대학교	싱가포르 식음료조리분야 정규취업 연수과정 6기
2021	미국	장기	동아대학교	미국 테크니션 전문가 해외취업과정(10기)
2021	미국	장기	동아대학교	미국 물류무역 전문가 해외취업과정(10기)
2021	미국	장기	동아대학교	미국 비즈니스 전문가 해외취업과정(10기)
2021	미국	장기	동아대학교	미국 디자인 전문가 해외취업과정(10기)
2021	호주	장기	동원과학기술대학교	호주 호텔 조리 & Hospitality 자격증취득 및 취업연수과정
2021	베트남	장기	동의대학교	베트남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과정 2기
2021	미국	장기	동의대학교	미국 기계IT기술 전문가과정 7기
2021	미국	장기	동의대학교	미국 비즈니스 전문가과정 7기
2021	미국	장기	동의대학교	미국 아트디자인 전문가과정
2021	베트남	장기	㈜디앤에스코리아	베트남취업 제조기업 관리자 연수과정(군산)
2021	일본	단기	㈜디앤에스코리아	일본취업 항공 여객운송 연수과정(4월5일)
2021	일본	장기	㈜디앤에스코리아	일본취업 IT엔지니어 전문인력 연수과정
2021	미국	단기	백석대학교	미국 호텔리어 전문인력 양성과정
2021	일본	장기	백석대학교	일본 IT 스페셜리스트 양성과정 6기
2021	일본	장기	백석대학교	일본 IT보안 스페셜리스트 양성과정 5기
2021	태국	단기	백석대학교	태국 Global Sport Protector 전문인력 양성과정

연수 연도	연수 국가	사업 유형	연수기관	연수과정명
2021	필리핀	단기	백석문화대	필리핀, 팔라우 스킨스쿠버다이빙 전문가 연수과정(10기)
2021	홍콩	장기	백석문화대	홍콩호텔관광서비스 해외취업과정(5기)
2021	캐나다	장기	부산가톨릭대학교	치과기공사해외취업연수과정
2021	미국	장기	부산외국어대학교	한미 통번역 비즈니스 실무자 양성과정
2021	일본	장기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본 사무분야 전문가 양성과정
2021	인도네시아	장기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 언어우수자 집중취업 연수과정
2021	베트남	장기	(사)대경워라벨인 재개발협회	베트남 청년 중간관리자 취업지원 연수과정
2021	멕시코	장기	(사)한중남미협회	멕시코 자동차와 전자업종 사무행정 및 생산관리직 양성과정
2021	미국	장기	삼육대학교	Global 디자인 전문가 연수과정
2021	미국	장기	삼육대학교	미국 Global e-Biz 전문가 양성과정
2021	미국	장기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미국 상경8기 물류 포워딩 유통 분야 취업과정
2021	미국	장기	선문대학교	미국 디지털 시각디자인 전문가 과정
2021	일본	트랙 II	소프트엔지니어 소사이어티	일본 IT개발 7기 SW DevOps 마스터 과정
2021	미국	장기	신라대학교	미국 글로벌 테크니컬 실무 전문가 양성 과정 7기
2021	미국	장기	신라대학교	미국 글로벌 비즈니스 실무 전문가 양성 과정 5기
2021	일본	장기	신라대학교	일본 IT 실무 전문가 양성과정 3기
2021	베트남	장기	아데코코리아	베트남 해외취업 글로벌 무역실무 전문가양성과정
2021	호주	장기	연성대학교	호주 조리 자격증 취득 및 취업과정
2021	호주	장기	영남이공대학교	호주 요리사 자격증취득 및 취업연수과정
2021	베트남	장기	영산대학교	베트남 비즈니스/무역/물류인력 양성과정(4기)
2021	미국	장기	영산대학교	미국 Hospitality 전문가 양성과정 (1기)
2021	일본	장기	영진전문대학교	일본 기계자동차설계 전문가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영진전문대학교	일본 자동차자동화 설비설계 전문가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영진전문대학교	일본 전기설비 전문가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영진전문대학교	일본 웹/모바일 엔지니어 전문가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영진전문대학교	일본 전자회로설계 전문가 연수과정
2021	베트남	장기	우송대학교	베트남 삼성협력기업 중간관리자 양성과정
2021	미국	장기	원광보건대학교	북미 디지털 심미보철사 양성과정
2021	호주	장기	원광보건대학교	호주 조리 자격증 취득 및 취업연수과정(Certificate IV)
2021	독일	장기	원광보건대학교	독일 맞춤형 외식조리사 양성 및 취업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월드잡프렌즈	일본취업5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양성과정
2021	일본	장기	월드잡프렌즈	일본취업6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양성과정

연수 연도	연수 국가	사업 유형	연수기관	연수과정명
2021	미국	장기	인하대학교	[우수과정]미국 유통물류 경영지원 관리자 양성 과정
2021	베트남	단기	인하대학교	베트남 수출입 경영지원 관리자 양성과정
2021	일본	트랙 II	제이에스엘인재개발원	글로벌 ICT 전문가 양성과정 트랙 II 4기
2021	일본	트랙 II	제이에스엘인재개발원	글로벌 ICT 전문가 양성과정 트랙 II 5기
2021	일본	장기	제이에스엘인재개발원	[우수과정] 하이브리드 소프트웨어 전문가과정 49기
2021	일본	장기	제이에스엘인재개발원	[우수과정] 하이브리드 소프트웨어 전문가과정 50기
2021	일본	장기	제이에스엘인재개발원	[우수과정] 하이브리드 소프트웨어 전문가과정 51기
2021	베트남	장기	㈜제이엠피코리아	베트남 유통 및 무역 & 생산관리자 취업과정 3기
2021	미국	장기	조선대학교	미국취업 국제경영인 양성 및 경력개발과정 6기
2021	미국	장기	조선대학교	미국취업 국제 품질관리 실무자 양성과정 1기
2021	대만	단기	㈜네모아이엔씨	대만 뷰티헤어 실무자
2021	대만	단기	㈜네모아이엔씨	대만 뷰티미용 실무자
2021	일본	단기	㈜더드림버스	일본 항공 여객 운송서비스직 취업과정 1기
2021	베트남	트랙 II	㈜드림힐	[트랙 II]베트남 제조기업(전자/자동차) 중간관리자 취업연수 4기
2021	중국	장기	㈜드림힐	중국진출 한국기업 사무관리직 11기
2021	멕시코	장기	㈜드림힐	중남미 중간관리자(자동차/전자)취업연수과정 3기
2021	미국	장기	㈜리얼스톤	미국 취업 e-Biz 실무자 양성과정 2기
2021	미국	단기	㈜사이다링크	2021년 해외취업 아마존 글로벌셀러 양성과정
2021	일본	장기	㈜글로벌인	[우수과정] 21년 1차 일본취업 호텔 및 리조트 매니저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글로벌인	[우수과정] 21년 1차 일본취업 Java 및 Big Data 개발자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글로벌인	[우수과정] 21년 2차 일본취업 호텔 및 리조트 매니저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글로벌인	[우수과정] 21년 3차 일본취업 호텔 및 리조트 매니저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글로벌인	[우수과정] 21년 2차 일본취업 Java 및 Big Data 개발자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글로벌인	[우수과정] 21년 3차 일본취업 Java 및 Big Data 개발자 연수과정
2021	사우디	장기	㈜코사솔루션	[우수과정]2021년 제14차 사우디 왕립병원 및 협력국립병원 간호사 취업 연수과정
2021	사우디	장기	㈜코사솔루션	[우수과정]2021년 제15차 사우디 왕립병원 및 협력국립병원 간호사 취업 연수과정
2021	베트남	장기	㈜아르케	베트남 디지털경영관리자 양성과정
2021	일본	장기	㈜아르케	일본 멀티미디어융합IT개발자 양성과정
2021	미국	장기	㈜아이씨엔그룹	미국 경영정보전문가 양성과정 7기

연수 연도	연수 국가	사업 유형	연수기관	연수과정명
2021	미국	장기	㈜아이씨엔그룹	미국 기업맞춤형 품질공정관리 엔지니어 양성과정 5기
2021	베트남	장기	㈜외대어학연구소	베트남 Global biz 전문가 양성 과정
2021	미국	단기	㈜워싱턴국제교류센터	제6차 글로벌 패션에디터 생산기획MD관리자 연수과정
2021	미국	단기	㈜워싱턴국제교류센터	7차 글로벌 패션에디터 생산기획MD관리자 연수과정
2021	미국	장기	㈜커리어	2021년 미국취업 Google 디지털 마케팅 실무자 운영과정 2기
2021	미국	장기	㈜커리어	2021년 미국취업 산업경영 중간관리자 양성과정
2021	미국	단기	㈜피제이넥서스	미국취업 국제무역물류전문가(CITLS)연수과정 2기
2021	일본	장기	㈜한국능력개발교육원	일본 JAVA 웹개발자 4기 연수과정
2021	중국	장기	㈜해성인재개발원	21 중국취업 중간관리자 연수과정 (제3기)
2021	일본	트랙 II	㈜현대CAD디자인직업 전문학교	일본 글로벌자동차 3D설계엔지니어(트랙II 4기)
2021	일본	장기	㈜현대CAD디자인직업 전문학교	일본 3D자동차부품기계설계 10기
2021	일본	장기	코세아인재개발원㈜	일본 웹프로그램개발전문가 연수과정 34기
2021	일본	장기	코세아인재개발원㈜	일본 웹프로그램개발전문가 연수과정 35기
2021	사우디	장기	팍시아 주식회사	2021년도 제3차 사우디 보사부 국립병원 및 협력병원 간호사 취업 연수
2021	미국	장기	한국교통대학교	미국 빅데이터 기반 경영시스템 실무자 양성과정
2021	베트남	트랙 II	한국능력개발직업전문 학교	베트남 한국기업 생산성향상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2021	호주	장기	한국영상대학교	호주 호텔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
2021	베트남	장기	한국표준협회 전북지역본부	베트남 품질·환경·안전 중급관리자 과정
2021	미국	장기	한남대학교	미국 경영지원 실무행정인력 양성과정 7기
2021	미국	장기	한성대학교	미국 퍼포먼스 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
2021	싱가포르	단기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싱가포르 호텔실무자 취업연수과정 18기
2021	미국	단기	㈜해외인턴쉽교류센터	[미국] 글로벌 패션분야 전문가 24기 해외취업연수과정
2021	영국	단기	㈜해외인턴쉽교류센터	[영국]디지털 컨텐츠 디자인 과정 2기 해외취업 연수과정
2021	일본	트랙 II	㈜헥사곤지엠아이	2021년 일본취업 기계/자동차설계 엔지니어 전문가 연수과정 (5기)
2021	일본	단기	㈜헥사곤지엠아이	2021년 일본취업 공항지상직 연수과정(6기)

연수 연도	연수 국가	사업 유형	연수기관	연수과정명
2021	베트남	장기	㈜헥사곤지엠아이	2021년 베트남 국제무역 및 생산/품질 관리자 연수과정(2기)
2021	베트남	장기	㈜헥사곤지엠아이	2021년 베트남 국제무역 및 생산/품질 관리자 연수과정(3기)

04. 민간 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해외취업은 민간 해외취업알선 기관(리크루트사)을 통하여서도 가능하다.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은 기관 중에서 월드잡플러스를 통하여 해외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이 성사된 경우 구직자를 대신하여 공단에서 알선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05. 취업자 경력관리 및 이(전)직 지원

경력관리시스템(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자의 직무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개인별 경력관리 플랫폼

설문조사

해외취업자의 취업만족도, 직업이동경로, 희망서비스 등 조사

→

- 해외취업자의 체계적인 경력관리 지원
- 해외취업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사업 활성화

→

향후 계획(예정)

- 국내 재취업 등 이(전)직지원

향후 계획

- 패널조사를 실시하여 해외취업자의 직업이동경로를 장기적으로 파악

체크포인트

경력관리시스템은 역량개발 및 직무경험을 구직 단계부터 취업 후 국내 복귀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력관리 플랫폼으로 해외취업 준비자, 취업자, 취업 후 국내복귀자 등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다.

03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은 월드잡플러스를 통한 사전 구직등록 이후 해외취업에성공한 청년들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해 공단에서 취업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이다. 자격요건, 지원절차, 지원금액 등 사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내용

구 분	지원금액	지원방식
지원금 우대국가	600만원	(1차) 취업후 1개월 : 300만원 지급 (2차) 취업후 6개월 : 100만원 지급 (3차) 취업후 12개월 : 200만원 지급
선진국 분류국가	400만원	(1차) 취업후 1개월 : 200만원 지급 (2차) 취업후 6개월 : 100만원 지급 (3차) 취업후 12개월 : 100만원 지급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후 승인 순(선착순)으로 지원
※ 지원금우대국가 : 선진국 분류 25개국을 제외한 동남아,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
- 선진국 분류국가: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홍콩

지원대상 및 취업 인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① 만 34세 이하인 자 ②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합산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 ③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 후 취업(근로계약서 작성)한 자
취업 인정기준	① 취업비자 : 해당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한 비자(취업국가 영주권자 또는 배우자 비자 소지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 - 워킹홀리데이비자는 공단사업(취업알선, 연수사업)을 통한 취업자만 인정 ② 취업직종 : 단순노무직종 제외 - 청소원, 세차원, 주유원, 가정부(가사, 육아도우미) 등 ③ 임금수준 : 연봉 1,600만원 이상 ④ 근로계약기간 : 1년 이상

체크포인트

(1) 취업 전에 반드시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만 해외취업 후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은 '월드잡플러스-마이페이지-정착지원금 신청하기'메뉴에서 하세요.
(3) 신청 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취업사실확인(K-Move/EPS센터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을 받아야 하며 K-Move/EPS센터 확인은 월드잡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1차 지원금은 근무 시작 1개월 이후부터 4개월까지, 2차 지원금은 동일기업에서 근무시작 6개월 이후부터 8개월까지, 3차 지원금은 근무시작 12개월 이후부터 14개월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5) 정착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월드잡플러스 경력관리시스템에 본인의 취업경력(취업처, 재직기간 등)을 입력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PART

04

해외취업 사례

01

성공사례

-

02

일본 현지 인사담당자와의 인터뷰

성공사례 이

잡은 지푸라기가 내 길이었던 노스펙 지방대생

- 출처 : 2020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수상작품집(장재영, 장려상)

지방대학교 무역학과 4학년 2학기 학점 3.9, 미래에 대한 준비 하나 없이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처해진 내 상황이었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 몇 개와 공인 어학점수라고는 대학 졸업 최소 조건을 위한 TOEIC 600점을 가까스로 넘는 점수뿐이고, 비교적 높아 보이는 학점은 지방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한국의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만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학기에 성공취업 준비라는 교양 과목을 수강했다. 수업을 들으며 취업 관련 경험이 많으셨던 교수님과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몇 번에 걸친 상담 끝에 전공인 무역학을 과감히 포기하고, 어렸을 때 컴퓨터 공부에 두각을 나타냈던 경험을 살려 개발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지만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 이 시점에 무엇을 어디서부터 다시 손을 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워낙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좁았고, 정보도 부족했기 때문에 단순히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치는 학원을 다녀야겠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교수님께서 월드잡플러스라는 사이트와 함께 연수를 마치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과정을 설명해 주셨다. 사실 해외로의 취업은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개발자의 길을 과연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타국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 하고 내심 걱정부터 들었다. 그러나 교수님의 설득과 월드잡플러스 사이트를 통한 정보들을 보고 나니, 이내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 또한, 일본이라는 나라는 거리적으로도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었다. 이미 일본에 진출해 있는 선배들도 많고 정보도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부담이 크지 않았던 것 같다. 조금씩 계획이 구체화되어가면서 그동안 무기력하게 살아오기만 한 나 자신을 스스로 다그치며 혹독하고 외로울 그 길을 완주해내고야 말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졸업 시점과 맞물려 시작하는 JSL 인재개발원 센터의 해외연수과정 공고가 올라왔고, 그렇게 해외진출을 위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학교 졸업과 맞물려 시작되는 연수 과정이었기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부랴부랴 연수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MOS 등의 자격증은 취득해봤지만 웹 개발자로서의 지식과 일본어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었다. 연수원 동기들은 컴퓨터를 전공했거나, 일본어를 전공했거나 하는 친구들이 많았기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독기를 품고 연수에 임했다. 집에서 연수원까지는 약 1시간 30분이 걸렸지만 연수가 끝날 때까지 기상 악화가 있지 않는 한 항상 수업 시작 1시간 전에 도착해서 수업 준비와 복습을 했다. IT 강사님께서도 일찍 나오셔서 질문을 다 받아주시면서 나를 최대한 이용하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감사하게도 그 시간을 최대한 이용했고 후에 남들보다 더 앞서나가는 발판이 될 수 있었다. 수업 시간에는 이 순간은 지금뿐이다 라는 일념으로 최대한 많이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 지식들을 동기들과 나누고 공유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다. 팀 프로젝트 때에는 마음이 맞는 동기들과 팀을 만들어 진행했는데, 그 안에서의 역할 분담은 분명히 있지만 팀에 조금 더 도움이 되기 위해, 또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위해 그냥 내가 몇 발자국만 더 걷자는 생각으로 자료 수집과 데이터 기반 만들기, 개발 환경 세팅 등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완성도를 높였다. 이와 같이 매일 매일을 독하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더뎌지는 동기들을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는 내 실력과 역량이 더욱 상승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연수원에서는 일본 취업 시 필요로 하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위한 방과 후 교실도 마련해 주었다. 나는 해당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에 연수수업이 끝나고 시작되는 자격증 수업을 빠지지 않고 들으며 집에 돌아가서 새벽까지 공부를 했다.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은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전산 용어,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지식을 모두 요구했기 때문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많았다. 열심히 공부한 결과,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을 모두 취득할 수 있었다.

일본어도 연수원의 체계적인 커리큘럼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었다. 히라가나도 모른 채 시작해 갈 길이 멀었지만 수준이 비슷한 동기들끼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평소에 말을 할 때에 일본어를 한, 두 마디 섞어서 말하게 되고, 일상회화, 비즈니스 회화, 면접 준비 등을 거치면서 역할별 상황극도 해보며 차츰차츰 나아갔다. 동기들과 문자를 할 때에도 서투르지만 일본어로 해보고, 전화를 할 때에도 일본어로

말하며 웃고 떠들었던 경험들도 다 어학 능력 상승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연수기간의 최대 장점은 꼭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일본어를 잘하는 동기들이나, 쉬는 시간 복도에서 만나게 되는 일본어 강사님들께 언제라도 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처음에는 막막하기만 했던 일본어가 어느새 조금씩 들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해외진출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씩 옅어져 갔다.

연수원에 있는 동안 무수히 많은 회사에서 설명회를 왔다. 하지만, 내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회사는 연수원 수료 한 달 전까지도 보이지 않았다. 동기들 중에는 다가오는 수료 날짜에 대한 압박감 때문인지 원치 않는 회사일지라도 일단 어디라도 합격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무턱대고 면접을 보는 동기들도 많았다. 물론 나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해 온 만큼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생각이었고, 그런 마음이 전해진 것인지 내가 원하는 조건에 딱 맞는 회사가 나타났다. 나는 그 한 회사만을 생각하며 면접을 준비했고, 일본어 면접에 크게 자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라는 사람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고, 감사하게도 그 첫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었다.

회사 입사 확정 후 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EMS로 발송하고 비자가 발급되기만을 기다렸다. 비자 발급까지는 약 두 달 정도 소요되었는데, 동기 중에는 네 달 이상이 걸린 경우도 있어서 회사 입장에서나 입사예정자들의 입장에서나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았다. 특히나,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이나 일본어 어학 자격증 보유 유무와 상관없이 비자 발급 기간이 서로 상이한 것 같아서 그저 자신의 비자 발급 담당자가 잘 걸리기를 바라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았다. 비자 발급에 관한 기준 및 확인 절차가 있을 테지만 비교적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 아무래도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끌어올릴 수 있는 어학의 한계가 있었는지 일본에 오고 나니 편의점에서 점원분이 하는 말도 알아듣기가 힘들었다.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왔지만 막상 실전에 부딪치니 어학의 부족함에서 오는 압박이 너무 크게 느껴졌다. 처음에 일본에 와서 느낀 공허함은 회사 기숙사의 내 방으로 비유할 수 있다. 처음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없던 차가운 방처럼 내 마음도 추운 공허함으로 가득 찼었지만, 방에 책상이 생기고, 의자가 생기고, 사람들을 사귀고, 소통하며 아늑한 보금자리로 변해갈 때쯤 내 마음도 공허함에서 점점 온기로 채워지지 않았나 싶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일본에 있지만 한국인 위주의 회사이다 보니 첫 프로젝트는 어학 능

력이 그리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를 기회로 생각하고 퇴근 후에도 한국에서와 다를 바 없이 일본어 공부에 몰두했다. 실제 현장의 설계서에 쓰이는 일본어들은 처음 보는 단어도 많고,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성에 맞게 어느 정도 정형화된 문법이나 형식이 있어서 그것에 익숙해지도록 공부했다. 실제 일본인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추는 것을 1순위로 생각했다. 그렇게 차츰 일본 생활, 문화에 적응하며 부족한 나 자신을 위해 주말에도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다음에 간 프로젝트 현장은 일본의 현장이었다. 앞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도움이 컸는지 일본 현장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의 업무는 듣던 대로였다. 일본인들은 정말 체계적이고 팀 내부의 정보 공유와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하고, 아주 작은 수정사항이나 작업 내용일지라도 반드시 보고하고 문서로 남긴다. 이는 내 성격과 아주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어학 능력이 부족해서 일본인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적은 꽤 많았다. 다행히 아주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았었지만 스스로 일본에 온 만큼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도 언어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앞이 보이지 않던 대학교 마지막 학기에서 부랴부랴 달려와 보니 벌써 일본에 온 지 1년이 넘었다. 평생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임을 실감하고 있는데, 개발 공부가 싫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이 길을 가야 할 운명인 것처럼 느껴졌다. 개발이라는 것이 아무리 해도 어렵고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싸움처럼 느껴지지만 이 과정이 즐겁다. 나는 현재 HTML + CSS + JavaScript + jQuery를 이용한 프런트엔드 개발과, Java + Spring Framework + PostgreSQL DB를 이용한 백엔드 개발을 하고 있고, 간단하면서 강력한 코딩을 하기 위해 매일 같이 알고리즘 문제 풀이와 코드를 더욱 알기 쉽게 내부 구조를 개선하는 Code Refactoring을 연습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해당 언어들이 많이 사용되어서 한국에서의 개발 방식과의 차이를 배우고 이해하고 있다. 위 언어들을 중점으로 하면서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는 엑셀 VBA나, 각종 개발 툴들을 공부하고 싶다.

또한, 일본은 코딩보다는 상위 공정인 설계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설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직 코딩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하는 단계이지만 나중에는 좋은 설계서를 작성하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팀원들과 힘을 합쳐 이끌어나갈 수 있는 프로젝트 리더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

성공사례 02

두려움을 떨치고 도전하자

- 2019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수상작품집(장준수, 대상)

해외취업 도전 계기/동기, 경로

대학 시절, 1년 동안 도쿄에서 유학한 경험이 자연스럽게 일본 취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유학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일하고 있던 지인 덕분에 일본 취업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고, 저 역시도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하였기 때문에 일본어를 사용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졸업 후 일본 건설회사에서 일본어 통역 및 번역 담당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통역업무 외에도 무료 홈페이지 제작 사이트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해 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이트의 기능을 사용해서 레이아웃 설정 및 기능 지정을 하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하게 되었고, 이런 호기심은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직접 홈페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고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한국에 귀국하여서 한 교육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오카은행의 첫 해외 채용에 대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방 은행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이 흥미로웠고, 개발 담당 직원을 한국에서 채용한다는 점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코딩 테스트와 2번의 면접을 통해 인턴에 합격하게 되었고, 후쿠오카에서 2주간 인턴으로 일하며 회사를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2주간의 인턴 생활을 통해 이곳이라면 내가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후쿠오카은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취업 준비과정

저는 해외취업을 두 차례 준비할 당시 수도권지역이 아닌 지방에서 해외취업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었고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정

보를 취득해 왔습니다. 그중 가장 도움이 된 곳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와 네이버 KOTRA 카페였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지방에 있으면서도 불편함 없이 취업 박람회나 취업 관련 이벤트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문의를 드리면 친절하게 답변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 해외취업캠프를 지방에서도 개최해주어서 대전에서 하는 캠프에 참가해 이력서 작성법을 배우고 모의 면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정보를 얻어 가며 일본어 이력서를 작성해 나갔습니다. 특히 이력서를 일본어로 작성할 때 뜻밖에 도움이 됐던 것은 번역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저는 번역기를 반대로 사용했는데, 가능한 한 많이 일본어로 작성한 후 그 문장을 반대로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번역 결과 한국어가 어색하거나 내가 원했던 문장이 아닌 경우를 찾아 수정해나갔습니다.
특히 면접을 가장 많이 준비했습니다. 면접은 거의 일본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습일지라도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을 보며 몇 번이고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철저한 준비 덕분에 면접에서는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취업성공 노하우

첫 번째, '일본어 공부'입니다. 우리가 제2외국어나 TV 등에서 접하는 일본어와 회사에서 사용하는 일본어는 많이 다릅니다. 존경어 외에 겸양어, 정중어 등이 있고 상황에 따라 높여야 하는 대상이 바뀌는 등 어려운 문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어 책과 더불어 회사 생활이 많이 나오는 일본 드라마를 보면서 경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만들자' 입니다. 저는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면서 학원에서 배우고 끝낸 것이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 배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했습니다. 이 경험은 공부한 것을 복습하면서 만들어 갔기 때문에 면접 때의 기술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할 수 있었고, 공동 작업을 통해 협동심과 능동성을 배워 ㈜후쿠오카은행 인턴 당시 다른 인턴들을 이끌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 알자' 입니다. 이력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지원할 회사와 지원할 포지션에 관련된 사업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이력서에 반영하여 작성하거나 면접 때 역질문을 통해 어필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회사에서는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대해 알고 있고 관심이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사 후 적응방법 및 회사생활

저는 2019년 1월 4일부터 ㈜후쿠오카은행에서 근무하였고 사업전략부의 오픈이노베이션추진그룹에 속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저희 팀의 주된 업무는 사내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아이디어를 프로그램화하는 것입니다.

팀에는 전통적인 은행 업무와는 달리 새로운 업무가 많이 있어 기존의 은행원과는 다른 직종의 사람들이 많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신입이기 때문에 일하면서 배우고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팀에 합류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은행이지만 새로운 일을 하는 부서답게 딱딱하지 않은 분위기와 더불어 첫 해외채용이기 때문에 다른 팀원이나 부장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어려움 없이 회사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지 정착 애로사항 및 극복과정

회사에서 비자를 늦게 신청해 1월 4일 입사인데 12월 24일에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연말연시에 관공서 및 은행이 쉬고, 처리가 오래 걸리는 일본 시스템으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회사에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바삐 움직여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날까지 주소 등록, 휴대전화 개통, 통장 개설 등을 무사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 입국할 때는 여유를 가지고 입국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일본 생활을 시작하려니 가장 필요한 것은 생활비였습니다. 입사하기 전에 어느 정도 모아둔 돈을 환전해 가지고 왔지만, 생각 외로 돈을 사용할 곳은 많았고 월급도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해외취업자에게 지급하는 해외취업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고 지원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

니다. 생활비 걱정을 덜고 나니 그 후 찾아오는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후쿠오카는 처음이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싶었지만, 입사를 1월에 했기 때문에 동기가 없었고 후쿠오카에서는 한국인 커뮤니티를 찾을 수 없어서 따로 이야기하거나 놀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때마침 KOTRA 후쿠오카 무역관에서 규슈 지역 내정자 멘토링을 개최해주었고 규슈 지역에 일하는 다른 한국인들을 만날 수 있어서 외로움을 덜 수 있었습니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국내 청년들에게 전하는 한마디

국내에서 취업이 잘 안 되니 해외에서 취업해야 한다는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해외취업을 희망한다면 해외취업 후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자신이 왜, 무엇 때문에, 해외에 취업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보고 파악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하고 싶은지 파악하고 그에 관한 공부를 한다면 자신의 전공이 아니더라도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사례 03

스물여덟, 일본취업이라는 새로운 여행을 나서다

- 출처 : 2019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수상작품집(이승희, 장려상)

이렇게 무난하게만 살아도 될 것인가

전공으로 하는 일이 아닌,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을 하는 기분은 어떨지, 진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회사를 다니며 받은 휴가들로 국내, 국외 가리지 않고 갔던 여행이 생각났었고, 해외는 일본만 갔었던 내가 떠올랐다. '일본에 여행이 아닌, 생활을 한다면, 일을 한다면 어떨까!' 가슴 속 설렘이 가득 찼다. 27살이라는 어리지 않은 나이임에도 퇴사를 결정하고, 무작정 인터넷에 '일본 취업하는 방법', '일본에서 생활하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일본취업과 관련된 박람회도 지역 구분 없이 다니곤 했는데, 유학 취업 박람회에 가서 나이가 많아서 힘들다는 말만 들었다. 역시 너무 늦은 걸까 싶었지만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고 취업하거나, 배울 수 있는 과정을 더 열심히 찾아보았다.

당시 나는 월드잡플러스에서 본 수많은 공고에 지원할 수도 없는 자격이었지만, 여행 관련 업종의 공고들을 인쇄해서 방에 하나씩 붙여보기 시작했다. 공통적인 지원요건으로는 '언어와 비자 취득에 결함이 없는 자'가 명시되어있었다. 당장 일본어 학원부터 다니며, 하루에 한 번씩은 공고를 확인했다.

그때 마침 해외연수 'K-Move스쿨 일본 국제공항지상직 해외취업 연수과정'을 보았고, 단숨에 지원했다. 4개월이라는 연수 기간 동안 연수를 받고, 해외 취업까지 도와준다니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다. 면접 때 부족한 일본어는 반드시 4개월 안에 제대로 준비할 것이며, 누구보다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절실함을 강조했었다. 그렇게 연수에 합격하고 4개월간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연수받는 동안 일본인 선생님이 알려주는 비즈니스 일본어와 경어를 배우고,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는 일본 생활 이야기에 일본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연수에 합격하고 4개월간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연수 과정 중 보충 수업도 진행하며 본인이 일본어를 조금 더 공부하고 싶거나 본인의 서류를 검토받고 싶을 때 선생님들께서 따로 시간을 내 더 봐주시곤 하셨다. 연수 생활 중에도 일본어 회화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일본어 전화를 신청하여 대화를 나누고는 하였는데, 생각해보면 지금 일본에 와서 길을 묻거나, 정기권을 만들거나, 마트에 가거나, 무언가를 구입할 때 사용하고 있는 일상생활에 쓰이는 말들은 이때 많이 늘었던 것 같다.

공항 영어 시간에는 상황극을 하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영어가 쓰이는지를 배웠고, 연수생들끼리 직원과 고객을 번갈아 역할하며 상황이해도 빠르게 되었었다. 또한 항공 업종에서 근무하신 영어 선생님과 CRS(항공권 예약, 발권 자격증) 선생님께서는 실제 업무 하며 겪었던 경험담이나, 업무환경에 대하여 많이 알려주셨다.

근무 해 보셨던 분들이라 어떤 약어가 많이 사용되는지, 실제 업무 시 사용하는 프로그램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공항 지상직은 하나부터 준비하던 나에게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다.

K-MOVE 연수과정을 통하여 일본 취업 준비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간 기분이었다.

K-Move스쿨 연수 과정을 통하여 일본 취업 준비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간 기분이었다. 특히나, 자기소개나 면접을 준비하며 '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기회였다. 나에 대하여 많이 알수록 면접에 자신감이 생겼었다.

연수 기간 중에도 일본어 조건을 충족한 연수생이나 면접 희망자에 한하여 실제 일본 기업 면접을 볼 수 있었다. 연수기관인 헥사곤GMI에서 매달 알려주시는 면접 정보로 준비하며 여러 번 지원도 했었다. 나는 면접을 한 번에 붙지 못했었다. 늦은 일본어 준비와 스카이프 면접에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2018년 10월부터 시작한 4개월의 연수가 끝나고도 연수기관에서는 면접 정보를 계속해서 주셨다.

2019년 2월 또 한 번의 면접 기회가 왔다. 일본에 취업하려는 이유와 가족들은 해외 취업을 동의하는지, 공항 지상직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일본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일하고 싶은 공항이 있는지 다양한 질문들이 오가며 면접을 마쳤고, 조업사 株式

會社 NAOS에 합격할 수 있었다. NAOS는 도쿄에 본사를 둔 신생 회사였지만, 직원 복리후생도 좋았고 일본에서 큰 조업사인 FMG의 자회사로 큰 성장이 보였던 회사였다. 그래서 NAOS와 같이 성장하고 싶었다.
공항 지상직은 항공사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보다, 지상직 관련 조업사에서 해당 항공사를 핸들링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NAOS에 합격한 나는 홋카이도 신 치토세 공항 제주항공에서 근무를 배정받게 되었다.

지금 내가 하는 업무는

지금 내가 하는 업무는, 신 치토세 공항에서 제주항공을 이용하여 인천과 부산으로 가시는 고객님들의 체크인 수속과 탑승권 발권, 수하물 위탁과 관리, 탑승 전 게이트에서 탑승권 확인을 주로 맡고 있다.
여행이 좋았던 내가 이제는 여행을 가시는, 여행을 끝내고 오신 고객님들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안내자가 되었다. 공항에 온 순간부터 공항을 떠나는 순간까지 고객님들의 여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기에, 이 업무가 무척이나 즐겁고, 조금 더 친절하게 안내하려 노력하고 있다. 고객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일본에서 한국인 봐서 좋네' 라던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에 큰 응원을 받은 것처럼 기쁘게 근무하고 있다.
아직도 부족한 일본어 탓에, 지금은 알려주시는 말을 그대로 외워서 하고 있지만, 노력하는 모습에 선배님들도 많이 알려주시려 하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셔서 내일은 어떤 새로운 업무를 할지, 어떤 고객님을 맞이하게 될지 출근하는 길이 설렌다.
요즘도 내가 그 순간 그대로 한국에 있었다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이러한 설렘, 타국에서의 생활과 취업을 마냥 꿈으로만 꾸고 있을 나에게 오늘도 이러한 선택을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는 한다. 지금 직장에서도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일을 할 수 없는 나이는 아니었다. '무언가를 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 지금 이렇게 내가 증명하고 있으니까!

埼玉屋
日本の酒
月桂冠
禁煙
やきとり
もりもり

01. Bryza (인사담당자 이호성님)

Q. 귀사는 어떤 기업입니까?

제조업 특화형 아웃소싱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으로는 설계, 평가해석, 생산기술 등 개발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HV 및 EV의 배터리 관련 개발 영역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기업에게 프로젝트를 의뢰받을 정도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게 특징입니다. 또한, 2016년도부터 신입사원 채용을 강화하여 교육 및 연수를 통하여 프로페셔널한 기술자로 육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Q. 최근 일본(국가명)의 채용시장은 어떤가요?

코로나가 확산 된 초기엔 온라인 채용 방법이 정비되지 않은 점과 대면 면접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채용 인원수의 급감이 눈에 띠었습니다. 다만, 22년도 3월 졸업자 대상의 채용시장은 온라인 채용 방법이 자리잡아,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채용시장도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Q. 귀사의 외국인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 알려주세요.

현재 한국의 대학 및 기관 약 10곳과 협약을 맺고 있으며 협약교 및 기관에 별도 설명회 및 면담을 진행하며 채용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인재 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KOTRA 온라인잡페어에도 매번 참여하여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형은 크게 3가지로 진행되며 1차면접 > 적성검사 > 최종면접 을 통하여 최단 1개월안에 내정을 통지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한국인을 채용한 경험이 있는지와 한국인을 채용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 인재의 채용은 2016년부터 확대하여 매년 30~50명의 인재를 채용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 인재는 약 100명 전후이며 코로나로 인한 입국 제한 완화 후의 입국예정자는 약 50명정도로 한국인재 채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 인재 채용이유 첫 번째로, 언어 능력이 높다는 점입니다. 한국어와 일

본어엔 비슷한 부분이 많아 타 국적의 인재에 비해 같은 시간 대비 언어 습득력 및 전달력이 높은 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진취적인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인재는 맡겨진 일을 수행해 내는 것은 물론,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는 점, 본인의 업적을 평가받기 위해 완벽한 결과물을 내고 싶어하는 등 능동적으로 업무를 하는 특성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Q. 어떤 직무에서 한국인을 채용하고자 하시는가요?

채용 직무 중 90%이상은 '기술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가전, 반도체 관련 업계에서 설계개발, 실험 및 평가 해석,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 업무를 담당할 한국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기업의 특징으로, 한가지 분야에만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에서 기술력을 쌓아, 어느 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도록 사내에서도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Q. 급여 수준, 근무시간, 복리후생 등 전반적인 근로조건과 근무여건은 어떠한가요?

급여 수준은 월 20~21만엔 선으로 업계 평균 정도 입니다. 당사의 특징을 꼽자면 워라벨에 충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무처 및 시기에 따라 잔업을 하기도 하나 평균 월 20시간 정도로 적은 편이며 자기계발 및 취미를 즐길 수 있는 환경입니다. 또한 복리후생 중 집세 50% 지원이 있어 거주 비용의 부담도 적으며, 자격수당이 있어서 회사에서 정한 자격증 취득 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격 수당은 한번 취득 시 급여와는 별도로 매월 지급되며 상한 5만엔까지 지급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노력으로 연봉을 60만엔까지 올릴 수 있으므로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Q. 외국인 채용 시 귀사가 원하는 인재상 혹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지요?

당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능력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단순히 언어적으로 뛰어난 것이 아닌, 언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상대방과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고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웃소싱은 기술 서비스업 이라고도 불리는 데 기술력만으로는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직원들과 조화를 이루는 부분도 평가요소이므로 외향적,

내향적인 성격 관계없이 요즘 말로 '티키타카'를 잘하는 인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Q. 한국 청년들이 일본 취업을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한국과 일본 취업준비생의 면접으로 비교해보자면 자격증, 대외 활동 등 학업 외 활동은 한국인이 조금 더 적극적인 편입니다. 물론 면접에 지장이 없는 일본어 구사 능력이 전제가 되지만, 전공지식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왔고 자기계발을 위해 힘을 쓴 부분 등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 필살기를 한개 이상 준비할 수 있다면 면접에서 분명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Q. 일본 취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지요?

일본 채용 시장에는 '내정 승낙' 혹은 '입사 승낙'의 절차가 있습니다. 최종 합격 후 그 회사에 반드시 입사하겠다는 승낙서로 한국 기업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인재의 경우 입사승낙서의 의미에 대해 깊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선 승낙을 하고 다른 회사의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등의 행동은 일본내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문화이므로 일본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한국인이라면 더 나은 선택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절차를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추후 일본 취업을 꿈꾸는 후배들에게도 선순환이 되어 한국 인재가 일본에서 활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 입니다.

02. 아시아정보시스템(인사담당자 이혜원님)

Q. 귀사는 어떤 기업입니까?

아시아정보시스템은 2004년8월에 일본 도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당사는 한국과 일본의 가교역할은 물론 최신기술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서 고객의 만족도 향상과 최신기술을 습득 할 수 있도록 사원들의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Q. 최근 일본(국가명)의 채용시장은 어떤가요?

최근 몇년전부터 일본기업들도 한국인들의 뛰어난 기술력과 어휘력을 높이 평가하여

한국인채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외국인채용을 중지한 회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대학의 학생들은 3학년 때부터 대부분 취업처가 결정되기에 한국의 대학생들보다는 취업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귀사의 외국인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 알려주세요.

당사에서는 각 대학 및 교육기관 ,코트라등에서 개최하는 채용이벤트에 참가하여 한국인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진행방법이 틀리지만 대표적으로는 회사설명회실시 ⇒ 지원자 이력서 입수 ⇒ 서류선고 ⇒ 1차~3차 면접 ⇒ 내정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 ⇒ 입국 ⇒ 입사의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한국인을 채용한 경험이 있는지와 한국인을 채용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사에서는 매해 20명~40명의 한국인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사원은 적응력도 빠르고 무엇보다 기술력이 일본인사원에 비해 월등하게 높습니다. 일본인 신입사원과 한국인 신입사원을 기술적으로 비교하면 한국인 사원이 약 2년 정도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어떤 직무에서 한국인을 채용하고자 하시는가요?

당사에서는 개발부문, ICT서비스 부문, 관리부문 전부문에서 한국인을 채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개발부문,ICT서비스부문의 증원이 필요하여 각 분야에서 한국인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급여 수준, 근무시간, 복리후생 등 전반적인 근로조건과 근무여건은 어떠한가요?

급여 : 신입사원(4년제졸)의 경우 월24만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년도 급여는 다른 한국,일본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무시간 : 본사는 플렉스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객상주사원들은 현장기준에 맞춰 근무하고 있습니다.(1일 7시30분~8시간)

복리후생 : 복리후생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는게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참조 : https://www.ais-info.co.jp/recruiting/welfarebenefits_kr.html)

Q. 외국인 채용 시 귀사가 원하는 인재상 혹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지요?

당사는 신뢰를 중요시 하는 인재,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인재,리더쉽과 포용력이 있는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사원 채용시에는 무엇보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외국어능력 포함)이 우수한 인재인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아무리 개발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하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전부 보여줄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한국 청년들이 일본 취업을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해외에서 생활을 하게 되기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나라의 언어라고 생

각합니다. 아무리 성격이 외향적이라고 해도 모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많이 외로울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모험심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Q. 일본 취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지요?

한국인과 일본인의 외모가 아무리 비슷하다 하더라도 문화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문화에 대한 공부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한 일본에서 생활하는 데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이 필수입니다. 혹시나 결격사유는 없는지,충분히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는 조건인지도 사전에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PART

05

취업비자

01
취업비자 종류
-
02
취업비자 신청 및 취득
-
03
취업비자로 전환하기

01. 개요

비자(사증)

비자는 일본 입국 시에 필요한 것인 반면 재류자격은 일본에 입국한 후 체류를 위해 필요한 자격이다. 일본 입국 시 단기 체재(90일 이내)에 대해서는 비자면제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나, 취업으로 장기 체재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국 시 비자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비자는 재외 일본 공관에 신청하여 취득하는데 장기 체재를 위한 비자의 경우 재외 일본 공관에서는 일본 현지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심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애로사항이 많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대부분의 경우 일본입국관리국에서 일본에 입국 및 체재를 희망하는 외국인이 행하는 활동이 각각의 비자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미리 심사하고, 그 조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라는 증명서를 교부한다. 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재외 일본 공관에 제시해서 비자를 신청하면, 통상적으로 입국 및 체재 조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입국 시 상륙심사도 간소화된다.

체크포인트

(1) 일본에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하여 근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발급받아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물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재류자격이 아닌 자가 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일본기업에 취업이 내정되면 절차에 따라 취업비자를 취득하면 되는데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취직하게 될 일본 측 회사에 미리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요청하여 교부받은 후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비자발급이 수월하고 출입국 절차도 간편하다.

비자 발급 기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 따라 다음의 대사관 또는 총 영사관에서 신청 가능하다.

비자 발급 기관

비자 발급 기관	지역
재 대한민국 일본국 대사관	현 주소지가 서울, 인천, 대전, 광주,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인 경우
재 부산 일본국 총 영사관	현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인 경우
재 제주 일본국 총 영사관	현 주소지가 제주도인 경우

비자 발급 수수료 및 기간

한국인은 비자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비자 신청 시 심사결과 면접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한 신청일의 다음날에 교부된다. 다만 취업이나 유학 등의 목적으로 일본에 장기 체류하고자 하나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본의 외무성으로 신청 서류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체크포인트

- 일본에서 일하려면 직종에 맞는 '재류자격' 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에 취업하는 한국인 구직자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재류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취득 요건으로는 학력·경력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일본 비자 발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의 비자 발급 안내를 참조하자.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된다(https://www.kr.emb-japan.go.jp/visa/visa_ryoji.html).

02. 취업비자의 종류

일본에서 취업하여 소득활동이 인정되는 재류자격은 공용(외국정부 등의 공무에 종사하는 분과 그 가족)이나 보도(외국 보도기관의 기자), 법률・회계업무(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실습(일본에서 일을 배우면서 보수를 받는 기능실습생) 등 종사하는 직업에 따라 17개로 나뉘며, 주요 취업가능 재류자격은 다음과 같다.

취업가능 주요 재류자격

재류자격	가능한 활동 및 입국대상이 되는 외국인
경영·관리	일본에서 무역, 그 외의 사업의 경영을 개시, 또는 일본에서 그 사업에 투자하여 그 경영을 행하고, 또는 해당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기업의 경영자, 관리자 등>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일본의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해서 이공학, 그 외의 자연과학 분야 또는 법률학, 경제학, 사회학, 그 외의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 또는 외국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엔지니어, 사기업의 어학교사, 디자이너, 통역 등>
기업내 전근	일본에 본점, 지점, 그 외의 사무소가 있는 공사기관의 외국에 있는 사업소의 직원이 일본에 있는 사무소에 기간을 정해 전근되어 해당 사무소에서 행하는 「기술」의 항목 또는 「인문지식·국제업무」의 항목에 열거한 활동 <외국기업의 파견 전근자>
기능	일본의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해서 행하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숙련된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외국요리 요리사, 귀금속가공기술자, 조종사 등>

자료 : 코트라'13개국 취업비자정보'

본서에서는 일본에 취업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에 대해 살펴본다. 동 비자는 2014년까지 기술(이과) 비자와 인문지식/국제업무(문과) 비자로 나뉘어 있었으나, 이과와 문과 구분없이 외국인 인재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활동 내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는 일본의 공적 또는 사적 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행하는 인문과학 분야(인문계 분야이며 사회과학 분야도 포함)와 이공계 분야(이학, 공학, 기타 자연과학 분야)에 속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또는 외국 문화에 기반을 가진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해당하는 업종과 직종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기술 : 이학, 공학, 기타 자연과학 분야(이과 계열)
  예) 컴퓨터 관련 시스템 엔지니어, 기계공학 기술자, 건축 관련 연구개발자 등
- 인문지식 : 법률학, 경제학, 사회학, 기타 인문과학 분야(문과 계열)
  예) 마케팅, 기획, 영업, 컨설팅 등
- 국제업무 : 외국 문화에 기반한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예) 통역, 번역, 디자이너 등

주요 발급 조건

(1) 학력 및 전공 관련 조건(어느 하나에 해당)

-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에 필요한 기술 혹은 지식과 관련된 과목을 전공하여 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
- 일본의 전수학교 전문 과정을 수료(해당 수료에 관해 법무대신 고시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함)
- 종사하려는 업무에 관하여 10년 이상(대학,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해당 기술 또는 지식에 관한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포함)의 실무경험에 의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을 것
- 단, 정보처리에 관한 기술 또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대신 고시로 정한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거나 자격을 갖고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 외국문화에 기반을 지닌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는 업무가 번역, 통역, 어학지도, 홍보, 선전 또는 해외거래업무, 복식 또는 실내장식에 관한 디자인, 상품개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이며, 또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을 것. 단,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번역, 통역, 또는 어학지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실무경험 불필요

(3) 일본인이 종사할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 액 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

이 때 업무와 전공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한 지식을 배우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완만하게 판단한다. 예를 들어 이과 전공이라면 일반적인 이과의 취직처로 생각되는 업무라면 괜찮다. 즉 선박공학과라면 반드시 조선과 관련된 업무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기계 설계와 같은 업무도 문제가 없다. 또한 이러한 관련성의 판단은 전공 교과목의 명칭이나 필수 과목을 가지고 심사된다. 비자 신청의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대학이 발행하는 성적표 등이 있으면 입증하기 쉽다. 일본 입국관리국이 제시하는 이공계 및 문과의 관련 분야 종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기술/인문사회/국제업무 비자의 요건 중 관련 분야

이공계 분야	문과분야
수학, 화학, 과학, 생물학, 지리학, 물리학, 통계학, 정보학, 공학, 경영 공학, 농학, 수산학, 수의학, 병리학, 치과, 약학	어학, 문학, 철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지역 연구, 법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경제 통계학

한편, IT 인재의 경우 특례(법무대신이 고시로 결정하는 IT 시험 및 자격)로 일본의 정보처리기술자 시험 및 상호 인증을 받은 경우 학력 요건과 경력 요건을 대신할 수 있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정하는 자격 중 정보처리기사와 정보처리산업기사는 상호 인증을 받은 시험에 해당하므로 일본에서 IT 부문으로 취업을 하려면 동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01. 취업비자 신청 및 발급절차

취업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

취업하게 되는 회사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회사의 요청에 충실하게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이 때 지원자가 준비하는 필요서류가 국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일본어로 번역공증이 필요하다. 또한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가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서류상 본인이름(영문 스펠링)이 여권의 영문 스펠링과 동일해야 한다. 취업비자 심사 시 취업자의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동 내용을 포함한 취업이유서 등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취업비자 신청 및 발급의 절차

취업비자 신청에서 발급까지의 절차

① 취업하게 되는 일본 측 회사가 내정서 발급
② 지원자(취업자)가 내정 수락 의사표명 또는 사인
③ 회사가 지원자에게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안내
④ 지원자가 준비해야 할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회사로 우편 발송
⑤ 회사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원자의 서류와 함께 출입국관리국에 비자 신청
⑥ 출입국관리국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하여 회사로 우편 발송(소요기간 1~2달)
⑦ 회사가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지원자에게 우편 발송
⑧ 지원자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수령 후 일본대사관 및 영사관에 취업비자 발급 요청
(발급까지 약 2일 소요)
⑨ 취업비자 수령 후 일본으로 출국

02. 취업비자 신청 필수 서류

취업비자의 경우 일본 측 회사가 일본의 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신청하고 그 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비자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한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하게 되는 활동에 대한 체류자격의 해당성 및 기준적합성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입국심사의 신속화와 효율화를 위한 것이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 기간 내에 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하여야 한다.

☑ 취업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

① 여권 : 일본은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존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입국 시 체류예정기간보다는 유효기간이 더 많이 남아 있는 여권으로 입국하는 것을 권장
② 비자발급 신청서 : 일본 대사관 영사부에 비치 또는 파일 다운로드도 가능
③ 사진 1매 : 칼라, 상반신, 4.5×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④ 주민등록증 양면 복사,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중 한자명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 원본 및 양면 복사. 원본은 사증 발급 후 여권에 붙여서 반환

자료 : 주 대한민국 일본국 대사관

03. 취업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

취업하게 되는 회사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회사의 요청에 충실하게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이 때 지원자가 준비하는 필요서류가 국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일본어로 번역공증이 필요하다. 또한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가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서류상 본인이름(영문 스펠링)이 여권의 영문 스펠링과 동일해야 한다. 취업비자 심사 시 취업자의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동 내용을 포함한 취업이유서 등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01. 개요

비자는 일본에 입국할 때 필요한 서류인 반면 재류자격은 일본에 체재하는 중에 필요한 자격이다. 일반적으로 비자 변경은 재류자격의 변경을 의미한다. 일본에서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재류자격의 범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재류자격을 획득하여야 한다. 여러 이유로 인해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에 입국한 후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류자격의 변경이 필요하다.

02.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취업비자로 전환하기

1999년 4월부터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쌍방의 문화 및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워킹홀리데이제도를 개시하였다. 연간 발급자 수는 1만 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기 위해서는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취득하여야 한다. 워킹홀리데이비자는 특정활동비자로 분류되어 일본에서의 취업이 부수적인 활동으로 인정되며, 단 1번만 이용할 수 있고 1년간 유효한 단수비자이다. 워킹홀리데이비자의 신청 기간은 1년에 4회(매 분기마다)이며 한국 내에서만 발급할 수 있다.

발급요건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②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인턴십은 대상이 아님) ③ 비자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 이하일 것(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세까지 인정 가능) ④ 자녀를 동반하지 않을 것 ⑤ 건강할 것	⑥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약 250만 원) ⑦ 이전에 본 건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⑧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취업비자로 전환하기

워킹홀리데이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 신청 시에는 취업비자의 취득 요건을 만족해

야 할 뿐만 아니라 내정회사에서 업무내용과 본인의 전공 간 관련성도 중요한 심사요건이 된다.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여권, 재류카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이력서 및 경력서, 사진 1매(4×3cm), 관련 자격증사본 등이며, 채용된 회사는 고용계약서 사본(직종, 고용 기간, 보수액 등 명기), 고용이유서, 회사안내서, 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 종업원 명부, 사무실 내부사진 등을 준비해야 한다.

03. 유학비자를 취업비자로 전환하기

일본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유학비자를 취득하여야 한다. 유학 중 주 28시간 이내에서 아르바이트도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때 미리 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 서식을 받아 작성한 다음 일본에서 입국심사 시 여권 및 비자와 함께 제출하면 재류카드 발급과 함께 받을 수 있다. 일본에 입국한 이후에는 입국관리소에 방문하여 여권, 재류카드, 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직활동을 위한 특정활동비자로 변경하기

유학생의 경우 졸업 시 유학비자의 자격이 상실되므로, 졸업까지 취직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일본에 체류하면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활동비자로 재류자격 변경 수속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대 1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변경을 위해서는 입국관리국에서 재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진, 여권, 재류카드, 체류 중 경비 지불능력 증명 문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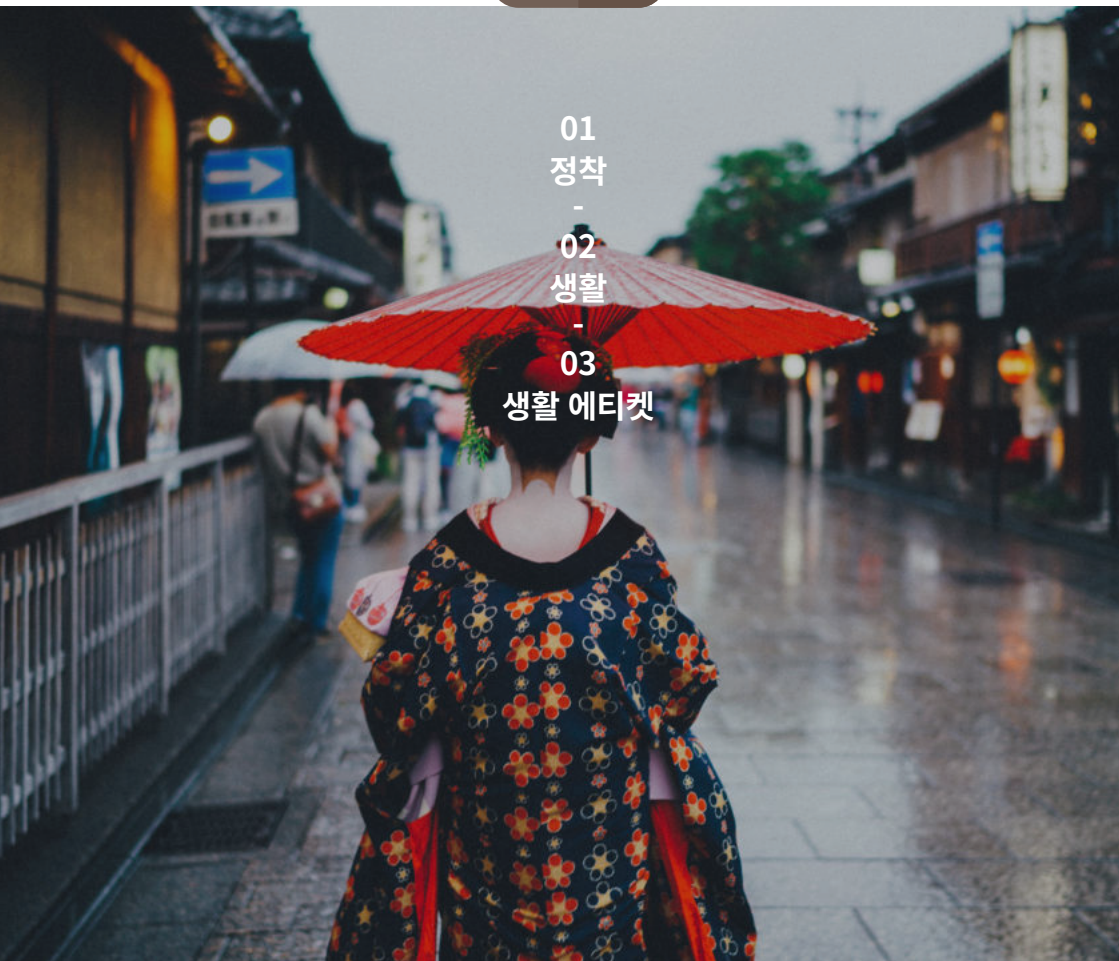
유학비자를 취업비자로 변경하기

유학생이 일본에서 취업이 결정되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와 같이 취업활동이 가능한 재류자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 재류카드, 재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 이력서 등 본인에 대한 서류와 함께 회사로부터 고용계약서 사본(직종, 고용 기간, 보수액 등 명기)과 회사 안내 서류 등이 필요하다.

PART

06

정착 및 생활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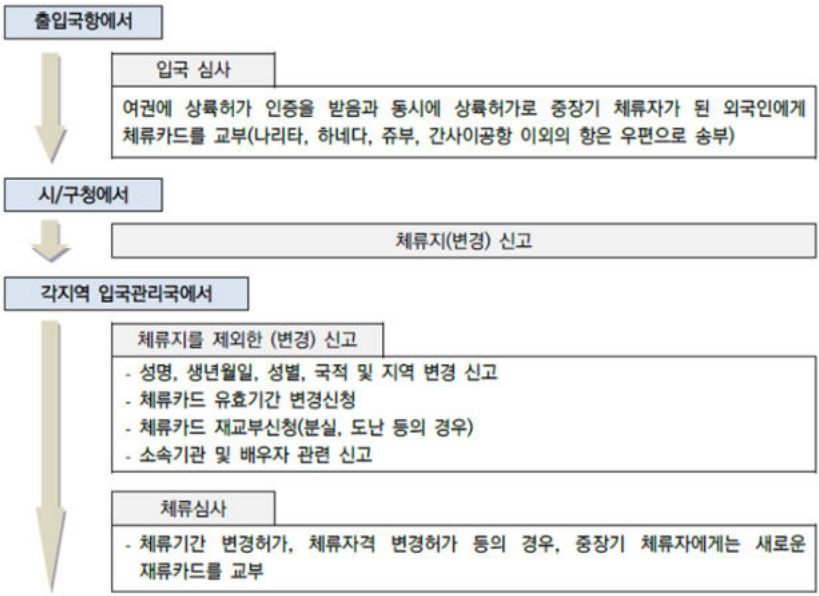
01
정착
-
02
생활
-
03
생활 에티켓

01. 출입국 수속

입국 시

일본에 도착하면 유효한 여권과 비자, 출입국카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상륙허가에 해당하는 입국심사를 받는다. 나리타, 하네다, 쥬부, 간사이 공항으로 도착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와 동시에 재류카드(체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의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거주지를 정해 거주지(체류지) 신고를 하게 되면 재류카드가 우편으로 교부된다.

입국 수속 흐름도



자료: 일본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

체크포인트

(1) 일본 입국 시 발급받는 재류카드(체류카드)는 휴대의무가 있고 은행 계좌 개설이나 휴대폰 개통 등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잘 보관하여야 한다.

(2) 일본 정착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집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집을 구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재류카드를 지참하여 거주지의 시구정촌(市区町村)에 신고하여야 한다. 재류카드가 필요서류 요건인 경우 재류카드 뒷면에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3) 외국인으로서 겪는 문제 중 상당 부분은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에 일본의 문화와 관습, 예의범절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자.

출국 시

출국 시에는 입국심사관으로부터 출국 확인을 받는다. 이는 개별적인 외국인의 출국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출국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출국 확인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소지하는 여권에 증인하는 것으로 실시하지만, 허가서의 교부를 받아 상륙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허가서를 회수함으로써 실시하게 되어 있다. 외국인이 출국하게 되면 일본 체류 중에 가지고 있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은 소멸되지만, 재입국 허가를 받아 출국했을 경우에는 그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하면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이 종전대로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재입국 시 절차

장기 비자를 가지고 일본에 체류하는 도중 일시 출국할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은 후 출국하여야 한다. 재입국 허가한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일본에 입국하려는 경우에 입국 및 상륙 수속을 간략화하기 위해 법무대신이 출국에 앞서 부여하는 허가이다. 재입국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재입국시 통상적으로 필요했던 사증이 면제된다.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일본을 출국하는 경우 종래에 가지고 있던 비자는 자동 취소되므로 출국 후 재입국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단, 여권과 체류카드를 소지하고 1년 이내에 재입국할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해외에서 연장은 불가능하다.

02. 체류 등록

체류자격제도

체류자격이란,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 체류하여 종사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 또는 입국、체류할 수 있는 신분 혹은 지위에 근거한 활동을 유형화한 것으로, 현재 27종류의 체류자격이 있다. 체류자격제도는 외국인이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 및 체류를 인정함으로써 외국인의 입국관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재류카드(체류카드) 발급

재류카드는 외국인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장기 체류자에 대해 상륙허가나 체류자격의 변경허가, 체류기간의 갱신허가 등 체류에 관한 허가에 따라 교부되는 것을 말한다. 재류카드는 크게 '증명서'와 '허가증'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 중장기간 체재할 수 있다는 재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일본국 법무대신이 인증한 적법한 체류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의 성격과 상륙허가 외의 체류자격 관련 허가 인증 시에도 교부되므로 종래의 여권에 인증 표시한 각종 허가 인증 등을 대신하는 허가 요식행위로서의 '허가증'의 성격, 바로 이 두 가지 성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체류카드의 특징이다. 재류카드에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 또는 지역, 거주지, 체류자격, 체류기간, 취업의 가부 등 법무성이 파악하는 주요 정보가 기재되므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재류카드 발급 시 여권, 출입국카드, 사진 1매(3×4㎝), 자격외활동신청서(필요시에만)를 제시하면 바로 발급이 된다.

거주지 전입신고

거주지를 정한 후 14일 이내에 재류카드를 지참하고 거주지 관공서에 거주지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입국 시 재류카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한다. 재류카드를 발급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90일 이내에 거주지 관공서에 거주지 전입신고를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 목적을 변경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워

재류카드의 구성 내용

카드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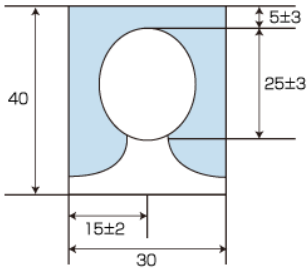
카드 뒷면

1. 주거지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새로운 주거지가 기재될 난입니다.
2.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의 내용이 기재될 난입니다.
3.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
   신청 중이라고 기재될 난입니다.
   *신청 후 갱신 또는 변경허가가 된 경우에는
   새로운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

사진규격 및 주의사항

체류카드의 교부에 수반되는 각종 신청과 신고로는 다음과 같은 규격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단위: 밀리미터



- 신청인 본인만 촬영된 것
- 테두리를 제외한 부분의 사이즈가 위 그림의 사이즈를 만족하는 것 [얼굴 사이즈는 정수리(머리카락 포함)에서 턱까지]
-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본 것
- 배경(그림자 포함)이 없는 것
- 선명할 것
-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자료: 일본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

킹홀리데이나 유학생 자격으로 일본에 입국한 후 취업이 된 경우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출입국관리국에 신청하며 필요한 서류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사진 (4×3㎝) 1매, 재류카드, 여권 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등이다.

출입국 관리 Tip

일본의 출입국 관리에 대해서는 일본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한국어 지원)를 참고하자.
-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 : www.immi-moj.go.jp/korean/index.html

03. 집 구하기

일본 정착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을 구하는 것이다. 최근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기업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많은 기업이 월세 중 일부를 보전해 주므로 사내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거 희망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 물건을 물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간 및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도일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해당 지역의 임대 물건을 물색해 보거나 물건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업자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 집을 구해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중개소를 통하게 되는데 주택 임차 시 일본 고유의 제도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거의 모든 임차 형태가 월세로 이루어지며, 대부분 2년 정도의 장기 계약을 하게 된다. 부동산 계약 시에는 재류카드 및 여권과 보증인이 필요한데 보증인이 없다면 수수료를 지불하고 보증회사를 이용할 수 있다. 입주 전 집안의 손상 및 상태 등을 집주인과 중개업자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임차계약서에 여러 조건이 상세하게 명시되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여야 나중에 손해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퇴실 시에는 통보기간을 확인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임차 시 비용

항목	내용
집세(やちん, 야칭)	월세의 일본 명칭이다.
보증금(しききん, 시키킹)	입주자가 집을 파손했을 경우 등에 대비한 보증금으로 집세의 1~2개월분을 지불한다. 퇴실 시 청소비와 수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받게 된다.
사례금(れいきん, 레이킹)	집주인에게 주는 사례금이다. 보통 1~2개월분의 집세를 지불하며 돌려받지 못한다. 최근에는 레이킹이 없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중개수수료 (ちゅうかいてすうりょう)	부동산에 지불하는 복비에 해당하며 1개월분 월세 + 소비세 5% 정도가 부과된다.
보증회사 수수료	보증인이 없는 경우 보증회사를 이용하게 되는데 보증금은 통상 월세의 50% 정도이고, 연간 회비 1만 엔 정도가 부과된다.
갱신료(こうしんりょう)	입주로부터 2년마다 임대 계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으며, 갱신 시 집세의 1~2개월분을 지불한다.
기타	화재보험비와 열쇠 교환비를 입주자가 부담한다.
임차 시 초기비용은 4~5개월분의 월세가 필요하다.	

주거형태

주거형태	특징
아파트	목조 또는 철골 구조로 만들어진 2~3층의 저층 건물을 말하며, 주로 욕실 및 화장실이 실내에 있는 원룸 정도에 해당한다. 준공된 지 오래된 경우가 많으며 내진이나 방범, 설비면에서 다소 열악하다.
맨션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로 지어진 중고층 건물로서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유사하다.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방범이나 설비 면에서 우수하다.
게스트하우스	방은 독실이지만 주방이나 화장실, 거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이다.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주택의 구조 용어

용어	내용
L(Living room)	입주자가 생활하는 방에 해당한다.
D(Dining room)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실을 의미한다.
K(Kitchen)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을 의미한다.
WC(Water closet)	화장실을 뜻한다.
UB(Unit bath)	욕실을 뜻한다.
CL(Closet)	옷장으로 쓰거나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J(Jou)	방 크기의 단위로서 다다미를 의미한다. 1조(jou)는 1.6562㎡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의 1평은 약 2조 정도로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싱글침대의 크기가 1.5조 정도이다.
예를 들어 '2LDK'는 거실과 주방이 있고 방이 2개인 집을 의미한다.	

집을 구할 때 고려할 점

일본에서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거주지이므로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 부동산의 경우 2년 계약이 일반적이고 외곽에 위치한 경우 교통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집을 구하기 전에 입국 초기에는 3개월 정도 체류 가능한 일본게스트하우스나 기숙사에 머물면서 장기 체류에 적합한 숙소를 알아보는 편이 좋다. 그래야만 일본의 생활근거지를 중심으로 이동의 편의성도 고려하고 집 상태도 파악할 수 있으며, 주위의 생활환경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숙소를 구할 수 있

다. 집의 크기와 화장실 등의 시설, 위생상태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하지만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 모든 것을 만족하는 조건의 집을 찾기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100% 만족스러운 집을 찾기보다는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집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통상 부동산업자만 만나고 집주인과 대면할 기회가 없으므로 집을 계약하고 나서 문제가 있는 경우 반드시 부동산업자에게 연락해 두어야 한다. 퇴거 시 원상 복구비를 물어야 하므로, 못 구멍, 벽의 흠집, 창의 알루미늄 창틀의 하자 등이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다. 일본의 임대 주택의 경우, 위치, 입지와 함께 조망, 전경 등이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며 대체로 고층일수록 가격이 비싸다.

한편 일본은 습기가 많기 때문에 북향이거나 통풍이 좋지 않은 위치는 곰팡이가 금방 생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집을 구할 때는 시장, 슈퍼마켓, 우체국, 구청 및 병원 등 편의시설의 위치를 확인해 두어야 하며, 전철역과의 거리가 도보 10분으로 표시된 경우 실제보다 과장된 경우가 많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온돌이 없어 겨울에 실외보다 실내가 더 추운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준비도 하여야 한다.

집 구하기 TIP

일본으로 출국 전에 미리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 대략적으로라도 집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관련 사이트: www.able.co.jp/, www.chintai.net/, www.athome.co.jp/ 등). 또한 한국인이 운영하는 일본 부동산을 통해 구할 수도 있으므로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많이 수집해 두자. 후자의 경우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한국어 응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구글 어스를 이용하면 구하고자 하는 집 주변의 환경이나 시설 등에 대한 탐색도 가능하다.

05. 교통편

주요 대중교통 수단

수단	장단점
철도/지하철	전철 표 구입 시 자동판매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며, 보통 판매기 위쪽에 노선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역의 이름과 요금을 알 수 있다. 단, 특급권, 좌석 지정권은 자동판매기로 구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매표소에서 구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철도 노선도를 보면 노선이 달라도 역명이 같은 경우에는 갈아타기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두 철도 노선의 운영회사가 다를 경우에는 일단 개찰구를 나와 새로운 노선의 승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수단	장단점
버스	도영버스(도쿄도가 운영하는 버스) 요금은 210엔 정도이고, 승하차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사영버스(일반 기업이 운영하는 버스)는 앞문으로 타고 정류장 번호표를 받게 된다. 내릴 때 운전석 위쪽에 있는 번호표 번호에 맞는 요금 금액을 확인하고 운전석 옆에 있는 요금함에 돈을 투입하면 된다.
택시	앞 유리 왼쪽에 있는 표시등에 빨간색 글자로 "空車"라고 쓰여 있는 택시는 승차 가능하다. 승차는 운전기사가 왼쪽 뒷문을 자동으로 열어주면 승차하는데, 자동문이므로 타고 내릴 때 주의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승차 전 신용카드 지불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카드(PASMO, SUICA) 이용

일본에도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 시 우리나라의 교통카드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교통패스가 있으며, SUICA나 PASMO가 대표적이다. 특히 지하철 이용 시 교통패스를 이용하면, 환승 시에 별도 요금을 정산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다. 버스의 경우에도 교통패스를 탑승구 오른쪽에 장착된 단말기에 터치한 후 내릴 때 운전사 옆에 장착된 단말기를 터치하면 자동으로 요금이 정산되므로,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일본에서는 현금보다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지역별 및 회사별로 각양각색이나, 도쿄에서는 주로 2가지 카드가 사용된다.

PASMO 카드	처음 구입 시 보증금 500엔을 내고 카드 환불시 돌려받을 수 있다. 한 장으로 대중교통 이용뿐만 아니라 물건 구입까지 가능하다. (사이트 : www.pasmo.co.jp/kr/index.html)
SUICA 카드	PASMO와 기능은 동일하며, JR에서 판매한다. (사이트 : www.jreast.co.jp/kr/pass/suica.html)

자전거 이용

일본의 교통비가 비싼 편이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 자전거는 차로 인식되므로 방법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다. 자전거 운전 시 사고를 낸 경우 차에 준하는 책임을 지게 되어 적게는 수만 엔부터 많게는 수십만 엔까지 배상비나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연간 4,160엔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 세븐일레븐에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자전거를 아무데나 주차해 두면 벌금(3,000~5,000엔)을 납부해야 하므로 자전거의 보관도 주의해야 한다.

한국운전면허증을 일본운전면허증으로 갱신하기

한국인의 경우 국제면허증으로 최대 1년까지 운전할 수 있으나, 1년 이상 장기비자를 취득하여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본운전면허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한국운전면허증은 일본의 운전면허증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영사관에서 한국운전면허증에 대한 공증서류를 발급받은 후 거주지 근처의 운전면허센터 및 운전면허시험장에서에서 심사 및 시험을 거쳐 갱신하게 된다. 한국영사관의 공증 시에는 한국운전면허증번역확인서를 작성하고 한국운전면허증 앞뒷면을 복사한 후 재류카드와 함께 제출하면 즉시 공증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일본운전면허센터에서 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공증서류와 재류카드, 여권 및 복사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매(3㎝×2.4㎝)를 준비해야 한다. 학과시험은 한국어로도 치를 수 있다. 일본에서 신규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본인과 동일한 제도를 적용받으며, 이 때 학과시험은 일본어로만 치를 수 있다.

일본의 교통편 이용 Tip

일본의 교통편의 경우 한글 지원이 되는 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Tokyo Subway Navigation for Tourists

도쿄의 지하철 환승 검색

전세계에서 총 다운로드 30만 회 돌파, 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간단한 조작으로 루트와 소요시간, 요금을 검색

FUJIYA
LOTTERIA
Nikon

01. 물가정보

일본의 물가정보

구분	품목	단위	가격(엔화)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390
	비빔밥	1인분	880
	김치찌개백반	1인분	1,180
	신라면	1봉지	110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341
	생수 (마트, 최저가)	500ml	51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500ml	129
의료	항생제	12정	1,298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210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170
	택시요금	기본요금	419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4,084
	무연휘발유 1L	1L	150
	전기요금	1Kwh	28
	영화입장권	일반	1,833
여가	담배 (말보로라이트)	1갑	570
	소주 (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1,100

자료 :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02. 은행 통장 개설

일본에서 정착 초기에 은행 계좌 개설은 급여 이체를 비롯하여 휴대폰 개통, 월세나 각종 공과금의 자동이체 등을 위해 여러모로 꼭 필요하다. 소형 은행보다는 지점망이 확충되어 있고 ATM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 대형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은행별

로 가입조건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을 가입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계좌 개설 시 거주하는 지역과 떨어진 곳에서 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 이유를 자세하게 묻거나 개설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집 근처 은행에서 개설하는 것을 추천한다. 최근에는 국내 은행의 일본 지점에서 일본 내 전용 통장계좌 개설이 가능해졌으며, 대부분의 ATM기기에서는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나 데빗카드(직불카드)를 이용할 수 없으나 우체국과 편의점(세븐일레븐)의 ATM에서는 엔화입출금도 가능하다.

일본의 주요 은행

한국계 은행으로는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한국 주요 은행의 지점이 존재한다. 신한은행의 경우 SBJ은행이라는 일본 은행법에 따라 현지 은행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 주요 은행은 다음과 같다.

은행명	특징
미쓰비시UFJ	일본 최대 규모 은행이다. 가입조건이 타 은행에 비해 까다롭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장기거주 비자가 있는 경우 6개월 미만 체류자도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미쓰이스미토모	일본내 3위 은행이다. 일본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개설할 수 있다.
미즈호	일본 최초 은행인 제1국립은행이 전신이다. 거주기간 6개월 내에 통장 개설이 불가하지만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자.
유초은행	한국의 우체국은행과 비슷하며, 외국인이 계좌를 만들기 쉬운 은행으로 알려져 있다. 제류카드만 있으면 바로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근처의 지점에서 개설할 수 있다. 초기 몇 달간은 입출금만 가능하지만 타 은행 통장 개설 전까지 사용하기에 유용하다.

필요서류

계좌 개설시 본인확인용 서류(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의 얼굴이 확인 가능한 신분증), 재류카드(거주지 등록 필요), 인감도장 등이 요구된다. 인감도장의 경우 도장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사인으로 대체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한국에서 미리 한자로 된 도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도 가능)를 요구하기도 한다.

캐쉬카드 및 데빗카드도 함께 신청

통장 개설시 캐쉬카드(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사용)와 데빗카드(각종 결제에 사용)도 신청하는데, 보통 1~2주 후에 통장과 함께 집으로 배송된다.

03. 휴대폰 개통

일본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이동통신사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 좋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휴대폰 개통 시 2년 약정이 일반적이다. 일본의 경우 단말기 가격은 한국에 비해 저렴한 편인 반면, 사용 요금은 한국보다 비싼 편이므로 미리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신중히 알아보도록 하자. 한편 한국에서 사용하던 단말기에 일본에서 유심칩만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요 이동통신사(Mobile Network Operator, MNO)

이동통신사	특징
NTT Docomo	일본 최대의 통신업체이며 한국의 삼성 갤럭시 시리즈를 라인업으로 갖추고 있다. - 홈페이지 : www.nttdocomo.co.jp
AU(KDDI)	무선 고속 통신인 wimax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다수 라인업하고 있고, LG와 함께 au 전용 스마트폰인 isai시리즈를 발매하고 있다. - 홈페이지 : www.au.kddi.com
SOFTBANK	일본에서 최초로 아이폰을 발매한 통신업체로 유명하며 화이트플랜이라는 이름으로 21시 부터 1시 이외에 통화가 무료인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한글사용이 가능해 한국인 체류자의 가입비율이 높은 편이다. - 홈페이지 : www.softbank.jp

이 외에 한국의 알뜰통신사와 유사한 저가형 통신사(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MVNO)는 라인(Line) 모바일과 라쿠텐(Rakuten) 모바일이 대표적이다. 라인 모바일은 라인 앱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 데이터 통신료가 무료인 점이 특징이고, 일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가 없어도 계약할 수 있어 음성통화 대신 SNS 사용이 많은 외국인에게 적합하다. 또한 라쿠텐 모바일은 이용요금이 가장 저렴한 SIM 카드인 점이 특징이다.

필요서류

휴대폰 개통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는 재류카드 및 주민표, 일본 은행 통장(은행 계좌 개설 전인 경우에는 마스터나 비자 계열의 해외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도 가능) 등이 필요하다.

04. 각종 유틸리티 개설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유틸리티는 세입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방문하여 설치가 완료된다. 전기와 가스는 1달 단위로 요금이 청구되는 반면, 수도는 2달마다 검침이 행해진 후에 요금이 청구된다.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였다면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하는 것이 편리하다.

전기

일본은 각 지역별로 전력회사가 있다. 지역전력회사의 영업소에 전화하여 신청한다. 이사 등으로 해지할 때는 2~3일 전에 전력회사에 연락해 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전압은 100V, 주파수는 50/60Hz를 겸용하며 플러그는 A형 2구 콘센트로, 한국의 220V, 60Hz, C형 2구 콘센트로 상이하기 때문에 한국제품의 일본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100V 제품의 경우 변압기를 구입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한국과 다른 50Hz 주파수를 사용하는 지역(주로 동일본)에서는 한국제품 작동이 잘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일반 전자제품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지만 특히 전열기구나 모터를 돌리는 제품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국제품은 50Hz/60Hz 겸용 제품이 많으나 사용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도쿄전력 : http://www.tepco.co.jp/index-j.html)

가스

일본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는 도시가스와 LP가스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가스 종류를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거주 지역 근처의 가스영업소에 전화로 신청하며, 가스미터기의 사용번호와 이름, 주소를 알리면 담당자가 방문한다. 이사 등으로 해지할 때는 미리 가스회사에 연락하여 이용 정지일을 알려야 한다.

(도쿄가스 : http://www.tokyo-gas.co.jp/)

수도 및 하수도

거주지가 속한 시구정촌의 담당 창구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한다. 시구정촌마다 등록 및 사용료 지불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해 봐야 한다.
(도쿄도 수도국 : http://www.waterworks.metro.tokyo.jp/)

인터넷

일본에서는 인터넷 공급회사와 제공회사(프로바이더)가 분리된 경우가 많아 인터넷 회선 이외에도 프로바이더의 신청이 필요하다. 인터넷 회선(광통신 또는 ADSL) 신청 시 각종의 프로바이더까지 함께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미리 거주지에 연결되는 회선의 유무와 종류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요금은 회선요금과 프로바이더요금이 청구되는데, 최근에는 휴대폰과 인터넷의 결합상품으로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플랜도 많아지고 있으니 참고하자.
(NTT 동일본 : https://flets.com/)

05. 병원 이용

일본의 의료기관은 평소 진찰을 받을 수 있는 진료소와 입원이나 검사 설비가 갖추어진 병원으로 나누어진다. 아플 때에는 먼저 진료소에서 진찰을 받고,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하면 큰 병원으로 가게 된다. 의료기관에 방문 시에는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재류카드나 여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아프게 되면 당황해서 의료기관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으므로 도도부현 홈페이지에서 거주지 근처에 있는 의료기관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어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두자.
일본어 능력이 상급 수준이더라도 몸이 아파 병원에 가서 증상을 상세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외국인이 병원에서 병이나 상처의 증상을 의사에게 설명하는 것을 돕기 위해 '다언어 의료 문진표'(한국어 링크 : http://www.kifjp.org/medical/hangul/index.html)가 제공되고 있다. 동 문진표는 진료과목별 및 증상별로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병원 방문 시 이를 참고하여 자신의 증상을 상세히 설명하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TIP - 도쿄도 내 한국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서비스 이용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www.himawari.metro.tokyo.jp/qq/qq13tomnlt.asp)
② 대응 가능한 외국어 탐색 (対応できる外国語でさがす)
③ 한글(ハングル)을 선택
④ 진찰 과목 체크 (診療科目でさがす)
⑤ 지도상의 거주 구(区)와 상세주소를 클릭

06. 우편

일본의 우편업무는 일본우편주식회사가 취급하고 있지만 소포 등의 화물은 일반 택배회사에서도 취급하고 있다. 엽서나 우표는 우체국 외에 우편 심볼마크인 '〒' 표시가 붙어 있는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일본 국내에서는 7자리의 우편번호가 사용되고 있다. 일본 국내에 편지를 부칠 경우의 우편요금은 엽서는 62엔, 규격봉투에 넣은 편지는 25g까지 82엔이다. 엽서나 편지는 우표를 붙여 빨간색 우체통에 넣는데 우체통에는 일반우편을 넣는 투입구와 대형 우편물, 속달, 국제우편물을 넣는 투입구가 따로 구별되어 있다. 우편요금을 모르거나 우체통에 들어가지 않는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직접 보내야 한다. 일본에서 외국으로 편지를 보낼 경우, 엽서는 전 세계 어디로 보내더라도 70엔 이고, 편지의 우편요금은 25g까지 90~130엔이며 보내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한국으로 편지나 화물 등을 보낼 때는 국제특급우편(EMS), 항공편, 이코노미항공(SAL)편, 배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07. 긴급 상황 시 연락처

도쿄도 외국인 상담실

도쿄도는 외국인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곤란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생겼을 때에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상담실'을 개설하고 있다. 한글 상담은 매주 수요일 9:30~17:00(12:00~13:00는 제외)이며 연락처는 '03-5320-7700'이다. 주요 상담내

용은 일상생활에 관한 문제나 긴급시의 문의처, 일본의 관습·문화·사회제도에 관한 사항,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의 손해배상 및 보험수속 문제, 가족 및 자녀들에 관한 문제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다.

한국어 노무상담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용 상담 다이얼' 및 '노동조건상담 핫라인'을 개설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용 상담 다이얼'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전화 서비스로, 동 서비스를 통해 노동조건 관련 문제에 대해 관련 법령 설명 및 관계기관 등을 소개받을 수 있다. 한국어 대응시간은 매주 목요일 및 금요일 10:00~15:00(12:00~13:00는 제외)이며, 한국어 대응 전화번호는 '0570-001-709'이다. 또한 '노동조건상담 핫라인' 상담은 노동조건 관련 문제에 대한 법령 설명 및 관계기관 소개 등을 한다. 한국어 대응시간은 매주 목요일 17:00~22:00 및 일요일 9:00~21:00이며, 한국어 대응 전화번호는 '0120-613-801'이다.

한편, 일본 도쿄노동국은 신주쿠 노동기준감독서에서는 한국어를 포함한 6개 언어로 창구 직접상담(신주쿠노동기준감독서 신주쿠노동종합청사 4층) 및 전화 상담(03-5338-5582)을 통해 노동 조건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담 내용은 임금·잔업수당 등 미체불 혹은 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등을 포함하며, 상담 시간은 매주 목요일 및 금요일 9:30~16:30(12:00-13:00을 제외)이다. 창구 직접 상담 시에는 상담 일시 등을 사전에 예약하여야 한다.

병이나 부상 시

가벼운 병이나 부상 시에는 도쿄도 의료정보서비스(03-5285-8181)로 연락하며, 한국어 서비스도 가능하다. 급한 병이나 부상 시에는 소방서(119)로 앰뷸런스를 요청한다. 한편 교통사고 시에는 경찰 긴급전화(110)로 연락하면 된다.

화재 시

화재가 났을 경우 종업원이나 점원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서 신속하게 피난해야 한다. 숙소에서는 미리 비상구를 확인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화재의 긴급통보, 구조 및 앰뷸런스의 요청은 소방서의 긴급전화번호(119번)로 연락을 하면 된다.

지진 시

우선은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지진이 멈출 때까지 상황을 지켜본다. 낙하물에 주의하고 테이블 밑 등에 숨어서 다치지 않도록 몸을 보호한다. 흔들림이 안정되면 출구를 확보하고, 피난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황하여 밖으로 나오지 말고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01. 생활에티켓

인사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는 '오지기(お辞儀)'라는 동작이다. 오지기는 감사나 경의를 표할 때나 사과할 때, 뭔가를 부탁할 때에 상대방에게 허리를 구부려 하는데, 서서 하는 오지기에는 '에샤쿠(會釋)', '경례(敬禮)', '최경례(最敬禮)'의 3가지가 있다. 에샤쿠는 동료나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 행하는 간편한 오지기이며, 상체를 15도 정도 구부려야 하고, 목만을 구부려 하는 에샤쿠는 매너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본인도 존재한다. 경례는 거래선 등과 면담할 때나 무엇인가를 의뢰할 때 하는 오지기이며, 상체를 30도 정도 구부린다. 최경례는 가장 정중한 오지기이며, 크게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거나 사죄의 의사를 전달할 때 상체를 45~60도 정도 구부려 행하게 된다. 남성은 허리를 굽힐 때 팔을 몸 옆에 붙이고 여성은 양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포갠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하더라도 스킨십을 요하는 인사는 행하지 않으며, 악수나 포옹을 하거나 볼을 만지는 인사는 일반적이지 않다.

악수/명함

윗사람에게는 먼저 악수를 청하지 않아야 하고 손을 두 손으로 잡지 않는다. 살짝 잡은 손을 2~3회만 흔든 다음 대화를 하거나 착석하면 된다. 악수를 한 뒤에 명함을 교환하게 되는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명함을 건네고, 받은 명함은 상대방의 이름이 가려지지 않게 끝을 잡아 상대방과의 자리가 끝날 때까지 눈에 보이는 곳에 놓아두는 것이 예의이다.

선물

일본에서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중요한 풍습이라 할 수 있다. 선물의 가치 자체보다는 선물을 주는 행위에 중점을 두므로 받는 쪽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고가의 선물보다는 간소하게 준비하면 된다. 또한 선물을 받을 때 바로 포장을 열기보다는 만남이 끝난 후에 포장을 여는 풍습이 있다.

식사

일본인과 식사를 할 경우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리 내며 먹는 것, 물수건으로 얼굴이나 목을 닦는 것, 식탁 위에 담배를 두는 것, 식사 중에 이쑤시개를 쓰는 것 등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젓가락으로 식기를 움직이는 것, 젓가락을 핥거나 무는 것, 식기 위에 젓가락을 두는 것, 젓가락으로 음식물을 찌르는 것 등은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위험이 있다.

전화

업무상 통화 시에는 업무시간 중에 하되 되도록 짧게 마치는 것이 좋다. 상대편을 확인하면 곧바로 이름과 직책 등 자기소개를 하며, 상대방이 먼저 끊은 다음에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공원이나 지하철, 영화관, 병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는 조용히 통화를 하고 벨소리를 낮춰 놓거나 되도록 진동으로 해두길 권장한다.

공공장소

영화관이나 전시회, 연극 등 공공장소에서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제한되므로, 허락된 곳이 아니면 사진 촬영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병원, 건물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금연구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아무데서나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하고, 쓰레기는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큰소리 내지 않기

일본의 경우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는 행동을 싫어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큰소리로 떠들지 않아야 한다. 특히 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거의 다른 사람의 말소리를 듣기 어려울 정도이다.

PART

07

해외취업 Q&A

01 현지 언어 실력
-
02 갖추어야할 스펙
-
03 면접 시 유의사항
-
04 졸업 경과 후 취업가능성
-
05 근로계약 시 유의사항
-
06 급여수준
-
07 외국인 복리후생 제도
-
08 현지생활 시 주의사항

01 현지 언어 실력

Q. 일본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일본어 실력이 필요할까요?

A. 한국인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본기업에 취업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일본어능력입니다. 일본어를 잘 할수록 취업 시 보다 다양한 기회를 가지는 반면, 아무리 뛰어난 스펙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일본어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취업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일본어 실력이 요구될까요? 대부분의 일본기업은 외국인 채용 시 회사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일본어 실력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회사생활은 담당업무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와의 협업이나 고객 응대 시 원만한 커뮤니케이션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상급 정도의 일본어능력이 요구되고, 이와 동시에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합니다.

02 갖추어야할 스펙

Q. 일본어능력 외에 일본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스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한국에서는 취업을 위해 '스펙'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구직자의 '인성과 잠재력'이 보다 중요시됩니다. 인성과 잠재력을 갖춘 인재라면 사내교육을 통해 언제든지 스킬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IT를 비롯한 기술직의 경우 관련 분야의 전공지식 또는 자격증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종합직의 경우에는 일본어능력과 인성이 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일본기업들이 수차례에 걸쳐 면접을 진행하는 것도 모두 인성이 좋고 잠재력이 뛰어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일본어능력이든 전공실력이든 간에 자격증보다는 실력이 우선시됩니다. 따라서 취업준비생은 스펙 자체보다는 철저한 자기분석을 바탕으로 한 에피소드 위주로 자기소개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종을 분석한 후 입사하고자 하는 기업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취업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면접 시에는 공손한 태도로 경어를 사용하여 인성과 잠재력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업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길입니다.

03 면접 시 유의사항

Q. 면접 시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1차 면접은 단체면접, 2차 면접은 개별면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면접과정에서 외국인의 경우 토익점수 등의 외국어 능력보다 지원자가 일상 업무에서 일본어를 얼마나 잘 하는가, 동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문제가 없는가 등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면접과정에서 본인의 답변을 간결하지만 분명하고 또박또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차이점 등은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므로 준비를 해 두면 좋습니다. 면접이나 면담을 위해 회사를 방문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약속시간 15분 전에 도착하여 5분 전에 전화로 확인을 하는 것이 비즈니스 예의입니다. 일본은 문화적 특성상 면접을 볼 때 지원자의 인상과 자세, 태도 등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면접을 볼 때나 기업의 세미나에 참가할 때의 복장은, 자유복이라는 지정이 없는 경우 통상 리크루트 슈트라 불리는 정장을 입고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졸업 경과 후 취업가능성

Q.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꽤 되었는데 일본 취업이 어려울까요?

A. 일본의 경우 '신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기업의 경우 신졸여부보다는 인재의 인성이나 잠재력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자신이 신졸이 아니라거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본 취업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기업이 신졸을 선호하는 이유가 종신고용을 지향하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와 애사심, 조직 내에서의 화합과 유연한 태도를 중요시하는 일본 직장 문화에 따른 것임을 감안하여, 자신이 이러한 문화에 더 적합한 인재임을 어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Q. 대학 공백기(휴학)가 있는데 혹시 불리하지 않나요?

A.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휴학을 하더라도 등록금을 계속 내야 합니다. 때문에 일본 대학생들은 대부분 휴학 등 공백 없이 졸업까지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휴학을 했다면, 그 시기에 무엇을 하였는지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Q.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걸 어필하면 면접에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나요?

A. 일본은 스펙보다 그 사람의 성향을 주로 봅니다. 일본 취업에서는 기초력을 평가하는데, 특정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플러스 요인이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기분석을 할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나는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등 분석을 해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 대학 졸업 후, 장교생활을 3년 정도 했습니다. 신졸 지원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저와 비슷한 사람이 취업한 사례가 있나요?

A.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서에 명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일본 채용전형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닙니다. 다만, 군대의 경우 어느 정도 상황을 이해해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 지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인사 담당자에게, 리크루트사를 통해 취업할 경우 담당 직원에게 별도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Q. 일본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여 현재 일본어 관련 대학원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대학원을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취업준비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취업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를 목적으로 대학원에 가는 것이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언어는 취업이후에도 얼마든지 업무를 하면서 향상이 가능합니다. 채용에 있어 나이를 무시할 수 없는 일본의 경우는 취업을 먼저 하길 추천합니다.

Q. 졸업유예를 하면 많이 불리한가요?

A. 졸업 유예를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접에서 반드시 질문이 나올 것이라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공채에 원서를 접수해 보는 것은 어떤지요? 만약 현재 준비해서 결과가 좋지 않다면, 다음으로 기회를 넘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졸업유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역량강화 등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비전공자로서 IT 직종에 취업을 하려면, 정보처리기사가 있어야 하나요?

A.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IT직종에 취업을 하시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의사소통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어능력을 먼저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Q. 경력직으로 일본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력직 채용과 관련된 정보를 국내에서 접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일본도 3~5년 정도 경력을 쌓으면, 우리나라처럼 이직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신졸로 도전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현지 이직사이트를 활용하길 권장합니다.

05 근로계약 시 유의사항

Q. 일본에서 근로계약을 할 때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취업에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를 하다보면 업무의 내용이나 처우 등이 기대와 달라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근로조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기업의 경우 근로조건이나 근무 시 종업원이 지켜야 할 규율 등을 정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를 확인해 보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받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본의 급여는 월례임금 외에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어떤 것이 있는지 체크해 보고, 사회보험이 제공되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06 급여수준

Q.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아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A. 일본의 경우 주거비와 교통비가 비싼 편이어서 이들에 대한 회사의 지원 정도에 따라 생활비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일본기업의 경우 교통비는 대부분 지원이 되고, 최근 구인난이 심해지면서 기숙사를 제공하거나 월세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등 주거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주거비와 교통비를 제외한 일반 생활물가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물론 씀씀이에 따라서 개인마다 생활비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임금수준을 감안하면 일본기업에 취업 시 정착하여 생활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 수준입니다. 주거비 등 일본의 생활 물가 정보는 KOTRA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윈도우나 지역별 무역관 사이트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07 외국인 복리후생 제도

Q. 일본에 취업 시 외국인에게도 복리후생제도가 적용되는지?

A. 일본의 노사 간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은 일본 내 모든 회사에 적용되고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본기업에서 내국인에게 주어지는 복리후생제도는 모두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08 현지생활 시 주의사항

Q.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일본의 경우 사회적 분위기나 전반적인 교육방침이 다른 사람들과의 화합을 매우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는 행동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행동할 때 이 점에 매우 신경을 씁니다. 평소 자신의 행동거지를 조심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중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므로 처음에는 보수적인 자세를 취해 개인적인 질문은 좀 더 친해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특히 일본 사회는 이른바 매뉴얼 사회로 모든 것의 속도가 한국보다 느리며 신중하고 철저한 경향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실수가 적은 면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사가 확정되어 실제로 일본에서 생활하게 되면 일본문화에 대한 적응력이 사회생활의 성공여부와 직결되므로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절실합니다.

일자리 찾아 세계로

해외취업 **완전정복 일본**

도서명	해외취업 완전정복 일본
발행인	어수봉
발행처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일	제1판 1쇄 2017년 03월 24일
	제1판 2쇄 2018년 11월 22일
	제1판 3쇄 2022년 1월 10일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문의처	1577-9997
홈페이지	www.worldjob.or.kr
지은이	박진모, 윤동열
디자인	초아출판사
ISBN	978-11-5799-094-8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22

본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